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 학위논문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의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 서울 서촌(西村)을 사례로 -

Proposals for Urban Conservation based on 'Historic Urban Landscape' Concepts

- A Case Study of Seo-chon in Seoul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채 혜 인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의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 서울 서촌(西村)을 사례로 -

지도교수 박 소 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채 혜 인

채혜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지난해 국제보존기구인 유네스코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를 공표하였다. 본 권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역사도시경관’ 은 도시의 역동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문화적인 가치와 기여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결과로 이해되는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도시의 보존에 대해 경관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 ‘역사도시경관’은 변화를 도시의 전통으로 본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차원까지를 포함한 경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아직까지 역사문화경관 자원을 한 옥에 국한시키는 우리나라의 경관 보존에 대한 인식과는 차별적인 접근이다.

한편 ‘경관’ 개념이 중세시대에 사용되던 단어로부터 다의적으로 진화해 온 것과 유사하게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의 경관 보존 개념 역시 1982년 역사정원에서부터 문화경관, 그리고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경관 개념은 물론이고 보존의 대상과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존 방식까지 변화하였다. 요컨대 미적 관점에서 대상 기념물의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부터 인간 행위에 주목하여 장소로서 역사지역의 변화를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진화는, 국제보존원칙에서의 경관 보존 논의가 경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깊이에 못지않은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깊이를 지닌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3, 4차원적 접근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주로 물리적인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존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서촌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보존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 다층성이 잘 나타나는 도심부 역사지역인 서울 서촌을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 고찰해 본 결과, 먼저 서촌이 지닌 유 · 무형의 역사적 가치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지역 내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도 서촌의 주요한 무형적 가치요소로 꼽힐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주요 특징을 토대로 대상, 주체, 보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서촌의 보존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서촌의 보존에 있어서, 현재 한옥 위주의 보존 대상은 일본식 가옥과 다른 근대 건축물, 그리고 무형적인 가치요소까지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서촌의 보존과 관련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 및 의견조율을 위한 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서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리적, 사회문화적 변화에 있어 창조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촌 보존의 쟁점사항으로 도출하였다.

한편 서촌의 보존 현황에서는 지역 공동체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기억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서촌의 역사적 의미와 같은 무형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들은 지역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서촌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들의 활동은 서촌의 보존에 있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들의 삶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도시경관 개념이 역사지역을 생활 유산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촌의 공동체 활동과 같이 생활문화와 관련하는 프로그램들이 보존계획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을 통해 실천적 관점에서 보존이론을 고찰했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사례 대상지로 서울 서촌 한 곳만을 고찰하여 연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 **주요어:**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국제보존원칙, 경관보존 개념, 서울 서촌

▌ **학 번:** 2010-23240

목 차

▮ 국문초록 ····· i
▮ 목차 ····· iii
▮ 표 목차 ····· vi
▮ 그림 목차 ····· vii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

2.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2.2. 연구의 내용과 흐름 ····· 5

3. 관련 선행연구 고찰 ····· 7

Ⅱ. 경관 보존의 관점에서 본 역사도시경관 개념 ····· 11

1. '경관' 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1

1.1. '경관' 개념의 기원과 변천 ····· 11
1.2. 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 연구 ····· 14

2.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보존 개념 ····· 19

2.1. 경관 보존과 관련한 국제보존원칙의 전개 ····· 19
2.2. 역사정원(Historic Garden) ····· 23
2.3.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 26
2.4.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 33

3.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보존 개념의 변천 내용 ····· 39

3.1. 문화유산으로서 경관 개념 ····· 39
3.2. 주요 가치와 보존 대상 ····· 40

3.3. 보존관리 방식 ····· 41

4. 소결 ····· 43

Ⅲ.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 45

1.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의 특징 ····· 45

1.1. 경관보존 개념으로서 역사도시경관의 특징 ····· 45

2.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 47

2.1. 대상 요소 ····· 47

2.2. 관련 주체 ····· 49

2.3. 보존관리 행위 ····· 51

3.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주요쟁점 ····· 55

3.1. 변화의 창조적 관리 ····· 55

3.2. 다양한 보존 주체의 참여와 협력 ····· 58

3.3. 무형적 요소의 보존을 위한 전략 ····· 60

4. 도시 역사지역에의 적용을 위한 분석틀 ····· 63

Ⅳ.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적용한 서울 서촌(西村)의 보존 ····· 65

1. 사례 대상지 선정 배경 ····· 65

1.1. 선행연구를 통해 본 서촌의 역사적 다층성 ····· 66

2.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촌의 가치요소 ····· 67

2.1. 유형적 가치요소 ····· 67

2.2. 무형적 가치요소 ····· 77

3.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촌 보존의 쟁점사항 ····· 87

3.1. 서촌의 보존 관련 사업 및 활동 현황 ····· 87

3.2. 서촌 보존의 쟁점 사항 ····· 97

4. 소결: 서촌의 보존 방향에 대한 제언 ····· 100

Ⅴ. 결론 ····· 103

[인용문헌] ····· 107

[Abstract] ····· 111

표 목차

<표 Ⅰ-1> 보존경향에 관한 연구 ····· 7
<표 Ⅱ-1> '경관' 개념의 변천 ····· 18
<표 Ⅱ-2> 역사정원 개념의 주요 내용 ····· 25
<표 Ⅱ-3> 보존 원칙 내용 ····· 31
<표 Ⅱ-4>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가 회의 목록 ····· 32
<표 Ⅱ-5> 문화경관 개념의 주요 내용 ····· 33
<표 Ⅱ-6>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리한 '역사도시경관적 접근' ····· 38
<표 Ⅱ-7>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주요 내용 ····· 38
<표 Ⅲ-1> 경관보존 개념의 주요 변화 내용 ····· 46
<표 Ⅲ-2> 보존 대상 요소 ····· 48
<표 Ⅲ-3> 보존 주체 별 책임과 역할 ····· 49
<표 Ⅲ-4> 분석 대상 ····· 51
<표 Ⅲ-5> 각 경관보존 개념의 보존 전략과 도구 ····· 52
<표 Ⅲ-6> 역사도시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전략 ····· 54
<표 Ⅲ-7> 역사도시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도구 ····· 55
<표 Ⅲ-8> 문화경관 보존관리 프로세스 ····· 59
<표 Ⅳ-1>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서촌의 역사문화경관 자원 ····· 67
<표 Ⅳ-2> 개화기-일제강점시기에 설립된 서촌의 학교 ····· 71
<표 Ⅳ-3> 조선시대 서촌 관련 예술인 ····· 79
<표 Ⅳ-4> 근대시기 서촌 관련 예술인 ····· 81
<표 Ⅳ-5> 서촌 지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특정경관계획 ····· 89
<표 Ⅳ-6> 옥인 1구역 재건축 추진일지 ····· 89
<표 Ⅳ-7> 한옥권장구역 구체적 방침 ····· 90
<표 Ⅳ-8> 한옥 관련 지원금 ····· 91
<표 Ⅳ-9> 조선왕실과 관련한 문화자원 ····· 92
<표 Ⅳ-10> 권문세족과 관련한 문화자원 ····· 93
<표 Ⅳ-11> 서울 서촌의 근현대 문화재 현황 ····· 93
<표 Ⅳ-12> 서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 ····· 9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 6
<그림 Ⅱ-1>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 인식 ····· 20
<그림 Ⅱ-2>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보존 개념 ····· 22
<그림 Ⅱ-3> 베르사유 궁전 정원 ····· 24
<그림 Ⅱ-4> 교토 전통 정원 ····· 24
<그림 Ⅱ-5> 큐 왕립 식물원 ····· 27
<그림 Ⅱ-6> 레드니체-발티체 ····· 27
<그림 Ⅱ-7> 블래나번 산업경관 ····· 28
<그림 Ⅱ-8> 필리핀 계단식 논 경관 ····· 28
<그림 Ⅱ-9> 이탈리아 친퀘테레 ····· 28
<그림 Ⅱ-10> 통가리로 국립공원 ····· 29
<그림 Ⅱ-11> 수쿠 문화경관 ····· 29
<그림 Ⅱ-12> 비엔나의 역사 중심지 ····· 34
<그림 Ⅱ-13> 런던 타워 주변 ····· 34
<그림 Ⅱ-14> 역사도시 리버풀 ····· 36
<그림 Ⅱ-15> 각 경관 개념 사이의 관계 ····· 39
<그림 Ⅱ-16> 문화유산으로서의 경관 개념 ····· 40
<그림 Ⅱ-17> 보존 대상 및 주요 가치 ····· 41
<그림 Ⅱ-18> 보존관리 방식 ····· 42
<그림 Ⅱ-19> 진화하는 경관보존 개념 ····· 43
<그림 Ⅲ-1> 보존 대상 요소 ····· 47
<그림 Ⅲ-2> 역사지역 거주민들의 역할 확대 ····· 50
<그림 Ⅲ-3> 2002년 기존 계획 ····· 56
<그림 Ⅲ-4> 2005년 승인된 계획 ····· 56
<그림 Ⅲ-5> 베를린 ····· 57
<그림 Ⅲ-6> 그라츠 쿤스트하우스 ····· 57
<그림 Ⅲ-7> 다양한 집단 간의 의사결정 회의 ····· 60
<그림 Ⅲ-8> 솔로몬 제도의 커뮤니티 워크샵 ····· 60
<그림 Ⅲ-9> 아바나 마을 축제 ····· 62
<그림 Ⅲ-10> 지역 상징물 홍보 ····· 62
<그림 Ⅲ-11> 사례 대상지에의 적용을 위한 분석 틀 ····· 64
<그림 Ⅳ-1> 서울 서촌 행정 동 현황 ····· 65

<그림 Ⅳ-2> 옛길이 남아있는 지역 ····· 68
<그림 Ⅳ-3> 체부동 한옥밀집지 골목 ····· 68
<그림 Ⅳ-4> 도로 패턴 형성 ····· 69
<그림 Ⅳ-5> 조선시대 백운동천 ····· 69
<그림 Ⅳ-6> 현재의 자하문로 ····· 69
<그림 Ⅳ-7> 체부동 한옥 건립시기 ····· 70
<그림 Ⅳ-8> 체부동 도시형 한옥 밀집지 ····· 70
<그림 Ⅳ-9> 이층 일본식가옥 ····· 71
<그림 Ⅳ-10> 효자 아파트 ····· 71
<그림 Ⅳ-11> 60년 된 대오서점 ····· 72
<그림 Ⅳ-12> 60년 된 형제이발소 ····· 72
<그림 Ⅳ-13> 50년 된 중국집 ····· 72
<그림 Ⅳ-14> 사진위주 류가헌 ····· 73
<그림 Ⅳ-15> 레인 폴 스프링 컴 ····· 73
<그림 Ⅳ-16> 대림미술관 ····· 73
<그림 Ⅳ-17> 아트사이드 갤러리 ····· 73
<그림 Ⅳ-18> 서촌에서 본 북악산 ····· 74
<그림 Ⅳ-19> 남산에서 본 서촌 ····· 74
<그림 Ⅳ-20> 겸재 그림과 관련한 장소 ····· 76
<그림 Ⅳ-21> 필운대 그림과 현재 모습 ····· 77
<그림 Ⅳ-22> 수성동계곡 그림과 현재 모습 ····· 77
<그림 Ⅳ-23> 기린교 ····· 77
<그림 Ⅳ-24> 서촌의 예술관련 장소 ····· 80
<그림 Ⅳ-25> 서촌의 공방과 갤러리 ····· 82
<그림 Ⅳ-26> 세종마을 선포식 ····· 84
<그림 Ⅳ-27> 세종생가터 복원 추진활동 ····· 84
<그림 Ⅳ-28> 서촌 탐방 가이드 ····· 85
<그림 Ⅳ-29> 생태 탐방 ····· 85
<그림 Ⅳ-30> 공방 네트워크 ····· 86
<그림 Ⅳ-31> '동네기업을 소개합니다' 행사 ····· 87
<그림 Ⅳ-32> 서촌지역 마을 간담회 ····· 87
<그림 Ⅳ-33> 서촌의 공공계획 및 사업 ····· 89
<그림 Ⅳ-34> 구역 구분도 ····· 90
<그림 Ⅳ-35> 필운대 바위각자 ····· 93
<그림 Ⅳ-35> 현재의 이상의 방 ····· 94

<그림 Ⅳ-37> 보안여관 ····· 94
<그림 Ⅳ-38> (주)품애 활동 ····· 95
<그림 Ⅳ-39> '텃밭해' ····· 95
<그림 Ⅳ-40> 전봇대 벽화 ····· 95
<그림 Ⅳ-41> 마을 벽화 ····· 95
<그림 Ⅳ-42> '서촌을 보는 창' ····· 96
<그림 Ⅳ-43> 서촌 라이프 소개 ····· 96
<그림 Ⅳ-44> 서촌 보존 현황의 특징 ····· 98
<그림 Ⅳ-45> 서촌 도시형 한옥 ····· 99
<그림 Ⅳ-46> 지구단위계획 반영모습 ····· 99
<그림 Ⅳ-47> 효자동 신축 건물 ····· 100
<그림 Ⅳ-48> 누하동 신축건물 ····· 100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landscape)’은 중세시대에 처음으로 쓰였던 단어인 만큼 그 연원이 깊은 개념이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경관이 오랜 시간 동안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경관은 인간의 문화적 행위가 깃든 장소에서부터 다양한 의미 체계까지를 내포하는 다의적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진화해 왔다. 한편 조경학과 같이 경관을 실천적 관점에서 다루는 분야에서도 최근 경관을 동사로 이해하고자 하는 반성적 주장이 대두되는 등[1] 기존의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경관 개념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경관 개념에 대한 확장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계획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관 을 물리적인 요소의 집합 정도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역사지역의 경관은 역사라는 문화적 배경이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역사문화경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존 및 관리 분야에서의 접근은 3차원 내지 4차원적의 시공간적 관점보다 작은 범위에 국한한 2차원 내지 점적 관점에서 경관을

1)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2004, pp.45-64

주로 다루어왔다[2]. 이에 본 연구는 경관 개념에 대한 이론적 깊이만큼 '보존'이라는 실천적 접근도 경관의 다의적 성격에 조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경관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비해 경관 보존이라는 실천적 관점에서의 경관 연구는 아직 미비한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도 경관 보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보존 분야에서 비교적 합의를 거쳐 공인된 보존논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 주목한다. 역사 보존과 관련한 국제기구들에서는 1954년 유네스코의 헤이그협약[3] 이후 국제기구 간의 교류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유산 제 전반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4]. 이 논의들은 기념비적인 단일 문화유산에서부터 역사마을, 역사지구(area), 역사도시에 이르기까지 대상의 폭을 확장해 왔다[5]. 특히 경관에 대해서도 1962년 '경관과 유적지의 아름다움과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에서 주요한 보존 대상으로서 다루어진 이래로 지난해 유네스코[6]가 최종적으로 공표한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공표된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 제시하는 '역사도시경관'이라는 개념은 변화가 잦은 도시의 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대에 구성된 역사적 소산이 중첩된 역사도시 및 도시지구를 경관으로서 보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역사도시경관'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양립하기 힘든 보존과 개발 사이의 조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7]되는 등 도시 보존에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기대를 모

---

2) 역사문화경관을 다루는 태도나 행동의 한계로 다룬 바 있다. 문화관광부, 역사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문화관광부, 2005

3) 유네스코, 헤이그 협약: 무력갈등 사건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954

4) 역사 보존과 관련한 국제기구는 유네스코, 이콤(ICOM, 국제 박물관 협의회), 이크롬(ICROM, 국제 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네스코(UNESCO)와 그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그리고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보존원칙을 주로 다룬다.

5) 문화재청,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2010, pp.164-165

6) 유네스코(UNESCO)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준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하 '유네스코'로 쓴다.

7) Stegano Bianca, *Historic Cities in the 21st century: core values for a globalizing*

으고 있다. 이처럼 단편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원칙에서의 경관 보존 개념을 살펴보더라도, 국제보존기구에서의 논의들은 우리나라의 도시 역사문화경관의 보존 관행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존이라는 경관에의 실천적 접근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보존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보존원칙에서 다루어진 경관 보존 개념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경관 개념에 대한 이론적 흐름에 대응하여 이해하고 그 보존방식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근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하여 실증적인 우리나라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세부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1.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 보존 개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부분과, 실질적인 사례 대상지에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적용하여 향후 보존 방향을 제언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의 연구는 경관 보존 개념으로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뒷부분은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함이다.

먼저 경관 보존 개념 및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유네스코와 이코모스[8], 그리고 유럽평의회에서 제정 · 공표된 국제보존원칙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국제보존원칙은 각각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 전반의 보존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협의를 거쳐 공표한 것으로, 이는 비교적 합의를 거친 보존에 대한 공인화된 담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게티 보존 협회가 정리한 국제원칙을 기준[9]으로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그리고 유럽평의회 회

---

world, WHC Paper Series 27, 2010

8)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의 약자로 이하 '이코모스'라고 쓴다.

의에서 발표된 원칙은 약 100여 개에 달한다[10]. 이들은 비준의 필요성, 형식, 성격 등에 따라 협약, 헌장, 원칙(Principles), 권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원칙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한다는 점에서 원칙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존 담론의 전개를 확인함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 국제보존원칙들의 내용 분석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 보존 개념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보존원칙 외 국제 보존 논의의 동향을 반영하는 국제회의 및 전문가 회의의 보고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연구간행물(Paper Series), 그리고 국제적인 보존 논의를 다루는 관련 연구를 이차 자료로 이용한다.

이어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부터 실질적인 보존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본 개념을 적용할 사례 대상지를 선정한다. 대상지의 분석을 통한 본 개념의 고찰은 역사도시경관 개념이 도시지역의 '역사적 중첩'의 강조함에 기인하여, 현재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숨쉬는'서촌[11]', '서울의 살아있는 과거[12]'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촌(西村)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서촌은 경복궁 서측의 15개의 법정동을 일컫는 지역으로, 이곳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연구는 현장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동시에 서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 계획 및 활동과 관련한 각종 문헌자료 및 연구 자료를 함께 연구의 자료로 이용한다. 필요에 의해 관련 주체들과의 면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9) "Cultural Heritage Policy Documents", Getty Conservation Instiute(게티 보존 협회), 2009 (http://www.getty.edu)

10) 2009년 게티 보존협회에서 정리한 국제원칙은 총 82개이며, 이후 2011년까지 추가로 공표된 유네스코와 이코모스의 원칙은 8개다. 유럽평의회에서 공표된 국제원칙은 총 8개다.

11) 문화저널, 2012-05-31일자
(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55993&section=section21)

12) 연합뉴스, 2012-03-11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9278)

2.2. 연구의 내용과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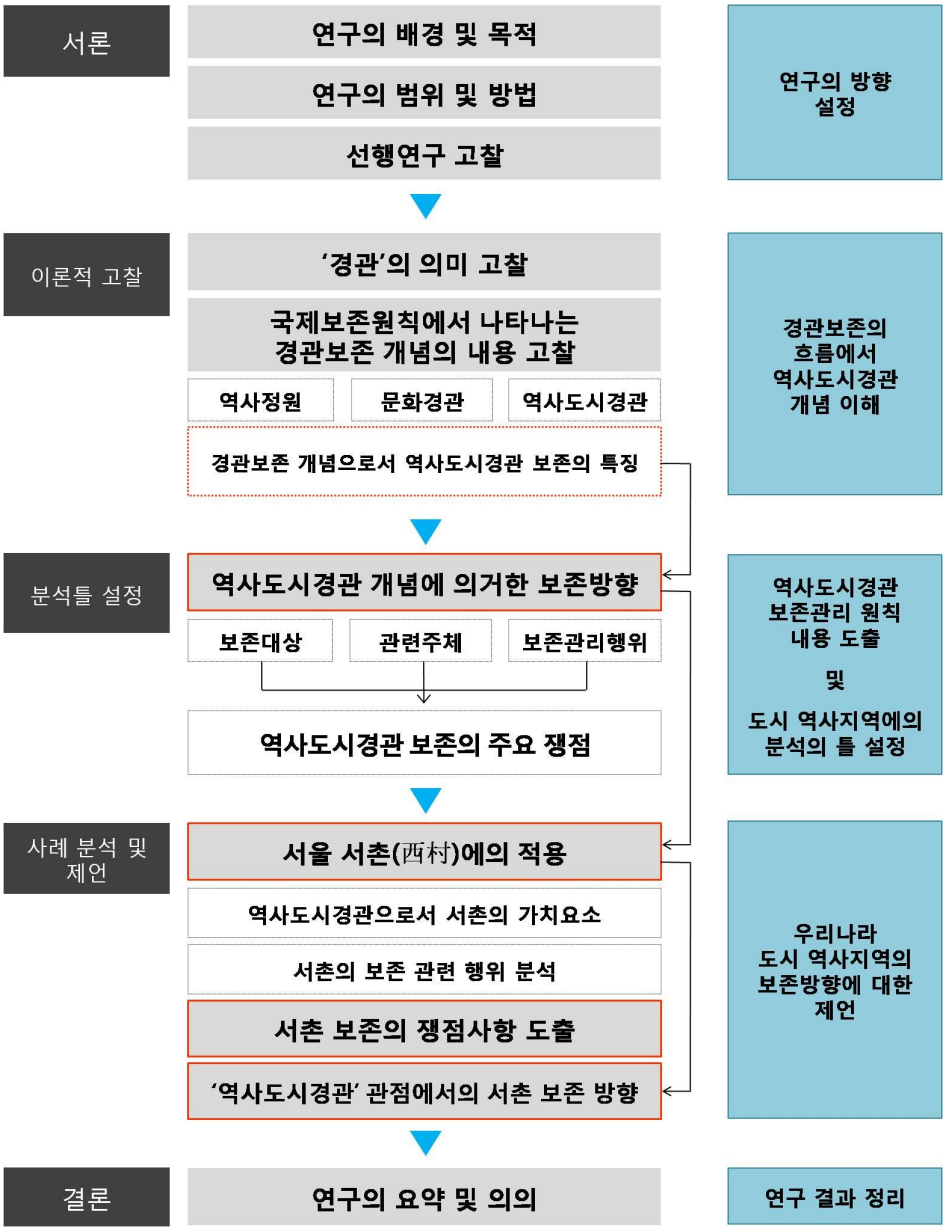
1장은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담는다. 먼저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을 구성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국제보존원칙을 통해 경관 보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밝힌다.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국제 보존기구에서의 경관 보존 논의들을 살핀다. 먼저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보존 개념들을 도출하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경관보존 개념들의 변천 내용과 특징을 고찰한다. 궁극적으로 본 장에서는 경관보존의 흐름 속에서 역사도시경관을 이해하고 본 개념이 갖는 의의를 밝힌다.

3장에서는 앞서 밝힌 경관보존 개념으로서의 역사도시경관의 의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보존관리 원칙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는 실증적으로 도시의 역사지역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을 위한 개념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은 보존 대상요소, 관련 주체, 보존관리 행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도시 보존 방향의 쟁점사항을 도출한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상 역사지역에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적용하여, 보존 가치요소와 보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한다.

4장에서는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을 통해 서울 서촌(西村)지역을 살펴보고 향후 보존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먼저 서촌이 지닌 역사도시경관의 가치요소를 보고,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 보았을 때 서촌의 현 보존 관련 행위들이 지니는 쟁점사항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촌 보존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5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2, 3, 4장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밝힌다.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고찰
연구의 방향 설정
이론적 고찰
'경관'의 의미 고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보존 개념의 내용 고찰
역사정원
문화경관
역사도시경관
경관보존 개념으로서 역사도시경관 보존의 특징
경관보존의 흐름에서 역사도시경관 개념 이해
분석틀 설정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보존방향
보존대상
관련주체
보존관리행위
역사도시경관 보존의 주요 쟁점
역사도시경관 보존관리 원칙 내용 도출 및 도시 역사지역에의 분석의 틀 설정
사례 분석 및 제언
서울 서촌(西村)에의 적용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촌의 가치요소
서촌의 보존 관련 행위 분석
서촌 보존의 쟁점사항 도출
'역사도시경관' 관점에서의 서촌 보존 방향
우리나라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방향에 대한 제언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연구 결과 정리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3. 관련 선행연구 고찰

역사지역 보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김기호(2004)는 도시역사환경의 보존이 점적문화재의 보존 위주에서 생활문화재로서 면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다고 한다. 장옥연 · 김기호(2006)는 제도와 연구경향을 고찰하여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호와 도시계획 및 보존 범주에서의 보존 경향이 면적보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문화재청(2010)은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문화유산의 보존 경향으로서 도시보존의 특성에 대해 일부 다룬 바 있다. 국외 연구로는 유카 요칼레토(2007)의 연구가 국제보존원칙을 대상으로 도시보존의 경향이 점차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밝혔다.

<표 Ⅰ-1> 보존경향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명	연구내용
김기호(2004)	도시 역사환경보존-면적 보존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면적보전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장치 등을 살펴보고 면적보존의 가치를 설명 생활문화재로서의 도시 역사환경과 면적보존의 개념을 정리하고 도시 역사환경의 보존에 관한 법제, 성격을 고찰
유카 요칼레토 (2007)	International Charters on Urban Conservation: Some Thoughts on the Principles expressed in Current International Doctrine	국제 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도시보존의 경향 변화를 고찰하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고찰
장옥연, 김기호 (2006)	우리나라 역사환경 보존의 경향과 특성: 제도와 연구경향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면적보전의 역사를 제도와 연구경향 변화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재 보존분야와 도시계획분야 전반에서 면적보존의 경향으로 감을 밝힘
문화재청 (2010)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게티 보존센터가 정리한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 내용을 통해 주제별 원칙의 내용 변천을 고찰.

이처럼 아직까지 역사지역의 보존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들이 풍부하지 않은 바이다. 특히 역사경관의 보존에 대해서는 보존방안에 대한 제안과 같이 실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본 선행연구의 고찰에서는 역사경관보존에 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역사경관의 보존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보존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경관 보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역사경관'보존은 '역사문화경관'또는 '역사환경'이라는 개념어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역사경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세천 · 이행렬 · 노복윤 · 오동현(1991)은 '역사경관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역사경관을 문화경관의 일부로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르는 인간 역사의 제적이자 흔적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유산에 대한 가치가 역사적 기념물에서 현재 살고 있는 시대 속의 과거로써의 역사적 유물로 변해감에 따라, 역사경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활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활환경으로서의 역사경관의 가치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 대상 선정기준과 보존 범위 설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동만(1993)은 역사경관을 기술, 문화, 사건 등 인간의 자취와 사연이 깃든 경관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경관이라고 이해한다. 또한 역사경관의 보존 방안으로는 아토(Attoe)가 제시한 보존 유형[13]에 대한 법적, 재정적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보존대상의 확대와 역사지도의 제작, 재정적 지원방안의 검토, 주민참여의 유도, 문화재를 소홀히 다루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스카이라인의 보존, 생활양식의 보존, 해설기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오민근(1999)은 도시의 역사경관의 개념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생활과 경험의 결과로서, 시간이라는 변화요소에 의해 변화해 가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과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며 도시경관의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 역사경관의 보존을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보존지구의 다양화, 유도적 성격의 조례 제정,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와 행정적 지원책 마련을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역사적 건축물이 밀집한 도시 내 역사경관 보존에 대한 권용걸(2001)의 연구에서는 역사경관을 향토 및 지역의 전통적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역사적 가로경관, 유적지, 문화재를 통하여 형성되는 심상 혹은 이미

13) 아토(Wayne O. Attoe, 1979)는 역사경관의 보존 유형을 보존(Preservation), 보전(Conservation), 복원(Restoration), 지구수복과 개수(Rehabilitation & Renovation), 복제/모사(Replication/Imitation), 그리고 이전(Relocation)으로 구분하였다. Attoe. W. O., "Historic Preservation, in A. J. Snyder(ed.),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지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김세천 외3(1991), 오민근(1999)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된 생활방식, 가치체계 등 문화가 표현되고 축적, 기록된 종합적인 문화경관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역사경관의 연구 대상을 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 또는 역사적 건축양식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한 권용걸(2001)은 현 역사경관 보존을 위해 용도지역지구제의 역할 분담 및 범위, 관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형, 획지, 토지이용, 가로망, 건축조형 측면의 경관요소에 대한 보존계획에의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조성태(2007)는 오랜 시간 흐름 속에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문화가 축적된 경관을 역사경관으로 보며, 강태호(2010)는 역사경관이란 자연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인간의 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민족, 지역문화, 시대와 더불어 전통으로 계승되며, 미래의 삶을 위한 가치 판단 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경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역사경관은 역사, 문화, 생활양식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공간상에 나타난 결과이며, 토지이용 정주 패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보존 방식에 있어서 강태호(2010)는 문화적인 접근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보존 방식에 대한 연구는 역사경관 뿐 아니라 '역사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도 한 축을 이룬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역사환경은 오랜 시간을 두고 쌓아 온 사람들의 삶의 축적물 전체로 이루어진 환경으로서(강병기, 1996) 가시적, 물질적인 환경과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인 환경 그리고 기능적인 환경과 감성적인 환경을 모두 포함(정재훈, 2002)하는 개념이다. 또한 단순히 문화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생활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이천복, 2006). 같은 맥락에서 역사환경의 보존은 이전의 것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에 이어나가야하며 창조해나가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의미로 볼 것이 강조된다(이천복, 2006).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한 역사환경의 개념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포함하고 지역 이미지로서의 역사경관의 의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보존 방식을 살펴보면, 정재훈(2002)은 서울 삼청동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재 뿐 아니라 전통생활공간까지를 고려한 서울 도심문화지구 조성에 대한 연구에서 역사 환경의 물적 요소와 함께 비 물적 요소의 보존

을 강조하고, 대상지를 보전, 조성, 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원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성 방안에 대해 연구한 신유승(2002)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의 대상이자 도시공간 구성의 기준으로 삼아 수원 화성 성곽 일대를 다섯 공간으로 나누어 각 공간별 성격 및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이천복(2006)은 역사도시 상해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 개조를 통해 역사적 주거지를 보존 및 개발하는 도시정비 차원의 접근, 인근지역을 고려한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식 접근 등이 도시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고려한 보존방식에의 시사점으로 꼽는다.

한편 장옥연 · 김기호(2008)의 연구처럼 역사환경의 보존을 위한 협력적 계획과 같은 보존 방식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특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을 협력적 계획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계획의 과정에서의 참여 방안과 장기적으로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역량 형성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역사경관 및 역사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들은 주로 문화재 주변, 전통 역사마을, 그리고 도시 내 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보존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경관'의 개념은 최근에 와서 인간의 행위, 삶 등으로부터 결과 되는 장소의 이미지나 심상, 장소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된다는 점에서 '역사환경'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포괄적인 역사경관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존 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법, 제도의 개선, 물리적 요소의 관리 및 물리적 환경 설계 등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역사지역의 거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의 역량 형성과 같은 다른 각도의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는 역사경관 보존 방식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Ⅱ. 경관 보존의 관점에서 본 역사도시경관 개념

1. '경관' 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경관' 개념의 기원과 변천[14)]

일찍이 문화지리학자 마이닉(D. W. Meinig)은 '경관' 개념이란 일반인이 흔히 인식하는 경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즉 인간의 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경관'개념을 자연(Nature), 서식처(Habitat), 인공물(Artifact), 체계(System), 문제(Problem), 부(Wealth), 이념(Ideology), 역사(History), 장소(Place), 미학(Aesthetics), 이 10가지 개념으로서 설명한 바 있다[15)]. 황기원 역시 '경관(landscpae)'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14) 우리나라에서 '경관'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 1930년대 일본에서 독일어 landshaft를 뜻하는 단어로서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이 전해온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현대적인 조경개념이 도입된 1970년대에 서양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조경으로 랜드스케이프를 경관이라고 번역해 쓰면서부터이다(황기원, 2011: 30-31). 그러므로 본 장에서 다루는 '경관'이라는 개념은 기원 및 의미의 진화는 서양어의 landscape에 대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15) Meinig, D. W. "The Beholding Eye: Ten Versions of the Same Scene." In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Geographical Essays, edited by D. W.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경치, 풍경의 의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여러 인문사회적 영향으로 다의적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16].

이처럼 오늘날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경관'이라는 개념어의 기원은 중세 봉건주의 시대에 사용된 고영어 landscipe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경관은 농촌 토지의 경제적 사회적 단위를 뜻하는 단어로, 이는 곧 농토, 숲, 마을 등으로 구성된 구역(district), 지구(area), 지역(region)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황기원은 이 어원을 한 마디로 뭉뚱그려 '나누고 손질한 토지'로 정의한다[17]. 그리고 내부의 경작행위라는 문화적 가치증진 및 형질변화를 통해 경계가 한정지어진다는 점에서, 경관은 경계가 뚜렷한 하나의 공간이자, 그 공간에서 인위적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환경이며, 그 환경 속에서 정주민이 체험을 누적해 나가는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중세시대의'경관'은 인간의 직접적인 삶의 의지가 투영된 토지를 의미하는 개념어라고 할 수 있다[18].

이러한 경관의 기원적 의미는 오늘날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적 이미지, 즉 경치로서의 경관 개념과 사뭇 다르다. 이 둘의 의미 차이는 16세기 말 17세기 초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화단을 중심으로 유행하게 된 풍경화(landscape painting)식 화풍의 유행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andscape라는 표기도 이 당시 네덜란드에서 '경치'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landschap과 기존에 영국에서 사용되었던 landscipe이 습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19].

당시 풍경화의 유행을 선도했던 이탈리아 화단은 자연의 이상적인 상태를 일정한 틀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하는 양식을 만들어냈다[20]. 특히

Meinig and John Brinckerhoff Jack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6) 황기원,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제 17권 1호, p.55

17) 황기원, 위의 논문, 1989, p.58

18) 이정재, 도시 문화경관, 문화과학, 1994, p.233

19) 황기원(1989)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이자 보편적인 개념은 경관을 경치(scenary)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황기원, 위의 논문, 1989, pp.60-61

20) 미술사가 Harold Spencer는 이러한 양식을 '끌로드 공식(Claudian Formula)'이라고 한다. 끌로드 공식이라함은 교묘하게 설정한 시각유도 장치에 의해 조망되는 풍경에 공간적 깊이를 부여하고 신비감과 은밀감을 조성하는 양식이다. Spencer, 1975, pp. 184-186

당시 풍경화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이상경관은 이탈리아에 실재했던 풍경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경관 개념은 현실 세계의 일단의 토지 개념으로부터 시각적 감상을 위한 이상적 경치로 변하게 되었다[21].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전원의 풍요로움을 그리는 낭만적 문화운동인 픽춰레스크(picturesque) 운동의 영향을 받은 풍경화는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의 태동과 함께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자본가와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서구 유럽 지역에 퍼져나갔다.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폐하고 더러운 모습과 상반되는 자연적이고 이상적인 경치는 자본가와 귀족의 환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태동기인 18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픽춰레스크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 풍경화는 공간적으로도 재현되어 서구유럽 특유의 풍경식 정원(landscape garden) 양식을 창출하였다[22]. 특히 영국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이 풍경식 정원 양식은 영국의 원생자연의 모습을 풍경화식으로 순치한 자연으로서 회화적 자연관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기도 한다[23]. 이 과정에서 경관은 환경, 장소로서의 속성을 상실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의 겉모습' 특히 이차원적으로 구성된 회화적 효과를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실체가 아닌 이미지로서의 경관이 된 것이다.

한편 풍경화와 풍경식 정원양식의 유행으로 인한 경관 개념의 변화는 자연적이고 이상적인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경관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풍경화가들의 회화 기술의 바탕이 된 원근법은 기본적으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이다. 기술적 특성 상 원근법을 통한 표현은 자연히 외부세계와 관찰자라는 두 주체 사이의 경계를 만든다. 그 가운데 공간은 시각적 소유물로서 인식되고 또한 구현된다. 즉 원근법은 어느 한 개인이 중립적 위치에 서서 자신이 사라진 3차원 공간을 시각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수단[24], 더 정확히 말하

---

21) 배정한, 조경설계와 회화적 자연관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제 27권 3호, 1999

22) 이무용, 한국 도시경관의 근대성: 경관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제 11호, 1999, p.96

23) 배정한(1999)은 이러한 회화적 자연관에 기초한 관점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경관을 '그림 같은 자연'의 이미지로서 바라보고 구성해 내려고 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배정한, 위의 논문, 1999

24) 코스그로브(1981)는 원근법을 통한 경관의 구현은 시각적으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면 '어떤 특정한 시공간 상에서의 시야의 외연을 통제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원근법을 통해 구현된 경관 개념은 특정 관찰자의 시점을 가정하는 의미로서, '어떤 장면(scene)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으로서 경치[26]'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풍경화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모한 경관 개념은 당시 외부 세계와 자연을 바라보는 서구 유럽인들의 문화적 관념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27], 오늘날까지도 주요한 의미체제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경관'이라는 단어를 흔히 '경치'혹은 '풍경'이라는 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실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19-20세에 발달한 지리학 분야에서 경관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경관의 의미는 기원적 의미를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의미의 지평을 확장하게 된다[28].

1.2. 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 연구

경관 개념이야말로 통일된 지리학을 나타낸다고 한 슈미트휘젠(J. Schmithusen)의 말[29]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경관에 대한 담론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온 분야는 지리학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리학에서의 경관 연구는 경관 개념의 기원 이후 그 의미가 다의적으로 진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30]. 특히 문화지리학에서의 문화경관 개념을 토대로 경관연구는 그 깊이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다. 윤홍기는 초기 발전 단계를 환경결정론적인 단계, 제 2기를 버클리 식의 문화결정론적인 단계, 제 3기를 신문화지리의 단계라고 한다. 환경결정론적인 경

구분한다는 점에서'공간의 시각적 전유(專有) 기술'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25) 이정재, 앞의 논문, 1994, p.235

26) M. Mikesxll, "Landscap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III, 1968, p.567

27) 이무용, 앞의 논문, 1999, p.95

28) 지리학에서의 경관 연구 및 경관 개념은 다음 항(Ⅱ장 1절 1.2항)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29) 경관에 대한 연구에 있어 "여러 종류가 공존하는 공간, 그것을 구성하는 사물의 조성이나 공간적 배치, 인간의 작용을 포함한 역사적 시스템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지리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없다"고 지리학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한 바 있다.

30) 황기원, 한국인이 보는 경관, 건축, 제 36권 1호 1992 p.3

관연구는 당시 유행했던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 또는 환경결정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따라서 환경이 인과관계의 기계적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생활양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환경결정론에서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으로 당시의 경관 연구는 주로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물리적, 생물적, 인간적 현상이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현상들의 형태, 재료, 생성과정 및 공간적 상호연결성 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즉 인상적인 지역 경관을 대상으로 경관을 설명 및 해석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31].

이러한 환경결정론적 경관 연구는 20세기 초 독일 및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종전의 환경론적 접근방법을 지양하는 경관론이 등장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문화경관론의 초석으로 이해되는 독일 지리학자들의 경관론은 경관의 개별적 형상들을 조사 및 분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상이 '어떻게'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경관 형상이 공간적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32].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경관론에서는 이후 버클리학파 연구의 초석이 되는 '문화경관'을 '자연 경관 위에 가해진 인간 활동이 구체화되어 표출된 형태'로서 정의하였다. 또한 인간과 자연환경을 매개하는 범주나 인간 정신의 산물이 '문화'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곧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경관은 '자연경관'과 대비되는 '문화경관'으로 인식하였다[33].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 또는 공간으로 인식된[34] 경관 개념 및 독일 지리학자들의 landschaft(경관)론은 칼 사우어(C. Sauer)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 버클리학파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면서 문화경관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우어는 경관을 '특정한 관찰자가 보는 실재 경치가

---

31) 윤홍기, 영어권에서 문화지리학의 발전과 연구동향, 문화역사지리, 제 21권 1호, 2009, p.20

32) 황기원, 앞의 논문, 1989, p.65

33) Boesler, 안재학 역, 『정치지리학』, 명보문화사, 1995, p.16

34) 슐뤼터(Schlüter)는 지리학의 중심적인 인식 대상이 '가시적인 지역의 형태' 즉 '경관'이라고 말함으로써 지리학을 '경관학'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언급에서 경관 개념이 '지역' 혹은 '공간'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무용, 앞의 논문, 1999, p.96

아니라, 수많은 개별 경치의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개괄화'로 재개념화하였다. 즉 경관을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형태의 뚜렷한 결합으로 구성된 지역[35]'으로 이해함으로서 인간을 물적 환경을 형성하는 역할과 물적 경관을 문화경관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인자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 이론 의 주창으로 경관 개념은 물질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화적 의미까지를 아우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버클리학파의 경관 연구는 자연인자가 시간을 거치게 되면 자연 경관이 되고, 이 자연 경관에 문화가 시간을 거쳐 작용하게 되면 인구분포나 주택 형태나 생산수단과 같은 문화경관이 지표에 형성된다는 관점에만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사우어와 그의 제자들은 주로 가옥, 담장, 경지, 묘지 등 지표에 나타나는 인간문화의 시각적 형태에 주목하여[36] 자연경관에서 문화경관으로의 전환과정과 결과를 발굴, 조사, 해석하였다. 연구지역으로는 전통문화의 흔적이 농후하고 보존이 양호한 농촌지역을 선호하였다[37].

이처럼 사우어의 위시한 버클리학파의 문화경관론은 1970년대 영국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성장한 신 문화지리학자들(new cultural geographers)[38]에 의해 새롭게 도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사우어로 대표되는 지리학자들의 연구가 옛날 시골의 오두막집이나 울타리 등과 같은 경관의 시각적 형태에 관심을 둠으로써 가시적인 경관 이면에 있는 경관 형성의 사회 · 정치적 과정과 권력관계를 경시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현대 도시의 일상경관과 복잡한 현대도시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문화=공유된 의미체계'라는 기호학적 문화 개념을 도입한다[39]. 그리

---

35) Sauer, C. "The morphology of landscape", in Geography 2(2),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1925, pp.24-25

36) 사우어는 자연인자가 시간을 거치게 되면 자연 경관이 되고, 이 자연 경관에 문화가 시간을 거쳐 작용하게 되면 인구분포나 주택 형태나 생산수단과 같은 문화경관이 지표에 나타난다고 했다. 사우어의 문화경관 공부는 다시 말하자면 지표에 나타난 인간의 궤적을 추적하여 서술·설명하는 것으로서 경관의 형태(form)만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지, 문화 경관 형태에 딸린 부속 신앙, 습관, 풍속 등의 경관 기능(function)은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윤홍기, 앞의 논문, 2009, p.16-18

37) 홍금수,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제 21권 1호, 2009, p.56

38) 기존의 문화경관론은 상대적으로 구 문화지리학(old cultural geography)으로 구분되었다.

39) 자세한 내용은 신문화지리학자들의 논문 'Iconography and Landscape'를 참조할 것.

고 경관을 인간 주위를 상징하거나 표현하는 경치, 즉 문화의 이미지로 간주한다면, 경관 연구는 지표위의 흙이나 돌, 물 또는 식생과 같은 실제 경치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캔버스에 그린 그림, 종이에 쓴 글, 영화 등도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0].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체계'로서의 경관 개념에 입각한 연구들이 물리적 환경의 생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경관이 소비되고 재현되는 방식으로까지 그 개념과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 대상으로 경관이미지를 구성하는 영화, 광고, 음악 등의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들까지를 포함시킨다. 이 같은 신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 개념은 우리가 보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의 세상을 독특하게 관찰하고 마음에 형상화하는 '사물을 보는 방식 혹은 시각적 전유방식(ways of seeing)'이다. 즉 경관이란 보이는 현상 자체이자 그것을 보고 느끼는 지각으로 이해된다.

환경결정론에서 문화경관론, 그리고 신문화지리학에서의 연구까지 경관연구의 흐름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시적 환경이 일상생활의 중점적인 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도시형태와 일상경관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기 시작했다[41]. 이무용은 이러한 흐름을 환경 개념을 자연환경에서 '사회환경'으로 확대시켜 사회체계 및 사회변동과 도시형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사회적 문화경관론'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 연구 대상이 도시의 일상경관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오늘날 경관 연구는 도시경관, 농촌경관, 관광경관, 문화경관 등, 자연적 · 물리적 환경은 물론 주제와 의미에 따라 세분되기도 하고 그것만큼이나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42].

그 일환으로 투안(Y. F. Tuan)은 경관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개인

이무용, 앞의 논문, 1999, p.97

40) 윤홍기, 앞의 논문, 2009, p.19

41) 경관을 풍물로서 또는 문화적 환경의 총체적 결과물로서 이해하며, 미국의 현대도시경관을 해석하는 잭슨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관이라는 대상을 필지나 토지, 건물, 그리고 물리적인 척도로서 깊이와 높이와 같은 물상적 특질로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보편성과 유별성, 독자성과 개별성, 그리고 공공성과 같은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 본다. 황기원 · 유병림 · 이민우, 한국 항만도시의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Ⅰ), 한국조경학회지, 제 20권 4호, 1994, p.83

42) 조정송 외,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 한국학술정보(주), 2006, p.44

과 부족의 역사로 보고 인간과 장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의미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43]. 렐프(Edward Relph)는 경관을 장소의 맥락이자 장소의 속성으로 보고, 경관의 특성이 자연적, 인공적 특징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미의 특정한 결합으로 생겨난다는 점에서 장소성의 주요 인자로 의미를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의 경관의 무장소적인 속성에 대해 연구하였다[44]. 속성에 대해 모호함, 획일성, 그리고 변화무쌍함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경관에 대한 연구가 문화지리학 분야 외 역사지리학, 문화인류학, 환경미학과 같은 제반 인문사회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관 개념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시도되기도 한다. 경관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즉 대상이 아닌 과정이나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환경미학 분야에서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경관을 '문화적 과정'으로 정의하는 에릭 허쉬(1995)의 주장이나 '참여적 경관으로의 개념 전환을 통해 경관의 대안적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다'는 아놀드 벌리언트의 의견에서도 찾을 수 있다[45].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경관은 내부자의 관점에서 일상적 행위와 체험과 장소 사이의 관계에 비중을 두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 까지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 '경관' 개념의 변천

배경	중세시대 장원제도	16-17세기 이탈리아/ 네덜란드 화풍의 영향	19-20세기 문화지리학 연구의 영향		환경미학 연구의 영향
			구 문화지리학	신 문화지리학	
단어의 변화	landskap(네덜란드어) / landscipe	landskip / landscape			
의미 변화	한정된 토지 농촌 토지의 경제적 사회적 단위	시각적 이미지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	지역 고유의 물리적 문화적 특성의 개괄	사물을 보는 방식 시각적 전유방식	일상적 행위와 삶의 장소 사이의 관계 문화적 과정
주요 가치	환경적, 장소적 가치	미적 가치	전통적 가치 문화적 가치	수단적 가치	참여적 가치 과정적 가치

43) 한성미 외 2, 서래마을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 37권 4호, 2009, p.34

44) 렐프(1987)는 현대의 경관의 특성을 모호함, 획일성, 그리고 변화무쌍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2 역, 논형, 2005, pp.270-271

45) 배정한,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2004, pp.47-49

2.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 개념

2.1. 경관 보존과 관련한 국제보존원칙의 전개

현재까지 공표된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국제원칙은 약 90여 개[46]에 이른다. 이 중 '경관(landscape)'의 보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원칙은 총 21개이다. 이들 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 보존 내용은 크게 두 분류로 그 흐름을 나눌 수 있다. 바로 기념물, 유적, 역사도시지구 및 역사중심지와 같은 문화유산의 주변환경으로서 경관을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문화유산으로서 경관을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흐름이다.

직접적인 보호 및 보존의 대상으로서 경관은 1962년 유네스코의 권고안[47]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본 권고에서는 경관과 유적의 보호(safeguarding)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경관과 유적의 미와 특성의 보호는 그 환경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문화적이고 미적인 특성 또는 전형적인 자연적 주변환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시골적이고 도시적인 경관과 유적의 보존[48]과 복원'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본 권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관의 개념은 그 보호에 있어 국립공원의 지정, 풍치지구의 지정 등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공적인 경관이라기보다는 자연경관의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49]. 또한 유네스코와 이코모스에서 본격적으로 세계유산(World Heritage)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72년부터라는 점에서[50], 본격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경관이 논의된 것은 그 이

---

46) 2009년 게티 보존 센터에서 정리한 원칙 목록과 그 이후 2011년까지 유네스코, 이코모스, 유럽평의회에서 추가된 국제원칙의 개수이다.

47) 유네스코, 경관과 유적의 미와 특성의 보호에 관한 권고, 1962, 제 1조

48) 본 권고에서는 '보존'을 preservation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보존 방식이 원형 보존 위주였다는 점과 관련한다고 볼 수 있겠다.

4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번역문에서 본 권고에서 쓰고 있는 '경관'을 '자연경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이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50)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을 통해 세계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는 그 유형을 기념물(monument), 기념물군(ensembles), 유적(sites)로 정의하고 협약국의 등재신청과 이코모스의 평가를 거쳐 세계문화유산을 본격적으로 등재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세계유산은 1978년 등재

후라고 볼 수 있다.

순번	년도	기구	원칙명	경관(Landscape) 관련 내용	경관에 대한 인식	
					주변요소	유산자체
1	1962	U	경관과 유적지의 아름다움과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유적지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자연적, 인공적 경관	◎	◎
2	1967	I	키토 규범: 예술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념건조물과 유적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회의 보고서	주변환경으로서 자연적, 인공적 경관	◎	
3	1972	U	세계유산 협약: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주변 풍치로서의 경관	◎	
4	1972	U	국가 수준에서의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주변 풍치로서의 경관	◎	
5	1975	I	소규모 역사도시의 보존에 관한 심포지엄 결의안	주변환경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경관	◎	
6	1982	I	플로렌스 헌장: 역사정원	역사정원 및 경관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서 경관		◎
7	1993	I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 보존에 관한 교육과 훈련 지침	주변환경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경관	◎	
8	1995	C	문화경관 지역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권고	개인과 사회, 영토 사이의 표현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서 경관		◎
9	1996	I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의 기록에 관한 원칙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의 기록 요소	◎	
10	1996	I	샌 안토니오 선언문	유산 유형이자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서 문화경관		◎
11	1999	I	토속 건축 유산 현장	문화유산과 관계하는 문화경관	◎	
12	1999	I	국제 문화 관광 현장: 주요 유적지의 관광 관리	문화유산의 요소로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
13	2000	C	유럽 경관 협약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지역 주요한 보존 대상으로서의 경관		◎
14	2005	U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유산 유형이자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서 역사도시경관		◎
15	2008	I	문화 유적지의 해석과 전시에 관한 이코모스 현장	주변환경이자 문화유산의 요소로서 경관	◎	
16	2008	I	이코모스 문화 루트 현장	유산 유형이자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서 문화경관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경관		◎
17	2008	I	장소감 보존에 관한 퀘벡 선언문	장소감을 형성하는 요소이자 유산유형으로서 문화경관		◎
18	2009	U	호이안 성명: 아시아 문화의 맥락에 따른 유산의 진정성 보존에 대한 전문 지침	유산 유형이자 직접적인 보존의 대상으로서 문화경관		◎
19	2010	I	문화유산의 재해 위협 관리를 위한 리마 선언문	문화유산 자산으로서 문화경관		◎
20	2011	U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문화유산으로서 역사도시경관		◎
21	2011	I	역사도시, 역사마을, 역사도시지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발레타 원칙	문화유산의 요소로서 경관	◎	

<그림 II-1>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 인식

그 출발은 1981년 플로렌스에서 열린 이코모스 총회에서 채택된 '플로렌스 헌장: 역사정원(1982)'에서 나타나는 '역사정원(Historic Garden)' 개념이다. 본 헌장은 '역사정원'을 규모와 형식에 제약 없이 경관적 형태를 한 정원과 공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된 독일의 아헨 대성당(Aachen Cathedral)이다.

경관 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유산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개념이 정의가 되면서, 경관에 대한 보존 논의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의 문화경관 보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경관 및 경관 전반의 보존을 위한 국제원칙이 제정되었다. 유럽평의회의 '문화경관 지역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권고(1995)'에 따르면, '경관'이라 함은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지형적으로 정의된 영토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한 여러 관계들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어 '그 표현들은 자연적 요소, 인간 요소, 그리고 그 둘의 조합이 오랜 시간에 걸쳐 행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51]'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의해 문화적 차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52].

- 정해진 영토가 개인과 공동체에 의해 인지되는 방식에 의해 정의되고 특성화된다는 점
- 개인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증명한다는 점
- 지역 문화, 감수성, 관행, 믿음, 전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유럽 경관 협약(2000)'에서는 '경관'을 자연과 인간요소 사이의 활동과 상호작용의 결과 된 특성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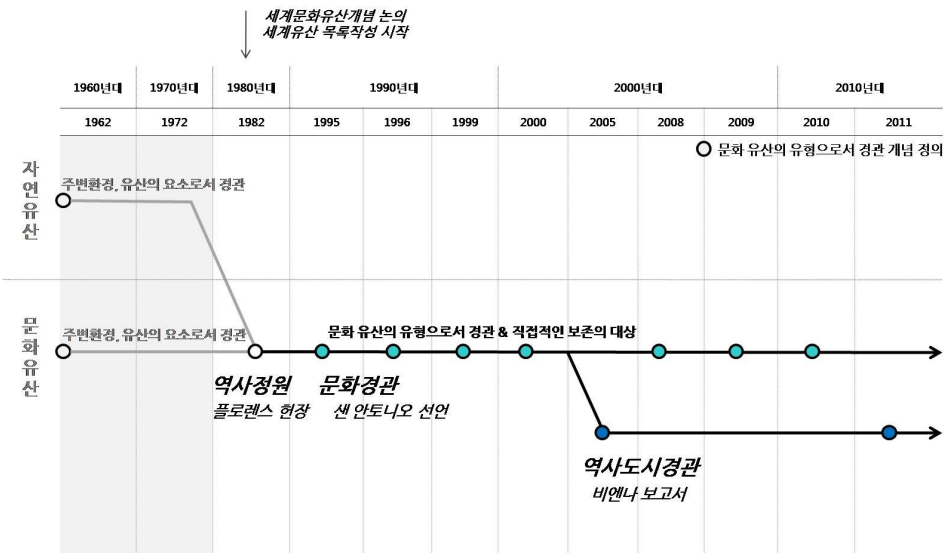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의 국제보존원칙에서도 문화경관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원칙들은 쟁점과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문화경관에 관한 세부 주제를 다루었다. 샌 안토니오 선언(1996)은 문화경관 유산의 진정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였으며, 호이안 성명(2009)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경관의 정의, 보존 원칙을 다룬 국제보존원칙이다. 그 외 장소감 보존에 관한 퀘벡 선언문(2008)에서는 장소감의 형성과 보존과 관련하여 문화경관의 역할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다.

문화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국제보존원칙들이 나오는 가운데, 2005년 비엔나 회의에서 결정된 비엔나 보고서에서는 '역사도시경관(Historic

51) 유럽평의회, 문화경관 지역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권고, 1995, 제 1조
52) 유럽평의회, 위의 문서, 1995, 제 1조
53) 유럽평의회, 유럽 경관 협약, 2000, 제 1조

Urban Landscape)'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54]. 도시유산 및 도시의 맥락에 속한 유산의 보존을 논의한 결과인 이 보고서는 도시유산의 보존 방식으로서 '역사도시경관'을 정의하였다. 2011년 유네스코의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는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새로운 유산의 유형으로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경관 보존 개념은 1962년 유네스코의 권고안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문화유산으로서 경관의 보존을 다루기 시작한 국제보존원칙은 1982년 역사정원에 관한 헌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전개된 국제보존원칙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경관은 역사정원(Historic Garden) 개념에서 출발하여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그리고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5].



<그림 II-2>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보존 개념

54)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05
55) 지리학에서 다루는 경관에 관한 용어와는 별개로,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는 문화경관을 'Cultural Landscapes'로 역사도시경관은 'Historic Urban Landscape'로 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후에 다루는 '문화경관'과 '역사도시경관' 용어는 이 같은 영문용어를 의미한다.

2.2. 역사정원(Historic Garden)

역사정원 개념은 1982년 이코모스가 공표한 헌장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1971년부터 진행된 이코모스와 국제조경가협회[56]의 국제 위원회 회의에서의 논의들이 있다. 약 20여 년 간 '역사정원'에 대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57] 1977년부터 형식을 갖추어 보존에 대한 권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권고 내용은 1982년 이코모스 회의에서 '플로렌스 헌장: 역사정원(및 경관)[58]'이라는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공표되었다.

플로렌스 헌장의 제 1조에서는 '역사정원 및 경관'을 '역사적 또는 예술적 관점에서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 건축적이고 원예적인 구성'을 한 기념물로 정의한다[59]. 또한 이 용어는 정식으로 세워진 것이든, '경관'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또한 작은 정원과 대규모 공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1971년 이코모스-이플라 위원회 회의에서 역사정원의 정의는 형태의 정형성, 크기, 양식, 형식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다만 예술작품(works of art)이어야만 한다[60]고 언급한 것처럼 역사정원은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베르사유의 궁전 정원이나 퐁텐블로 궁전 정원, 그리고 일본 교토지역의 전통정원을 예로 들 수 있다.

---

5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국제조경가협회)로 약어로 IFLA라고 쓴다. 이후부터는 '이플라'로 통일하여 쓰도록 한다.

57) 역사정원에 대한 위원회의 회의는 1971년부터 '경관유산(Landscape Heritage)'을 주제로 한 1997년까지 격년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논의는 각국의 역사정원 보존쟁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역사정원과 경관의 관련성', '역사정원과 인간' 등의 인문·철학적인 주제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해 나갔다.

58) 현재 통용되는 명칭은 '플로렌스 헌장: 역사정원'이나, 일부 기관 및 연구자들은 '역사정원 및 경관에 대한 헌장'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59) 이코모스, 플로렌스 헌장: 역사정원, 1982, 제 1조

60) 이코모스-이플라 국제위원회, 제 1회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1971, p.234

<그림 Ⅱ-3> 베르사유 궁전 정원
(자료: whc.unesco.org/en/list/83)

<그림 Ⅱ-4> 교토의 전통정원
(자료: whc.unesco.org/en/list/688)

기념물로서 역사정원의 보존은 주로 건축적 구성을 나타내는 유형적인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 구성 요소는 평면계획과 지형, 수종, 종간 비율, 식물군의 색채구성, 식물 사이의 배식 간격, 식물 각각의 높이를 알 수 있는 식물과 정원 내부에 설치되는 건축구조 및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 그리고 하늘을 비추거나 흐르는, 또는 잔잔한 물과 같은 수경 요소 등을 포함한다[61]. 특히 역사정원은 식물이 주가 되는 기념물로서 특수하게 정의된 개념이었던 만큼 원예적 구성을 이루는 식물을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정원에의 위협요소는 주로 물리적 형태에 변형을 야기하는 현상들이 언급되었다. 특히 식재에 있어서는 생장문제가 위협요소로 일컬어지며 그 밖에 건축물과 조각품의 노후화나 도시개발, 환경오염문제도 주요한 위협요소로 다루어졌다. 더불어 역사정원의 정의에서 미적 속성이 강조되는 바, 미적가치 기준의 변화로 인한 가치 하락 등도 역사정원 보존에의 위협요소가 된다고 하였다[62].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베니스 헌장[63]에서 정하는 기념물에 대한 보존원칙을 따라야 하나, 살아있는 기념물(living monument)로서 '식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플로렌스 헌장에서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조항을 따르도록 하였다[64].

---

61) 이코모스, 위의 문서, 제 4조
62) 이코모스-이플라 국제위원회, 위의문서, p.233
63) 세계적 가치의 유산에 대한 정의와 보존의 필요성, 적절한 보존방식의 기준 등을 담은 원칙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영향력 있으며, 유산보존에 기본이 되는 보존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64) 이코모스, 위의 문서, 제 3조

베니스 헌장에서는 기념물의 진정성 보존에 기반을 둔 보존, 복원에 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존의 실행에 있어 보존 복원 작업과정의 기록과 홍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베니스 헌장에서 제시하는 보존에 대한 규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원형(original form) 보존을 규정한다. 복원 역시 원형을 고증할 만한 확실한 문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각기 다른 시기에 형성된 요소들 모두 존중하여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 가치 정도에 따라 또는 보전 상태에 따라 복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니스 헌장의 부속 문서로서 플로렌스 헌장은 베니스 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정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분적인 중건(재건축)의 가능성과 식물재료의 변경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역사정원의 식물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보존 차원에서의 교체 및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베니스 헌장과 차별된다. 그렇지만 역사정원의 복원 역시 기본적으로는 원형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식재형태, 건축물, 장식품을 원래의 형태로 유지관리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플로렌스 헌장에서는 '역사정원의 보존은 이에 대한 식별과 목록화가 얼마나 잘 되어있느냐에 달려있다[65]'고 명시함으로써, 기초조사와 기록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예술적이거나 역사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역사정원의 개념에서 경관은 주로 미적가치를 지닌 보존대상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정원의 보존은 주로 역사정원을 구성하는 유형적 요소에 미치는 물리적인 쇠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역사정원 개념에는 주로 유형적 요소를 원래의 형태로 유지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보존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표 II-2> 역사정원 개념의 주요 내용

정의	구성 요소	위협 요소	보존 방식
역사적 또는 예술적 관점에서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 건축적이고 원예적인 구성, 식물이 주가되는 기념물	건축적, 유형적 요소	물리적 쇠퇴를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	원래의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과 유지관리

65) 이코모스, 위의 문서, 제 9조

2.3.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문화경관은 1984년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복합유산(mixed cultural and natural properties)[66]과 시골경관(rural landscape)에 대해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한 유형으로 정의된 개념이다. 문화경관 개념 정의의 시발점이 된 1984년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내용은 첫째, 동남아시아의 계단식 논지, 지중해의 계단식 지역, 유럽의 포도원(vineyard)과 같이 예외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인공적인 특성을 지닌 경관은 당시의 유산범주로는 등재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둘째로는 역사 도시 및 마을과 유사한 형태로 정주 경관(living landscape)이 진화해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국의 규제에 의해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경관의 완전성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기준과 운영지침의 수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합작의 소산(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으로 정의된 문화경관 개념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문화유산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1994년 문화경관을 포함하여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67]이 수정되었다. 기존의 문화유산의 유형인 유적(sites)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했던 문화경관 개념이 기존의 문화유산 또는 복합유산의 개념과 구별되는 점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people)'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68]. 그러므로 문화경관은 기존의 유산의 정

66)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의 종류를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원생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등재 대상으로 하며, 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복합된 형태로서 복합유산을 정의하고 있다. 문화경관의 정의가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이라는 의미에서 복합유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67) 1972년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 기초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해 마련된 지침서이다. 유산의 유형과 가치기준에서부터 등재를 위한 절차, 신청서 양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편의상 이하 '운영지침'으로 쓰도록 한다.

68) P. J. Fowler, *World Heritage Papers 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1992-2002*, World Heritage Centre, 2004

의를 포함하지만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내 외부의 자연적 환경에 의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기회 조건과 지속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압력 하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인간 사회와 정주지의 진화상[69]'을 나타내는 지역을 의미한다.

자연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존해온 인간의 행위에 주목하는 문화경관은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 유형은 '분명하게 규정된 경관(clearly defined landscape)'으로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조된 경관(landscape designed and created intentionally by man)을 의미한다. 미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진 역사정원 및 공원을 포함하는 유형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와 결합해서 만들어졌거나 다른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건축물군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도 이 유형으로 정의한다.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영국의 큐 왕립 식물원과 바로크 양식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로마네스크, 고딕, 네오고딕 양식의 궁전과 정원의 모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체코의 레드니체-발티체가 본 유형의 예다.

<그림 Ⅱ-5> 큐 왕립 식물원
(자료: whc.unesco.org/en/list/)

<그림 Ⅱ-6> 레드니체-발티체
(자료: whc.unesco.org/en/list/763)

두 번째 유형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s)'으로 농림수산업과 관련하여 지속되는 경관이나 기념물, 유적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을 나타낸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되는데, 먼저 근대시기 제련을 위한 산업지역이 기능적으로 쇠퇴하여 현재는 그 모습만이 남아있는 블래나번 산

69)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994

업경관과 같이 진화과정이 과거의 어떤 시기에 갑자기 또는 서서히 종결되어버린 '잔존(화석) 경관(relict or fossil landscapes)'이 하나이다. 다른 한 유형은 과 현대사회에서 활발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지속되는 경관(continuing landscapes)'으로, 특히 이 유형은 정주환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경관(living landscape)으로 이해된다. 문화경관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부유형은 경작이라는 인간 행위가 경사진 산지에 적응하여 독특한 관개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필리핀의 계단식 농지나 절벽의 지형에 적응한 마을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인간의 행위의 문화적 작용을 잘 드러내는 이탈리아 친퀘테레 어촌마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Ⅱ-7> 블래나번 산업경관
(자료:whc.unesco.org/en/list/)

<그림 Ⅱ-8> 필리핀 계단식 논 경관
(자료:www.ling.nthu.edu.tw/faculty/hclia o/pictures/Batad%20rice%20terrace.jpg)

<그림 Ⅱ-9> 이탈리아 친퀘테레
(자료:en.wikipedia.org/wiki/File:Cinque_ Terre.jpg)

마지막 유형은 '연상적 문화경관(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s)'으로, 물질적인 문화의 증거는 중요하지 않거나 거의 없더라도 이보다는 자연적 요소가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종교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 연사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경관을 뜻한다. 즉 뉴질랜드의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예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유형적인 유산 대신 마우리족의 천년의 역사가 깃든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또한 현재 완전한 형태로 지속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수쿠 지역의 경우도 히디(Hidi) 왕조가 지배한 지역으로서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 문화와 사회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유형으로 문화경관으로 지정된 사례다.

<그림 Ⅱ-10> 통가리로 국립공원
(자료: whc.unesco.org/en/list/421)

<그림 Ⅱ-11> 수쿠 문화경관
(자료: whc.unesco.org/en/list/938)

기존의 문화유산의 개념에서 복합유산이 자연적인 유산 형태와 문화적인 유산 형태가 1+1=2의 공식으로 결합한 것을 의미했다면, 문화경관의 개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즉 인간 행위 자체 또는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 피터 포울러는 결과적으로 문화경관 개념은 다음의 특성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고 하기도 했다[70].

> 건물들, 삶의 방식과 토이지용의 연속성, 토지이용의 주요한 형태로서의 농업, 장식용의 정원과 공원, 산업적인, 집단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산과 결합된, 지역 거주민에게 중요한, 종교적이고 신성하며 영험함의 차원,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주요하게 남아있는 요소, 도시와 마을, 경관에서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중요한 수경 요소(water)

한편 많은 문화경관의 사례들이-특히 지속되는 경관의 유형에서- 정주 유산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문화경관의 보존에 있어 거주민과 그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인간의 활동 및 생활양식, 그리고 그것의 지속성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삼기 시작하였다. 토지형태, 지형, 공간 조직, 식생과 자연요소 및 생태 시스템과 같은 유형적 요소에서부터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나 전통, 역사적 의미, 장소의 활용과 기능,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 그 장소와 다른 지역과의 관계 등의 무형적 요소까지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1993년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문화경관'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독

70) Peter Fowler, 2010

일 전문가 회의에서는 '어떠한 문화경관의 등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문화경관을 정의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유산의 등재, 보호, 관리에 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전통적인 믿음과 행위가 문화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71]. 즉 전통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 자체가 유산으로서 문화경관이 갖는 가치이자 보존의 주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경관에는 물리적 노후화와 낙후, 환경적인 압력, 자연재해와 같이 유형의 보존 대상 요소에 해를 가하는 요인과 함께 개발 압력, 관광압력, 그리고 지역 또는 주변 지역 거주민의 생활이 주요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 역시 문화경관의 유지에 있어서 현존하는 주요한 위협 요소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경관의 보존 방식은 사회문화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경관의 주요한 가치이자 보존 대상인 전통적인 특징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방식으로는 먼저 소통과 참여가 강조된 통합적 접근 방식[72]이 강조되었다. 또한 무형적인 요소의 보존을 위해 자원의 조사, 평가가 중요해 졌으며, 인식과 이해의 증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 인적자원의 개발 역시 주요 보존 방식으로 등장했다[73].

특히 노라 미첼(Nora Mitchell) 등이 참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연구[74]는 문화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보존 원칙은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서는 지역 내부의 거주민이 보존의 주체가 되고 지역민의 지속적인 삶이 보존의 대상이 되

71)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미래를 위한 액션 플랜(문화경관에 관한 독일 전문가 회의 결과), 1993

72) 유카 요칼레토는 통합적 접근방식(integrated approach)을 '민관의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법적,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기초한 정책'으로 정의한다. Jokilehto, J., International charters in urban conservation: some thoughts on the principles expressed in current international doctrine, City&Time., 2007

73) 세부 보존 원칙은 이코모스에서 공표한 다음의 문서들을 참조할 것.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 보존에 관한 교육과 훈련 지침(1993)', '기념건조물, 건물군 및 유적의 기록에 관한 원칙(1996)'

74) Nora Mitchell et 2, *World Heritage Papers 2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Centre, 2009

며, 그 방식에 있어서 협의와 소통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5> 보존 원칙 내용 (자료: Nora Mitchell et. 2, 2010)

보존 원칙 내용
• **원칙 1** 문화경관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리에 있어 주된 이해당사자들일 것
• **원칙 2** 성공적인 관리는 포괄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와 동의를 통한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
• **원칙 3** 문화경관의 가치는 사람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하며, 관리의 초점을 그 관계성에 맞출 것
• **원칙 4** 관리의 초점은 문화경관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지도(guiding)할 것
• **원칙 5** 문화경관의 관리는 더 넓은 경관의 맥락에 통합될 것
• **원칙 6** 성공적인 관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것

한편, 문화경관 개념의 정의 이후 지속적인 유네스코의 전문가 회의는 구체적인 주제나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경관의 인지(recognition), 식별(identification),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크게 다양한 문화경관 유형의 정의 및 분류체계, 문화경관의 식별 및 평가, 문화경관의 관리 및 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주제로 나눌 수 있다[75].

75) P. J. Fowler, *World Heritage Papers 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1992-2002,* World Heritage Centre, 2004, pp.80-90

<표 II-4>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가 회의 목록

연도	논의 주제 및 논의 대상 지역	회의명 (개최지역)
1994	운하 유산	유산, 운하에 대한 전문가 회의 (캐나다)
1994	문화 루트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루트(Routes)에 대한 전문가 회의 (스페인)
1995	계단식 논 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경작문화와 계단식 경관에 대한 지역별 주제 연구 회의 (필리핀)
199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상적 문화경관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워크샵 (호주)
1996	유럽 지역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유럽지역의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가 회의 (오스트리아)
1998	남미 안데스 지역	안데스의 문화경관에 대한 지역별 주제 회의 (페루)
1999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의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가 회의 (케냐)
1999	동유럽 지역	동유럽지역의 문화경관에 대한 지역별 주제 회의 (폴란드)
2000	중앙 아메리카 지역	중앙 아메리카의 문화경관에 대한 지역별 회의 (코스타
2001	사막과 오아시스 아랍 지역	아랍 지역의 사막경관과 오아시스 시스템에 대한 지역별 전문가 회의 (이집트)
2001	대규모 농장 남미 캐리브 해안 지역	카리브 해안의 대규모 농장 시스템에 대한 지역별 전문가 회의 (수리남)
2001	신성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신성산(Sacred Mountains)에 대한 주제별 전문가 회의 (일본)
2005	남미 카리브 해안 지역	카리브 해안의 문화경관에 대한 전문가 회의: 규명과 보호 전략에 대하여 (쿠바)
2007	지중해 지역	지중해의 농경 및 목축(agro-pastoral)의 문화경관에 관한 주제별 전문가 회의 (프랑스)

문화경관 개념의 등장으로 이 네 가지 주제 중에서도 특히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4년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른 문화권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의해 가치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76]. 따라서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기 보다는 해당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77]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경관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 진정성의 결정 및 보호 과정은 충분히 유연할 수 있다고 이야기 되었다[78].

아울러 문화경관의 진정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는 '샌 안토니오 선언(1996)'은 문화경관의 진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패턴, 양식, 정신적 가치 등 전반적인 특성과 전통의 보존이 유적의 물리적 특성에

76) 이코모스,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1994, 제 11항
77) 이코모스, 위의 문서, 1994, 제 11항
78) 이코모스, 샌 안토니오 선언, 1996, 제 4조 b항

대한 보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79]. 특히 마을을 포함하는 문화경관의 경우, 문화 경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모든 가치가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이들 유적의 역동적 성격을 다룰 수 있는 조정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80].

결론적으로 문화경관은 보존 대상이 무형인 요소로 확장되는 점, 유산의 보존에 있어 지역 사회에 대한 고려가 증대된 점, 참여적 접근 방식 외 조사, 기록, 평가, 교육, 훈련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강조된 점, 진정성의 기준이 유연화 된 점에서 의의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5> 문화경관 개념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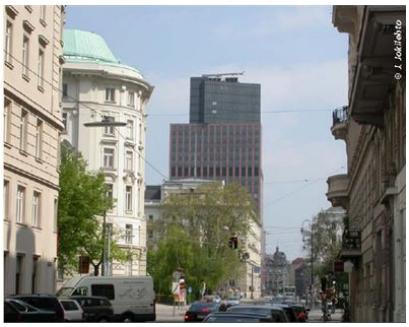
정의	구성요소	위협 요소	보존 방식
자연과 인간 합작의 소산,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된 지역	유형적 요소 무형적 요소 (전통, 관습, 의미, 삶)	거주민의 삶에 끼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	참여와 협의를 통한 통합적 보존관리 이해증진, 가치평가, 역량강화 등 무형요소 보존관리

2.4.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역사도시경관(HUL) 개념의 정의는 지난 세기 동안 유산의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인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해 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접근 방식과 도시보존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보존관리 방식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 기인한다[81]. 이제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을 정도로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의 도시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설치, 새로운 건설, 건물과 장소의 확장 및 활용과 개조 등의 간섭(Intervention)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82]. 따라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79) 이코모스, 위의 문서, 1996, 제 3조
80) 이코모스, 위의 문서, 1996, 제 4조
81)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05, 제 10조
82)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제 1조-3조

할 수 있다.



<그림 Ⅱ-12> 비엔나의 역사 중심지
(자료: World Heritage Centre, 2009)

<그림 Ⅱ-13> 런던 타워 주변
(자료: World Heritage Centre, 2009)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200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현대 건축-역사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역사도시경관을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맥락에서 건물, 구조, 오픈스페이스의 어떠한 집합으로 이루어진 기념물로 나타나며, 이는 곧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환경으로서 인간 정주지를 구성하는 장소적, 역사적, 과학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83]. 그리고 역사도시지역 내에서의 현대적인 건축물의 건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도시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기능적인 사용, 사회 · 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경제적 개발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구조적인 간섭을 도시 전통의 일부로 인정할 것을 결정하였다[84].

그러므로 비엔나 보고서에서는 역사도시경관의 요소로 토지이용이나 공간 조직과 구성, 시각적 관계, 지형과 토양, 식생, 그리고 건축적 요소 및 모든 기반시설 외에도 현재, 그리고 과거의 사회적 표현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을 포함한다[85]. 나아가 개발을 통한 오픈스페이스와 현대적 건축물은 오히려 도시 특성을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본다[86].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도시 역사지

83)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05, 제 7조
84) 유네스코, 위의 문서, 2005, 제 13조
85) 유네스코, 위의 문서, 2005, 제 8조

역에서의 개발 행태를 관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적 건축 형태로 나타나는 개발 행태에 집중하여 보존관리, 도시개발에 대한 지침과 이를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존관리 지침에서는 역사적이지도 않으며 현대적이지도 않은 사이비(모조) 역사 디자인의 방지를, 도시개발 지침에서는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나는 지붕경관, 건물의 구성 및 유형 조성과 파사디즘의 방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비엔나 보고서가 개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보존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역사도시경관 개념 논의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면, 이후 지속적 논의[87]를 바탕으로 2011년 공표된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진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제공한다.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 본 개념은 '문화적, 자연적 가치와 태도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결과로서 이해되는 도시지역[88]'으로 정의된다. 이는 시간성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특정 시기의 유·무형적 유산의 형태를 지속하기 힘든 '현대 도시'적 맥락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리버풀-해양산업도시'는 문화유산의 범위 내에 18세기, 19세기에 지어진 리버풀의 해상 무역도시의 위상을 증거하는 건물들과 1900년대 초에 지어진 로얄 리버 빌딩(Royal River Building), 그리고 최근 완공된 리버풀 원(Liverpool One)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시대를 표현하는 건조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첩'을 보여주는 역사도시경관의 좋은 예가 된다.

---

86) 유네스코, 위의 문서, 제 31조

87)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의 문서들을 참고할 것. 유네스코 전문가 회의, 도시 보존에의 새로운 접근(2006),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전문가 회의(2006), 중앙 유럽과 동유럽지역의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지역 세미나(2007),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지역 컨퍼런스(2007), 20세기의 역사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워크샵(2007),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전문가 회의(2008), 아프리카 지역의 맥락에의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적용에 관한 워크샵(2009), 운영지침에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회의(2009)

88)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게 관한 권고, 2011, 제 9조

<그림 Ⅱ-14> 역사도시 리버풀
(자료: www.citiesinworld.com/2011/06/liverpool.html)

이러한 역사도시경관은 넓은 맥락에서 지형지세, 수문, 자연요소,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건조 환경 모두, 지상과 지하의 기반시설, 오픈스페이스와 정원, 토지이용패턴과 공간 조직과 같은 유형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행과 가치, 그리고 경제적 과정과 다양성, 지역의 정체성과 연관 있는 무형적 차원의 유산까지를 요소로 포함한다[89]. 특히 비엔나 보고서에서 개발을 역사도시경관의 요소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권고도 경제적 과정을 역사도시경관의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본 권고에서는 개발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계획 및 설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지구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요소가 되기도 하며, 서비스와 관광과 같은 새로운 기능 역시 잘 관리된다면 공동체의 안녕에 기여하고 역사적 도시지구와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주요한 경제적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양상의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은 역사도시경관 보존에의 위협요소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는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급격한 도시성장과 세계화의 과정, 개발, 기후변화와 환경적인 문제를 꼽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 요소를 위협요소로 단언하지 않는다. 도시화와 세계화의 추세에서 도시성장과 밀도에 대한 관리의 부재는 장소성, 커뮤니티의 정체성, 도시조직의 완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도시화는 삶의 질과 도시지구의 전통적인 특징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을 인정한다[90].

89) 유네스코, 위의 문서, 2011, 제 10조

즉 도시화의 양상을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회적 영향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는 획지 규모나 건물높이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관리 실패, 자동차 교통의 증가 등을 주요 위협요소로 규정한다[91]. 또한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 문화 다양성, 무형 유산, 지역사회 구성원의 전통과 역할 등에 미치는 위협요소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92].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에 있어서는 '역사도시경관적 접근(Historic Urban Landscape Approach)'이 강조된다.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은 '역사지역을 도시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보존관리하는 방식'이자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구조, 연결, 자연형태와 환경,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고려한 보존 방식'을 의미한다.

2011년 유네스코의 총회의 논의에서 정리한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은 도시지역에 대한 조사와 기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계획,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쉽 구축, 보존과 개발이 통합된 계획 수립을 주요하게 다루는 보존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관리에서는 역량강화와 조사, 정보제공 및 소통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93].

---

90) 이와 같은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코모스는 '개발의 동인으로서 유산의 이용에 관한 파리 선언문(2011)'과 같이 현대사회에서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의를 담은 국제원칙을 공표하기도 하였다.

91) 유네스코, 앞의 문서, 2011, 제 17조

92) P. J. Fowler, *World Heritage Papers 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1992-2002*, World Heritage Centre, 2004

93) 유네스코, 위의 문서, 2011, 제 34조-36조

<표 II-6>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리한 '역사도시경관적 접근'
(자료: http://whc.unesco.org/en/cities/)

역사도시경관(HUL)적 접근
• 도시의 자연 자원, 문화 자원, 인력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맵핑 •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보호하고 그 가치들을 전달할 속성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여적 계획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일치시킬 것 • 사회-경제적인 압력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할 것 • 도시 유산 가치와 그것들의 취약성 정도를 폭넓은 도시 개발 지침(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킬 것. 그것은 곧 계획과 디자인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유산 지역에의 지침을 제공할 것임 • 보존과 개발을 위한 조치(액션)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 보존과 개발의 성격을 띠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한 적절한 지역 관리 프레임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한 민간과 공공의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다양한 활동들의 조정(coordination)을 위한 매커니즘을 개발할 것

이로 미루어보아 역사도시경관적 접근 방식은 인간 환경의 질을 보존하고 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도시의 유·무형적 가치를 통합하여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는 역사도시경관 보존관리의 실행을 위한 지침들도 제공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의 다양한 주체로서 정부, 공공 서비스 제공자와 민간 분야, 국제기구, 국내외의 비정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된다. 더불어 규제시스템, 공동체 결정 도구, 기술적 도구, 재정적 도구를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관리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언한다[94].

<표 II-7>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주요 내용

정의	구성 요소	위협 요소	보존 방식
문화적 자연적 가치와 기여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결과로서의 도시지역	유형적 요소 무형적 요소 (경제적개발, 변화양상)	관리되지 않은 개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영향	변화의 관리 참여와 협의를 통한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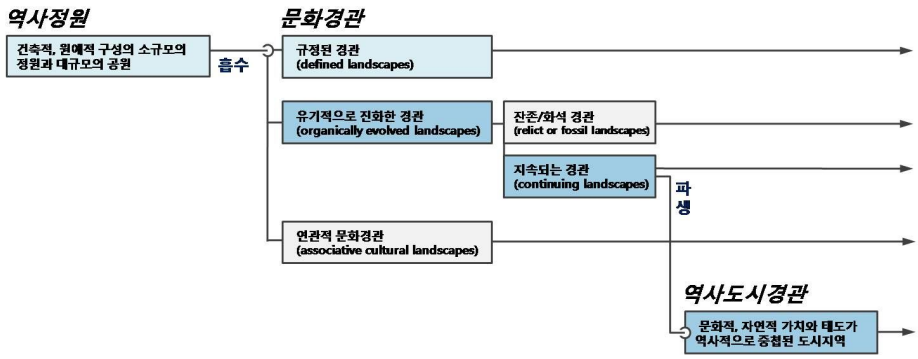
94) 유네스코, 앞의 문서, 2011

3.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 보존 개념의 변천내용

3.1. 문화유산으로서 경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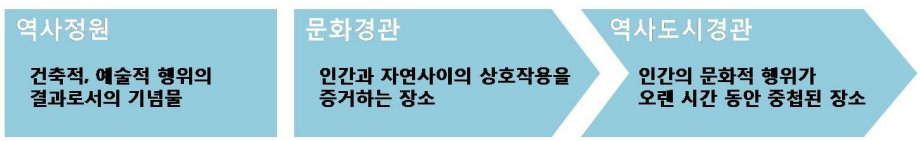
역사정원은 '역사에 관한 관점 혹은 예술적 관점에서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 건축적이고 원예적인 구성'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주로 예술적 또는 미학적인 업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걸작품(masterpieces)들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 자연에 가해지는 사람의 문화적 행위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 문화경관 개념에서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크게 규정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연상적 경관으로 다시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문화경관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역사정원 개념은 문화경관의 일부로 흡수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역사정원을 창조하는 설계 행위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본다면, 역사정원은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조되어 나타나는 규정된 경관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적 · 자연적 가치와 태도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결과로서 이해되는 도시지역'으로 정의된 역사도시경관은 문화경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인간 행위의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역사도시경관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문화경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15> 경관 보존 개념 간의 관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역사정원 개념에서의 경관은 '예술적 인간 행위의 결과로서의 기념물'을 의미하였다면, 문화경관에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 행위에 주목하여 그 상호작용을 증거하는 장소'로서 경관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경관에서 파생한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는 문화경관과 유사하게 인간의 문화적 자연적 가치와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첩된 결과로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역사도시경관에서는 경관을 '인간 행위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장소'로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II-16> 문화유산으로서의 경관 개념

3.2. 보존 대상 및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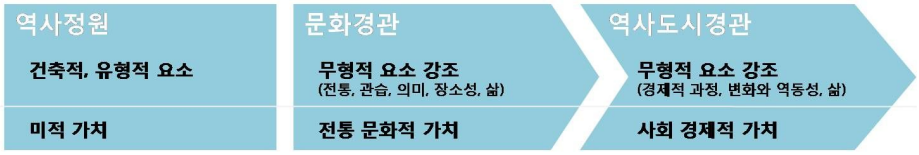
역사정원 개념에서는 경관을 기념물로 보고 미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다. 기념물로서의 경관은 시각적 이미지이자 물적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화경관 개념에서 주목한 경관은 확장된 의미를 나타낸다.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유산인 문화경관 개념은 인간 행위 자체에 주요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장소에 담긴 의미와 장소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통과 관습, 그리고 장소성과 같은 무형의 요소가 주요한 보존 대상이 되었다. 더불어 전통, 관습을 이어나가는 문화경관 내 거주민의 삶 자체도 주요한 보존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경관은 주로 특출한 전통과 관습, 문화를 지닌 지역이 실질적인 등재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에 문화경관 보존의 주요 가치는 전통으로 표현되는 문화적 가치[95]라고 볼 수 있다.

문화경관의 개념도 도시 경관에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문화

95) 이수정(2003)은 문화재에 부여되는 가치의 종류로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 교육적, 경제적 가치를 든다. 이를 기반으로 경관 보존개념의 가치를 구분하였다. 이수정, 현대 보존이론의 변화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원형보존의 원칙, 경주문화연구, 2003, p.15

경관에서 주목했던 도시경관과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차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문화경관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과 관습으로 나타나는 무형 유산 요소를 중시했다면, 세계적인 도시화의 추세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도시경관에서는 도시의 변화하는 역동적인 속성을 전통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는 도시 지역에 미치는 개발을 위협요소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존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기회요소로도 잠재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의 경관은 물리적 대상으로도 보고 있지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정원에서 문화경관, 그리고 역사도시경관으로 진화한 국제원칙에서의 경관 보존 개념의 전개 양상은 '경관'의 의미를 미학적이고 시각적, 물리적인 관점에 주목하여 인식했던 데서 출발하여, 사회적, 무형적, 전통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속에서 보존 대상은 기념물에서 장소로 변화하였다. 그 가운데 보존해야 하는 경관 요소는 건축적인 요소에서부터 정신적 가치를 구성하는 관습, 전통, 이야기, 등의 무형적 요소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는 역사적 중첩의 기반이 되는 도시의 기능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상 자체가 보존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II-17> 보존 대상 및 주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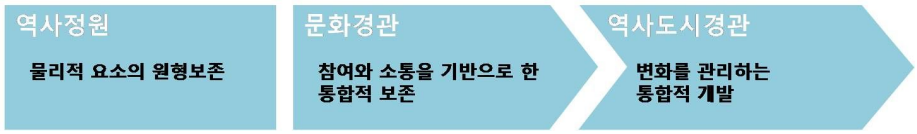
3.3. 보존관리 방식

국제 원칙에서 경관 보존에 대한 관점과 경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존에 대한 태도와 보존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보존 전략 및 수단 역시 진화하였다. 먼저 역사정원 개념에서는 경관을 기념물로서 인식하고 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를 원형으로 유지하

고자 하는 보존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문화경관의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국제 원칙에서 다분화되어 논의되어 왔다. 핵심적으로 문화경관의 보존은 인간의 행위 자체의 의미를 중요한 보존 가치요소로 보고 여러 인간 정주지를 포함한 사례들이 문화경관으로 등재되면서, 보존에 있어 참여와 소통이 강조되었다. 특히 문화경관 내 주민들의 삶과 활동, 그리고 그 의미, 전통과 같은 무형적 요소의 보존을 위한 전략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주 문화경관의 경우는 복잡한 양태와 진화하는 속성을 고려하여 제 전반의 정책 분야를 통합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해졌다.

역사도시경관의 보존 역시 문화경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무형적 요소들의 보존을 위한 전략과 수단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개념은 도시적 맥락에서의 변화 상태를 도시의 전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변화를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따라서 변화의 관리에 있어 도시의 개발을 위한 계획과 보존 계획이 통합된 '통합적 개발'방식의 필요가 강조되었다.



<그림 II-18> 보존관리 방식

4. 소결

경관 개념은 '토지 단위'라는 기원적 의미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크게 변모한 뒤, 지리학을 중심으로 제반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면서 물리적 환경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 의미, 문화적 행태까지를 포함하는 장소의 의미로 진화해 왔다. 최근에는 경관을 보는 방식으로서 접근하기도 하며, 과정으로 정의내리기도 한다.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을 통해 보존의 대상으로서 나타난 경관 개념[96]을 고찰해본 결과, 역사정원에서부터 문화경관, 그리고 역사도시경관까지의 흐름이 그 정의나 접근방식에 있어서 지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경관'개념과 유사하게 진화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역사정원에서부터 경관에 대한 관점과 인식, 정의 및 보존 대상이 문화경관으로 흡수 및 확장되면 변화한 것은 문화경관론과 같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결과였다. 또한 문화유산으로부터 파생되어 진화한 역사도시경관 역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는 점에서 최근 과정으로서 정의되는 경관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역사정원, 문화경관, 역사도시경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대상이 되는 경관이 의장된 경관, 즉 만들어진 경관으로부터 정주경관과 같은 살아있는 경관[97], 그리고 일상의 경관[98]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19> 진화하는 경관보존 개념

이러한 변화는 문화유산의 대상이 기념물에서부터 일상의 생활유산으

96) 이상의 논문에서는 이를 '경관보존 개념'으로 칭해왔다.

97) 여기서 '살아있는 경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관 속성을 강조한 말이다. 문화경관의 유형에서는 특히 정주 경관을 뜻한다.

98) 일상경관(everyday landscape)의 표현은 유럽경관협약에 따라 영국유산센터(English Heritage)에서 마련한 경관 보존 활동 계획에서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 새롭게 주목해야하는 경관으로 정의한 표현을 참고하였다. English Heritage, The English Heritage Action Plan for Implementation, 2007, ,p.3

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문화유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2000년부터 시작된'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99]'선정사업이 기념적인 건축물 외에 집, 공장, 학교, 상점과 찻집 같은 기타 상업건물 등의 일상건물도 포상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함한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관보존 개념의 흐름 속에서 역사도시경관은 또 다른 시사점을 갖는다. 2000년 유럽경관협약에서는 본 협약의 근본적인 철학으로 유산의 일상화의 개념과 인간과 장소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장소의 힘(Power of Place)', 그리고 '미래를 위한 동력(Force for our Future)'이라는 의제를 발표한 바 있다. 즉 경관의 보존은 뛰어나거나 특별한 지역뿐만 아니라 퇴락경관이나 일상경관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경관을 향상시키고 관리하고 특별한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미래의 세대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다는 것이다[100]. 이는 곧 일상의 생활유산을 의미하는 역사도시경관의 보존 역시 현재와 미래세대의 요구 사이에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101]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유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일상적 경관을 지닌 도시지역까지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보존 논의로서 의의를 갖는다.

---

99) 이 상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보존상으로 손꼽힌다. 2009년 서울 북촌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00) English Heritage, 앞의 문서, 2007, ,p.3

101)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제 12조

Ⅲ.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1.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의 특징

1.1. 경관보존 개념으로서 역사도시경관의 특징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보존방향을 도출하기에 앞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경관보존의 흐름으로 보고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역사도시경관 개념이 아직 논의 중에 있어[102] 세부적인 보존방식을 제시하는 원칙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개념의 진화과정에서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특징에 대한 세부 원칙들은 경관보존과 관련한 제 전반의 국제원칙에서 도출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앞 장에서는 역사정원, 문화경관, 그리고 역사도시경관으로의 흐름을 각 개념 정의, 보존 대상 및 가치, 주요 보존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주요하게 변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역사정원이 주로 유형의 물적 요소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했다면, 문화경관 개념에서는 이에 더해 전통, 관습, 의미, 삶과 같은 무형적 요소가 주요 보존 대상으로 강조되었

102)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2005년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개념의 정의 및 일반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원칙은 2011년에 통과되었다.

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즉 거주민을 주요 보존 주체로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였다.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는 무형적 요소로 도시 역사지역의 변화하는 상태, 즉 개발로 인한 변화와 같은 경제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보존 방식으로는 물리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통합적 개발이 강조되었다.

<표 III-1> 경관 보존 개념의 주요 변화 내용

	역사정원	문화경관	역사도시경관
구성 요소	물적 요소	무형적 요소 (전통, 관습, 의미, 삶 등)	무형적 요소 (변화상태, 경제적 과정)
주체		거주민	
행위	원형 유지관리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보존	변화를 관리하는 통합적 개발

이와 같이 경관 보존 개념의 진화과정에서 주요하게 변화한 사항들은 크게 구성요소, 주체,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보존의 진화 개념으로서 역사도시경관의 특징 역시 이 세 가지 쟁점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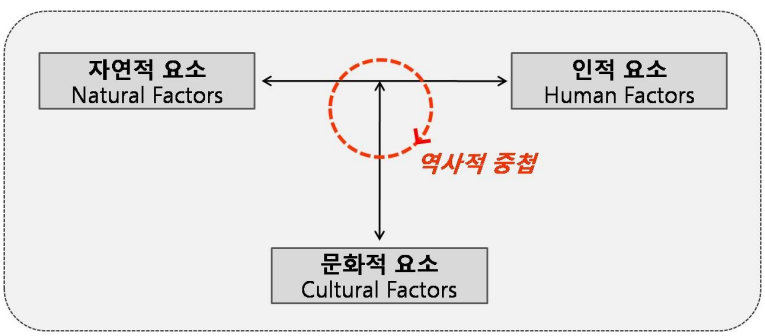
먼저,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역사도시경관은 유형적 요소만이 아니라 무형적 요소까지로 그 보존 가치요소가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띤다. 주체의 측면에서는 보존의 주체로서 역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주체로 포함되게 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형을 보존 관리하는 방식으로부터 변화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존 방식이 유연해 졌으며, 더불어 사회 · 문화 · 경제적 변화와 같이 기존의 물리적 보존관리 방식으로는 다룰 수 없는 구성요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다양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존의 대상이 되는 가치요소, 보존 주체, 그리고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에 대한 국제보존원칙의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보존 방향을 정리하도록 한다.

2.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2.1. 대상 요소

문화경관은 자연적 요소와 인간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 · 무형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 문화경관으로부터 파생된 역사도시경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은 자연적 요소와 인적 요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요소로 구성된다. 다만 역사도시경관의 정의에 따라[103] 다음의 두 가지의 특기 사항을 전제로 한다. 첫째, 도시적인 맥락에서 지역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태 그 자체를 문화적 구성요소로 볼 것과 둘째, 이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중첩되어 지역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III-1> 보존 대상 요소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가치요소는 유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물질적 구조의 중요성은 반드시 유적이 지닌 무형적이고 차별적인 특성 및 요소와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는 샌 안토니오 선언의 조항이 뒷받침 한다[104]. 이에 더해 샌 안토니오 선언에서는 '유적의 양식, 형태, 토지 사용 및 정신적 가치와 같은 전반적인 특징과 전통들이 재료와 디자인적 측면보다 일정부분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무형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

103)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도시경관은 '문화적 자연적 가치와 기여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결과로서의 도시지역'로 정의된다.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104) 정확하게는 문화경관 보존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코모스, 샌 안토니오 선언, 1996

다[105]. 그러므로 역사지역의 물적 환경은 그와 관련하는 지역의 전통, 의미, 정체성, 거주민의 삶, 활동 등과 같은 무형적 요소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역사도시경관의 무형적인 요소에는 도시적 맥락에서의 경제적 과정 자체도 포함이 된다. 변화를 수반하는 경제적 과정을 무형적 구성요소로 본다면,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보존 대상이 되는 유형적 요소는 전통적인 건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 과정, 즉 개발의 영향으로 조성되는 현대적인 건조환경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문화경관 개념에서 주요한 보존 가치요소로 보았던 역사지역 내 거주민,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제반의 생활 · 문화적 요소들도 역사도시경관의 주요한 대상 요소로 보아야 하겠다.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2> 보존 대상 요소

구분	내용		특기사항
유형적 요소	자연적 요소	지형지세, 수문	• 변화를 드러내는 역동적 상태를 표현 • 역사적 중첩 상태를 표현 • 유 · 무형의 요소가 결합되어 표현
	문화적 요소	역사적, 현대적 건조환경, 지상과 지하의 기반시설, 오픈스페이스와 정원, 토지이용형태(패턴)와 공간 조직	
무형적 요소	문화적 요소	인식과 시각 사이의 관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행과 가치, 경제적 과정, 다양성, 정체성, 과거의 토지사용,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의미, 뚜렷한 전통 등 거주민의 생활 · 문화를 반영하는 요소	
	인적 요소	지역 내 활동, 사람들의 행위	

105) 이코모스, 앞의 문서, 1996

2.2. 관련 주체

문화경관의 보존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집단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문화경관의 영향을 받은 역사도시경관의 보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한다.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이란 '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도시개발과정에 있어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공공이나 민간 주체-들을 포함하는 관리관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06].

역사지역의 보존과 관련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구성원들이라 함은 정책 입안자, 정책 결정권자, 도시계획가, 도시개발자, 건축가, 보존주의자, 관리자, 소유주, 지역사회 구성원(거주민), 투자자[107]라고 할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는 이들 주체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민간 영역, 비정부 조직(NGOs), 국제기구에 대하여 각 주체별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표 III-3> 보존주체 별 책임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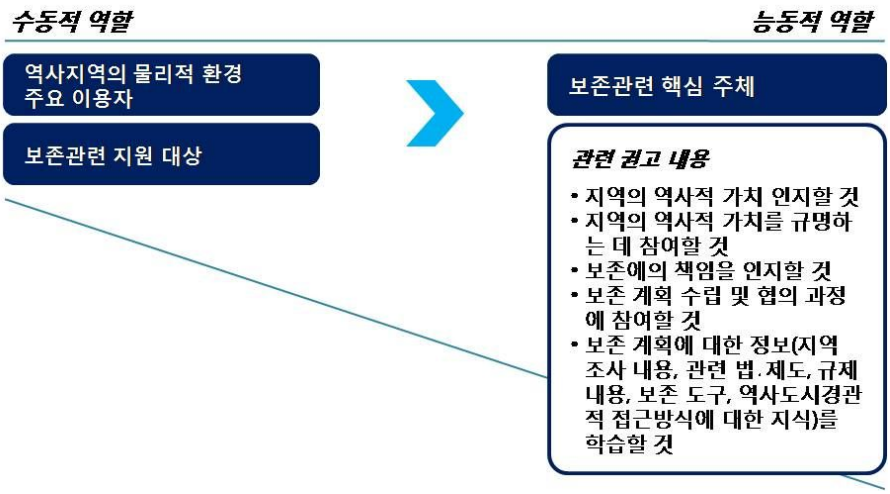
대상주체	권고 내용
정부	• 보존 전략을 국가적인 개발 정책과 사조(agendas)에 통합시킬 것 • 지방정부는 지역의 가치와 그와 연관된 특성을 고려한 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 •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것 • 전체적(공공적)이거나 부분적(전문적) 시각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것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민간 영역	• 보존에의 책임을 인지할 것 •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협력할 것 • 지역 대표자들을 보존관리계획과 관련한 모든 결정 과정에 관계할 수 있도록 할 것
비정부 조직	• 보존 도구와 좋은 실행관례를 개발하고 퍼뜨리는 데 참여할 것
국제기구	•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루는 국제기구는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을 그들의 전략, 계획, 이행에 반영할 것

한편, 1993년 문화경관을 고려한 활동 계획에서는 보존관리 계획과 관련한 모든 결정 과정에 지역 문화의 대표자들이 관계할 수 있도록 해

106)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제 6조
107) 유네스코, 비엔나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05

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108]와 같이, 경관 보존에 있어서 주요 주체들 중에서도 특히 지역 내 거주민들의 참여가 부각되었다.

기존의 보존 개념에서 보존 대상 지역의 거주민들은 역사지역의 물리적 환경 이용자 또는 보존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다. 그렇지만 문화경관 개념이 인간의 행태 자체를 포함하게 되면서, 거주민들은 지역의 역사성을 유지 관리하는 일차적인 주체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그림 III-2> 역사지역 거주민들의 역할 확대

이러한 흐름에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 이해 및 인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존계획의 수립과 보존 과정에 참여하는 보존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거주민들을 포함해야 한다.

108) 유네스코, 미래를 위한 활동계획, 1993

2.3. 보존관리 행위

역사정원에서 역사도시경관까지 각 개념의 주요 보존 방식을 살펴본 바 있다. 경관 보존의 흐름에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 관리 행위라 함은 앞서 살펴보았던 주요 보존 방식의 실행 전략과 도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 보존관리의 세부내용을 도출하기에 앞서, 경관 보존의 흐름에서 의의를 갖는 역사도시경관 보존 관리의 전략과 도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과 도구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관 보존에 관한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을 통해 정리하도록 한다[109].

먼저 주요 경관 보존 방식에 따른 실행 전략과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정원의 개념에서는 주로 물리적인 보존에 주안점을 두는 보수, 복원, 유지관리, 재건축과 같은 보존 방법이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 식별과 목록화가 강조되었다. 보존 도구로는 법적, 행정적 도구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홍보적 도구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었다.

문화경관 개념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방식으로서 인식 높이기와 역량강화와 같은 전략과 참여적 도구가 강조되었다. 그 밖에 무형적 요소의 보존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규명화와 평가 등도 주요한 문화경관의 보존 방법으로 제시되었다[110]. 문화경관과 마찬가지로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와 통합적 접근방식, 그리고 참여적 도구가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시개발계획과

109) 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제보존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분석 대상

구분	연도	공표 기관	원칙명
역사정원	1982	이코모스	플로렌스 헌장: 역사정원
문화경관	1995	유럽평의회	문화경관 지역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권고
	1996	이코모스	샌 안토니오 선언
	2000	유럽평의회	유럽 경관 협정
역사도시경관	2005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11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110) 무형적인 요소의 보존방법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2003)' 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 협약의 제 2조 3항을 참고할 것.

통합된 보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적 도구, 창조적 도구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보존 전략과 도구이다.

<표 III-5> 각 경관보존 개념에서의 보존 전략과 도구

	역사정원	문화경관	역사도시경관
주요 보존 방식	• *물리적 형태의 유지 관리* +	• *무형적 요소의 보호* • *지역사회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계획* +	•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의 관리*
전략	보수	정책 마련	정책 마련
	복원	**통합적인 보존계획**	**개발계획과의 통합**
	유지관리	**규명화와 평가**	정보제공
	재건축	**정보와 인지 높이기(awareness-raising)**	역량강화
	이용	**교육과 훈련**	
	법적 행정적 보호	**조사**	조사
		홍보	홍보
	식별과 목록화	법적 보호와 보존	-
도구	법적 행정적 도구	규제적 도구	규제 시스템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	지적 도구
	재정적 도구	재정적 도구	재정적 도구
	-	**시민 참여 도구**	시민 참여 도구
		-	**기술적 도구**
			창조적 도구

이와 같이 경관 보존을 위한 전략과 도구의 변화 속에서 주요하게 부각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도시경관으로서 도시 보존을 위한 보존 전략과 도구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주요 보존 전략으로는 문화경관과 역사도시경관에서 특히 강조된 통합적 보존관리 계획과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하는 역량강화, 그리고 조사 및 기록과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전략이 나타났다. 주요 보존 도구로는 창조적 도구, 참여적 도구, 지적(Knowledge) 도구, 그리고 재정적 도구를 들 수 있겠다.

먼저, 보존관리 계획은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역 마케팅계획, 공공참여 정책, 규제 등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계획에서도 경관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적 보존관리계획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개발을 다루는 개발계획과 보존계획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포럼이나 자문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보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경관의 가치, 보존쟁점, 관리와 계획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할 것이 이야기되었다. 더불어 역량강화는 지역 내 거주민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보존계획, 지역 조사내용, 법, 제도, 규제 내용 등 지역의 보존과 관련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및 기록은 이해관계자들, 특히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경관의 가치를 스스로 규명하고 인식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도시지역의 역사, 문화, 건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복잡한 역사적 중첩상태와 그 요소에 대해서도 조사되어야 하며, 기록은 지역의 변화 양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 권고되었다. 또한 조사와 기록의 주요한 항목인 사전영향평가는 다학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문화적, 시각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제공은 최신기술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관의 보호, 관리, 계획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알릴 수 있어야 하며, 홍보에 관해서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나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적 가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 권고되었다.

각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은 다음의 표로 정리한다.

<표 III-6> 역사도시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전략

보존관리 전략	세부 원칙 내용	
보존관리 계획	종합적 관리계획의 수립	• 재정 지원 프로그램, 지역 마케팅 계획, 효율적인 행정, 직원 채용, 공공 참여를 위한 정책, 규제 등을 함께 고려할 것
	다양한 일반계획에 경관요소를 통합	• 지역의 계획 및 정책, 문화적, 환경적, 농업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에서 경관을 다룰 것
	보존계획과 개발계획의 통합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할 것 • 도시설계를 통해 지역의 유산적 가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는 도시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 • 보존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개발을 다루는 도시 계획과 통합할 것 • 기반시설, 교통 순환 체계, 주차로 부터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 • 주요한 구조물이나 유산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역량강화	• 포럼, 자문회와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경관의 가치, 보존쟁점, 관리와 계획에 대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과과정을 마련할 것 • 지역사회 구성원, 결정권자, 전문가와 관리자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보존계획, 지역 조사내용, 법, 제도, 규제내용, 보존수단 등에 대해 학습할 것	
조사 및 기록	경관의 가치 규명 및 이해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가치를 규명할 것 • 물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 모두에 대해 조사 및 이해할 것 • 지역공동체의 인식과 전통, 가치, 필요와 요구에 대해 조사할 것 • 도시지역의 역사, 문화, 건축과 역사적 중첩과 그 요소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것 • 기회와 위협요소를 분석할 것
	사전 영향평가	• 전문가를 통해 다학제적으로 평가할 것 • 사회학자를 포함할 것 •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적 시각적 영향평가를 수행 • 계획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
	기록	• 지역의 변화 양상을 기록할 것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정보의 제공	• 지역사회에 경관의 보호, 관리, 계획을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최신 기술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
	홍보	• 멀티미디어 재현, 웹사이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영화, 라디오,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홍보 수단을 마련할 것 •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가치와 지역 공동체에게 그 가치들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할 것 • 전통 체험, 공연, 대회 및 행사와 같은 역사적 가치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역사도시경관으로서 도시 보존에 유의미한 창조적 도구, 참여적 도구, 지적 도구, 재정적 도구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한다.

이 보존 도구들은 앞서 살펴 본 보존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서 관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적 도구의 경우는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조사 및 기록 작업 전반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 외 창조적 도구는 보존 관리 계획의 실천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지적 도구는 조사와 기록에서 주로 강조된다.

<표 III-7> 역사도시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도구

보존관리 도구	세부 원칙 내용
창조적 도구	• 도시의 연속성과 현대 건축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꾀할 것 • 파사디즘, 맥락화를 지양하는 창조적 디자인을 마련할 것 • 주변건물과의 연관성을 지닌 건축물을 설계할 것 • 물리적 간섭 및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한 관리전략에도 이용할 것
참여적 도구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할 것 • 일반 대중, 지방과 지역 당국, 그 외 주체들의 이익과 가치 조정을 위한 참여과정을 개발할 것 • 협상 및 중재과정을 개발할 것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지역민 스스로 가치를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이용할 것
지적 도구	• 변화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이용할 것 • 유산뿐 아니라 문화적 자연적 형상들을 맵핑할 것
재정적 도구	•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재정 원조를 유치할 것 • 세금 감면, 인센티브와 같은 지원적 방법을 이용할 것 • 지역 차원에서 민간 투자를 확대할 것

3.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의 주요쟁점

3.1. 변화의 창조적 관리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는 도시의 역사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로 인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변화 그 자체를 도시의 전통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관리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강조된다. 이는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이자 그

것을 위해 경관의 연속성[111]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은 지역이 변화를 겪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관리에 있어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는 '창조적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특히 설계(Design)와 예술(Art)은 물리적 간섭(intervention)에 대한 보존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창조적 접근 방식으로 다루어진다[112]. 실제로 도시설계를 통한 창조적 접근의 사례로 론 반 오이어스(Ron van Oers)는 오스트리아 빈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Wien-Mitte 프로젝트의 설계안의 변경을 예로 들어 역사도시경관 보호의 관점을 설명한 바 있다[113].

<그림 III-3> 2002년 기존 계획
(자료: Ron van Oers, 2006, p.2)

<그림 III-4> 2005년 승인된 계획
(자료: Ron van Oers, 2006, p.3)

기차역의 재건축을 포함한 본 프로젝트의 기존 계획안이 주변의 역사지역의 맥락을 고려하여 재설계를 거듭한 결과, 2005년 도시경관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빈의 도시구조에 적합한 최종안이 결정되었다[114]. 본

111) 여기서 '연속성'은 현재의 모습과 상태 그대로를 이어나가는 것, 즉 '영속성'과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12) '도시설계와 예술은 역사도시경관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구성요소를 표현하고 다가올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한다',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05, 제 22조

113) Ron van Oers, Safeguard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a UNESCO Initiative, 42nd ISoCaRP Congress, Istanbul, 2006

114) 계획에만 25년 정도가 걸린 본 프로젝트는 2012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Magdalena Pfeffer, Happy End? Architekten Wien Mitte - Wien Mitte - Vienna, mapolis magazine, 2011-10

사례에서처럼 물리적 간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설계를 통한 창조적 접근은 건축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이지도 현대적이지도 않은 사이비(모조) 역사 디자인의 형태를 피해야하며, 역사지역의 주어진 스케일, 용적, 높이를 적절하게 고려한 높은 수준의 디자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변화에 대한 창조적 관리는 일차적으로 물적 환경의 변화 조정을 의미하지만, 그 외 도시 지역에서 물적 환경 변화만큼이나 지역의 존속에 영향을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의 관리까지를 아우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변화관리는 그라츠의 쿤스트하우스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쿤스트 하우스는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창조적 접근이 실제로 사회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았던 쿤스트하우스 계획의 본질적 성과는 도시의 사회 · 경제적 구조화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라츠 시는 예술 문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도시 서쪽의 빈곤층 거주지[115]에 '아트존'을 설정하고 그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로서 쿤스트하우스를 설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트 존 및 쿤스트하우스로 인해 주변의 도시공간이 문화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낙후지역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림 III-5> 베를린
(Francesco Bandarin and Ron Van Oers, 2012)

<그림 III-6> 그라츠 쿤스트하우스
(자료: Ron van Oers, 2006)

115) 쿤스트하우스 계획 이전의 그라츠는 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무어강을 중심으로 강의 동쪽과 서쪽의 빈부차의 문제가 심각했다. 강의 동쪽이 중상류층의 거주지역이었다면, 그 이면은 인접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동자 거주지역으로 주요 범죄 발생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적 접근을 통한 계획과 설계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여 결과적으로는 도시 역사지역의 문제점 중 하나인 경제적 낙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을 증명한다[116]. 쿤스트하우스 계획이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의 예로 주목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이다.

설계와 예술문화를 통한 창조적 접근은 도시의 경제적 과정으로서 개발 압력과 보존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통합적 개발 계획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 경제성의 관점에서 역사지역에 특수하게 설계된 현대적 건축물은 지역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엔나 보고서에서는 창조적으로 관리된 역사지역의 역사적 건물,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적 건축물이 도시 특성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117]. 그러므로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는 특히 물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심한 도시의 보존에 있어 설계 및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보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강조된다.

3.2. 다양한 보존 주체의 참여와 협력

'경관'이 단일 기념물과 같은 물적 존재가 아닌 이상, 경관의 보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경관 및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에서는 참여적 도구의 이용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통합적 계획의 수립에서는 개발업자, 소유주, 지역 거주민, 공공주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 및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파트너쉽을 통한 공동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118]이 권장되기도 하였다. 역사지역의 보존을 위한 역량강화 역시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공동체, 결정권자, 그리고 전문가와 관리자들을 포함하게 되었으며[119], 조

116) 유네스코, 비엔나 보고서: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 역사적 도시경관 관리, 2005, 제 19조
117) 유네스코, 위의 문서, 제 31조
118)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제 25조
119) 유네스코, 위의 문서, 2011, 제 34조

사와 기록에 있어서도 지역 공동체로부터 지역의 역사, 전통, 가치, 필요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보존 관련 주체 중에서도 특히 지역 거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존은 문화경관의 보존관리 프로세스에서 잘 나타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마련한 문화경관의 보존을 위한 핸드북에서 제시하는 이 프로세스는 크게 역사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평가단계와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이행 단계, 계획의 이행 과정과 그로 인해 파생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계획의 조정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단계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포함하지만, 특히 보존 계획의 수립을 위한 평가 단계와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난다[120].

<표 III-8> 문화경관 보존관리 프로세스
(자료: 노라 미첼, 문화경관 보존관리 핸드북, 세계유산센터, 2008)

보존관리 프로세스	세부 단계
평가	단계 1: 사업에 대한 접근과 계획에 대한 동의 얻기
	단계 2: 문화경관과 그것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계획	단계 3: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하기
	단계 4: 관리 목적을 정의하고 기회요소와 위협요소 평가하기
	단계 5: 대안(옵션)을 확립하고 관리 전략에 동의하기
이행	단계 6: 관리 전략의 이행을 조직화하기
모니터링	단계 7: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관리 조정하기
조정된 관리	단계 8: 관리 전략과 관리 계획을 언제 수정할 것인지 결정하기

실제로 문화경관의 보존 사례에서 커뮤니티 워크샵과 같은 참여적 프로그램은 지역 거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주요 가치를 찾고 그를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는다. 반다린과 오이어스(Francesco

120) Nora Mitchell et 2, *World Heritage Papers 2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Centre, 2009

Bandarin and Ron Van Oers)가 역사지역의 효과적인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가치가 지역 공동체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121], 지역민 스스로 찾아낸 역사적 가치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반영함으로써 역사지역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림 III-7> 다양한 집단 간의 의사결정 회의
(자료: Jessica Brown et. 3, 2005, p.24)

<그림 III-8> 솔로몬 제도의 커뮤니티 워크샵
(자료: Francesco Bandarin and Ron Van Oers, 2012, p.155)

부가적으로 이러한 참여적 과정을 장려하기 위해 경관 보존의 원칙에서는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의 충돌을 중재하며 계획에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역사도시경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시 보존에 있어서 무엇보다 다양한 보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다.

3.3. 무형적 요소의 보존을 위한 전략

경관보존의 개념으로서 역사도시경관은 무형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물리적 요소, 즉 장소로서의 역사지역의 보존이 주요하게 고려된다[122]. 따라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에서도 장소의 가치를 형성하

121) Francesco Bandarin and Ron Van Oers, *Historic Urban Landscape*, 2012, p.155
122) '문화경관 지역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권고(1995)'에서 '과거의 토지 사용과 활동, 기술이나 뚜렷한 전통, 또는 문학이나 예술 작품의 묘사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장소적 의미'와 그것들이 반영된 물리적 유적을 문화경관의 요소로 본다. 유럽평의회, 문화경관 지역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권고, 1995

는 의미, 활동, 거주민의 삶과 같은 무형적 요소의 보존이[123] 중요한 특징이 된다.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에서는 이러한 무형적 요소의 보존을 위해 특별히 조사와 기록[124], 그리고 정보제공 및 홍보와 같은 보존전략들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사와 기록, 그리고 홍보와 같은 보존전략은 지역의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역사지역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도시경관의 핵심인 도시 정주지의 복잡한 중첩 상태에 대한 조사나 마찬가지로 역사도시경관의 핵심 요소인 도시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록은 국제원칙 상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125]. 더불어 조사와 기록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또한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제공은 거주민들의 보존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시 역사지역의 무형적 요소를 유지하고 또한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거주민이 주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무형적 요소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홍보 전략의 경우에는 역사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임으로써 보존에 일조가 될 수 있다.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에서는 무형적 요소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역사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다[126]. 도시 역사지역의 무형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으로 최근에는 특히 미디어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127].

---

123)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통음악, 전통 춤, 기술, 관습 등의 무형유산에 관해서는 보존이 아닌 보호(safeguarding) 개념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에 있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구분 없이 보존으로 통일하여 쓴다.

124)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에서 조사와 기록을 강조한다. 게티보존센터, 역사도시환경 보존의 도전과 우선과제, 2009, p.12

125)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제 35조

126) 공동체에서 가치는 지역의 가치를 규명하고, 그것들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것, 유네스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제 35조

127) 일반적이거나(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교육적 도구, 멀티미디어 재현 등) 일반적이지 않은(이야기, 의식, 퍼포먼스, 전통 체험과 실행 등) 수단을

<그림 III-9> 아바나 마을 축제
(자료: Francesco Bandarin and Ron Van Oers, 2012, p.109)

<그림 III-10> 지역상징물 홍보
(자료: Jessica Brown et. 3, 2005, p.11)

체코의 카르파티아 지역(white Carpathians)의 가을 축제는 지역의 상징물인 사과와 관련한 문화적 전통을 재현하고 이를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처럼 축제와 같은 문화 이벤트도 무형적 가치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한 장소감의 전파가 필요하다고 한다. 유럽 평의회, 경관에 관한 협약, 2000

4. 도시 역사지역에의 적용을 위한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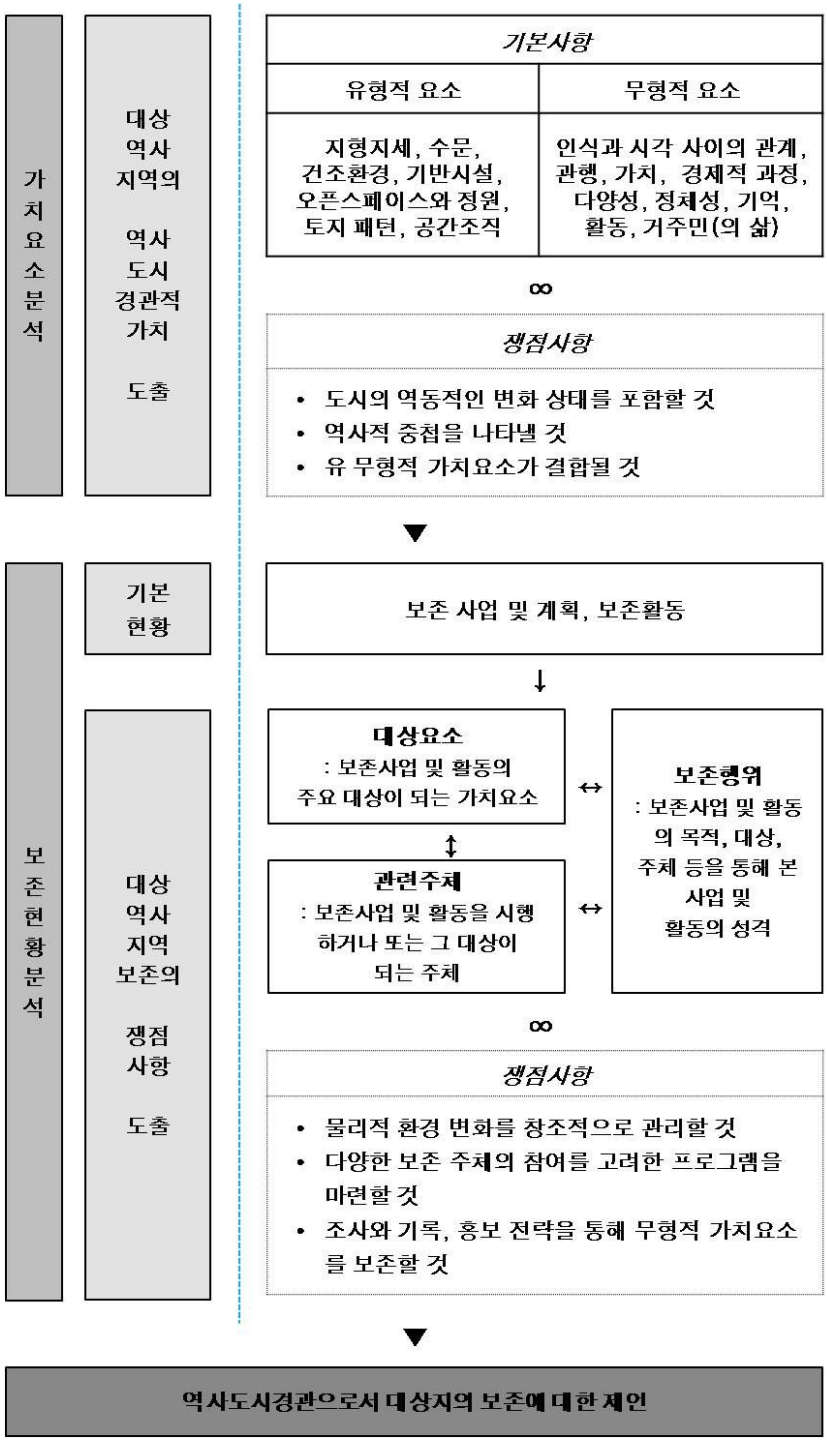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지역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틀을 설정한다. 사례 대상지의 고찰은 크게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서의 가치를 검증하고 현재의 보존 현황에의 쟁점사항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앞서 고찰한 본 개념의 유 · 무형적 가치요소 인자를 근거로,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관점에서 대상 지역이 가지는 가치를 추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대상지의 역동적인 변화 상태를 표현하고, 역사적 중첩을 나타내며, 유 · 무형 요소가 결합된 가치를 띠는 역사도시경관 가치요소의 쟁점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통해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 보았을 때 대상 지역이 어떠한 가치요소를 가질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대상 역사지역에 적용되는 보존관련 사업 및 계획, 그 외 각종 활동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고찰한다. 보존 현황은 보존 대상, 관련 주체, 그리고 보존관리 행위의 성격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보존 대상은 역사도시경관의 가치요소가 무형적인 요소의 포함을 강조한다는 점에 기인하여, 대상 지역의 보존 사업 및 활동에서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대상 요소의 범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보존 주체의 측면에서는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 특히 지역 거주민이 주가 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주요 주체 또는 대상으로서 관련하고 있는 주체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존관리 행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관리 전략과 비교하여 행위의 성격을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지의 보존 현황과 본 장에서 밝힌 도시 역사지역의 세 가지 주요 보존 방향과 비교하여, 대상지의 보존 현황에서의 쟁점사항을 도출한다. 이 쟁점사항이라 함은 대상지를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 보았을 때 부각되는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우리나라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마지막으로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보존방향을 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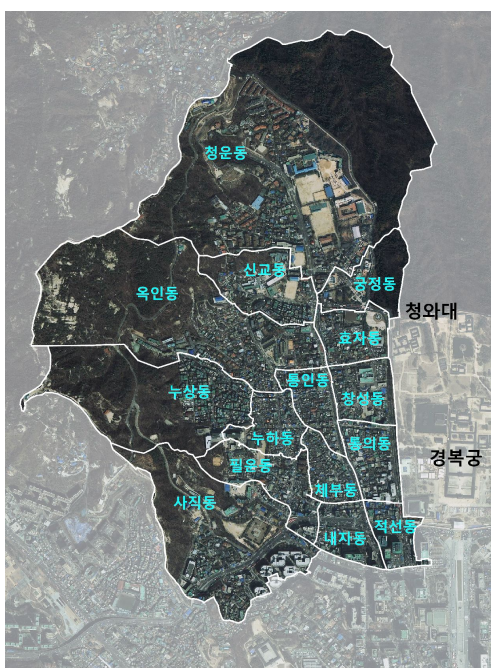


<그림 III-11> 사례 대상지에의 적용을 위한 분석 틀

Ⅳ.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적용한 서울 서촌(西村)의 보존

1. 사례 대상지 선정 배경

서울 서촌(西村)은 일반적으로 경복궁 서측의 2개의 법정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또는 15개의 행정동을 포함한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지리적 경계를 갖는 명칭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경복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북촌과 동촌, 남촌에 상대되는 지명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서촌 지역은 '웃대'라고도 불리기도 했으며, 현재는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림 Ⅳ-1> 서울 서촌 행정 동 현황

서촌은 특히 조선시대 중인 계급이 주로 거주하였던 곳으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중인들 사이의 위항문학[128]이 발달하였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서촌을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을 적용할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이곳이 조선시대 이래로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나타내는 유 · 무형의 경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둘째, 최근 이 '다층적 역사성'을 나타내는 문화적 요소에 주목하여 다양한 계획 및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129]. 이러한 서촌의 역사적 다층성은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 '역사적 중첩'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사례 연구의 대상지로 서촌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 근거가 된다.

1.1. 선행연구를 통해 본 서촌의 역사적 다층성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표현된 풍토 경관에 대한 유가현 · 성종상(2009)의 연구는 겸재가 그린 산수화의 대상이 된 조선시대 서촌 지역의 경관 요소들이 현존함을 증명한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연구(2010)에서 역시 조선시대 경복궁의 배후 주거지로부터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광복 이후에는 청와대라는 국가 통치기관의 인접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현재의 경관까지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안수정(2006) 역시 '권력'이라는 용어를 통해 서촌의 경관 변화에 미친 영향과 결과된 모습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밖에 오진숙(2011)과 이진향(2011) 역시 현존하는 서촌의 역사경관자원을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들까지 추적하여 보았으며, 최샛별(2010)은 현재의 시점에서 증가하고 있는 예술 커뮤니티와 관련한 시설들을 생활문화자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서촌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유의미한 서촌의 역사경관자원은 조선시대의 예술관련 요소에서부터 일제 강점 시기와 근대를 지나 현 시점의 생활문화자원까지를 아우르는 역사적 다층성을 띤다.

---

128) '위항(委巷)'은 원래 '마을 가운데 있는 작은 길'이라는 의미로, 양반 계급이 아닌 신분의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모여 살았던 것이 어원이다. 서촌의 경우 이곳의 위항에 살았던 중인 계급을 위항인이라고 불렀다.

129) 최근 서촌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중 '수성동 계곡'에 나타나는 경관을 복원한 바 있다.

<표 Ⅳ-1>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서촌의 역사문화경관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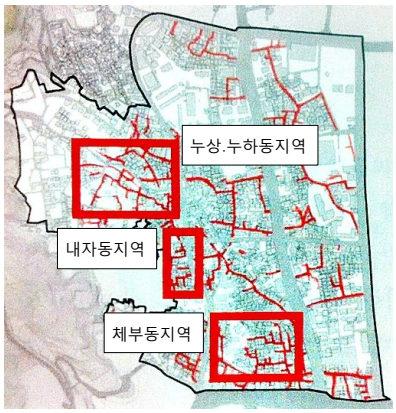
연구자	연구 연도	연구명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시간적 범위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성격	
				물적요소	비 물적요소
안수정	2006	인왕산 동쪽 기슭의 권력과 경관	조선시대-일제강점기	필지 크기	장소정체성
성종상 유가현	2009	진경산수화에 표현된 풍토경관에 관한 기초연구 :겸재 정선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산악, 산천지형, 바위	인간 행태
최샛별	2010	서울 서촌의 문화지구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현재	가옥, 명소 도시조직	예술 작품, 의미, 생활문화
서울 역사 박물관	2010	서촌 역사경관 도시조직의 변화 1 서촌 사람들의 삶과 일상 2	조선시대-현재	도시구조, 조직	생활문화
오진숙	2011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현재	자연경관	전통, 근대 역사 문화 생활 문화
이진향	2011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후기	자연경관, 명소, 옛물길	-

2.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촌의 가치요소

2.1. 유형적 가치요소

1) 오랜 역사의 궤적을 보여주는 건조환경

서촌에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옛 길이 현재까지 생활가로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중인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서촌 지역의 위항, 즉 좁은 골목길은 체부동과 내자동, 누상동과 누하동의 일부 지역, 그리고 필운동 끝자락에서 그 형태를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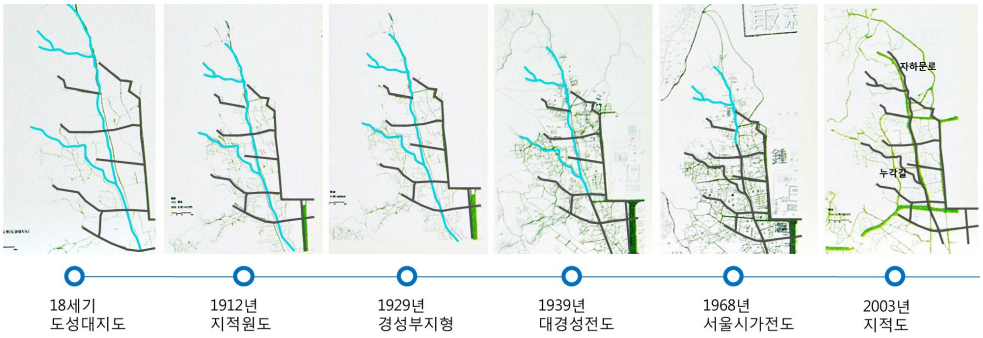
<그림 Ⅳ-2> 옛 길이 남아있는 지역
(자료: 지구단위계획 제 1차 주민설명회 자료집 재편집)

<그림Ⅳ-3> 체부동 한옥밀집지 골목

그 뿐만이 아니라 서촌의 주요 골격이 되는 도로의 형태 역시 서촌의 원형 경관[130]인 두 물길로부터 발달했다. 원래 서촌에는 인왕산을 발원으로 백운동에서 내려오는 백운동천과 옥류동과 수성동의 물이 합해서 내려오는 옥류동천이 흘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물길은 서촌의 중간지역 경복궁 서측에서 만나 광화문 앞을 지나 청계천으로 유입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운동천은 서울의 지류 중 가장 긴 물줄기로 청계천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도로 패턴의 진화는 서촌 지역을 포함한 다음의 지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도성대지도에 나타는 옥류동천과 백운동천, 그리고 주요 가로는 현대 서촌의 가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1929년 경성부지형도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옥류동천과 백운동천은 이후 하류부터 점차적으로 복개되어 오늘날의 도로 패턴의 일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옥류동천의 물줄기는 누각길에서, 백운동천의 물줄기는 자하문로에서 그 형태를 찾을 수 있다.

130) 이진향(2011)은 서촌의 원형경관으로서 서촌의 산수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이진향,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2011, pp.48-53



<그림 Ⅳ-4> 도로 패턴 형성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서촌 역사경관 도시조적의 변화, 2010 를 재구성)

특히 경복궁역에서 자하문 터널까지 이어지는 큰 길인 '자하문로'는 8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물줄기를 따라 길을 낸 탓에 구불구불한 형태를 하고 있다[131]. 또한 주변의 건물들이 높지 않아 배경이 되는 북악산의 경관도 유지하고 있다.

<그림Ⅳ-5> 조선시대 백운동천
(자료: 서울시 발표자료, 2009)

<그림Ⅳ-6> 현재의 자하문로
(자료: 다음 로드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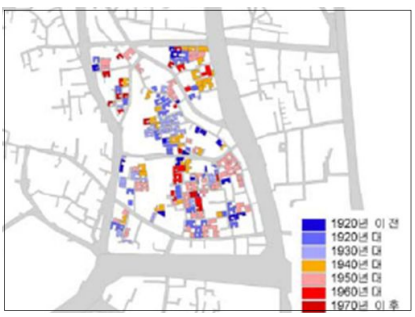
이처럼 서촌의 현재 도로패턴이 원형경관인 두 물줄기와 조선시대 주요가로들을 기반으로 확장되어 왔다면, 토지 형태 일제 강점 시기의 도시형 개량 한옥들이 조선시대 대규모 한옥 필지를 나누어 건축되면서 소규모화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132]. 토지형태의 변화와 함께 서촌의 건축물 역시 다양한 시기를 증명하고 있다.

서울 서촌 지역은 사대문 안의 타 지역에 비해 정치적인 이유로 점진

131) 서촌 주거공간 연구회 김한울의 설명이다. 서촌 답사 중, 2011
132) 정석, 한옥 주거 실태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6

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133]. 따라서 이 지역의 건축물들은 조선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 별 건축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곳에는 평균적으로 일제 강점 시기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50년대 전후로 대량 공급된 도시형 한옥(개량 한옥)이 밀집되어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옥 중에서 집 장사에 의해 도시형 한옥이 공급되기 이전 시기에 건립된 한옥들도 나타난다[134]. 특히 체부동의 경우는 1920년대 이전에 한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7> 체부동 한옥 건립시기
(자료: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6)

<그림 Ⅳ-8> 체부동 도시형한옥 밀집지

이 한옥 중에는 흔히 한양 절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붉은 벽돌을 사용한 외벽을 갖는 한옥이 많으며 이곳에 나타나는 벽돌 쌓기 형식이 근대에 도입된 영국식 쌓기 방식이나 프랑스식 쌓기 방식과 같은 건축적 특성을 띤다는 점에서 일반 전통 한옥과는 차별되는 가치를 지닌다[135].

뿐만 아니라 서촌 지역에는 일제 강점 시기의 적산가옥들도 다수 존재 한다. 일제 강점 시기의 서촌은 통치 기관 주변 주거지역으로서의 장소성을 유지하며 고관사택, 적산가옥, 학교, 시장 등이 생겨났다. 통인동 25번지 일대에 적산가옥이 밀집해 있는데 몇몇의 가옥들은 주거 기능에

133) 이 점진적인 개발과 변화는 풍치지구 지정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경복궁에 인접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서 서촌에 대한 규제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북악산 아래 궁정동에 위치한 청와대가 가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촌 사람들의 삶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2010, pp.253-263

134) 정석, 한옥 주거 실태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6

135) 서촌주거공간 연구회 김한울의 설명이다. 서촌 답사 중, 2011

서 갤러리나 공방으로 용도가 변화하였다. 배화여자중 · 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청운초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와 청운중학교는 모두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 시기 사이에 개교한 학교들로 오늘날에도 학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들이다[136].

<그림 Ⅳ-9> 이층 일본식가옥

<그림 Ⅳ-10> 효자아파트

해방이후 서촌 지역은 청와대 및 종로 중심지와 가까워 한국의 초기 아파트들이 지어졌다. 근대 개발기의 고위 관직자들과 기업인, 유명 연예인과 같은 중상층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노후화의 문제로 재건축되거나 철거되었다[137]. 현재는 1970년대 초에 지어진 효자상가아파트가 통인시장의 입구에 남아있다[138]. 그

136)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 개화기-일제강점시기에 설립된 서촌의 학교

학교명	전신	설립일	현 위치	기타
배화여자중학교 베화여자고등학교	배화학당	1898	필운동	개화기에 기독교 선교와 여성 계몽을 위해 미국인 선교사 캠벨부인에 의해 설립
경복고등학교	공립 경성 제2고등 보통학교	1921. 4.18.	청운동	-
청운초등학교	청운공립 보통학교	1923. 4.1.	청운동	-
경기상업고등학교 청운중학교	경기공립갑종상업학교	1926	청운동	1923년 동숭동에서 개교하여 현재 위치로 이전

137) 현대·청운아파트는 재건축되었으며, 옥인아파트는 기린교의 복원 및 공원화를 위해 철거되었다.

138) 통인시장은 효자동 인근 일본인들을 위해 1941년 6월 설립된 공설시장이 모태이다. 효자상가아파트는 6·25전쟁 이후 다시 서촌의 주 상업공간으로 통인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시장」, 2007, p.185 를

밖에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누상동과 신교동에 4-5층 규모의 빌라가 밀집하여 들어서기 전까지 강력한 개발 제한 규제 하에 지어졌던 저층 주거 및 상업건물들이 아직까지 그 기능과 모습으로 남아있다[139]. 6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 온 서점과 이발소, 음식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림 Ⅳ-11> 60년 된 대오서점

<그림 Ⅳ-12> 60년 된 형제이발소

<그림 Ⅳ-13> 50년 된 중국집

최근 서촌 지역은 한옥 주거지 및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 적산가옥, 그 외 오래된 건물들을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7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을 활용한 대림미술관이나 한옥 두 채를 연결하여 리모델링한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헌,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 스프링 컴 레인폴 등이 그 예다. 그 외의 사례들도 주로 공방이나 미술관과 같은 예술적 용도, 카페와 음식점과 같은 상업적 용도, 그리고 주거용도로 외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띤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용도의 신축한옥이나 예술적 용도의 현대적 건축물들도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최근 개관한 아트사이드 갤러리는 지역과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다[140].

참조

139) 서촌은 청와대의 입지와 김신조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지역 대부분이 강력한 개발 제한을 받았었다.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전 시기에 엄격한 개발 제한 규제를 받은 탓에 형성된 서촌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한 문민정부의 정치적 모토를 고려하여 개발을 허용한 결과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위의 책, pp.280-287 참조

140) 아트사이드 갤러리를 설계한 황두진 건축사사무소의 오피스큐레이터 홍수영은 “아트사이드를 설계할 때 주안점을 둔 것이 ‘어떻게 지역과 어울리게 할 것인가’였다”며 “이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활력을 살릴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한다.

<그림 Ⅳ-14> 사진위주 류가헌

<그림 Ⅳ-15> 레인 폴 스프링 컴

<그림 Ⅳ-16> 대림미술관
(자료: 대림미술관 웹사이트)

<그림 Ⅳ-17> 아트사이드 갤러리
(자료: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웹사이트)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조선시대의 옛 길부터 현재 서촌의 오래된 건물들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양상과 예술을 통해 주변과 잘 조화된 현대적 건축물까지 서촌 지역의 진화 양상과 궤적을 잘 드러내는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촌의 유형적 가치요소로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 예술 활동의 배경이 된 자연경관

서촌은 인왕산과 북악산 남쪽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현재에도 서촌 마을의 배경으로 보이는 인왕산과 북악산은 지역의 주요한 자연경관 요소로 손꼽힌다. 특히 인왕산 동쪽 지역의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누상동, 누하동 일대가 특히 두 산자락이 병풍처럼 쳐져 아늑한 느낌이 드는 지역이다[141].

141) 서울역사박물관, 서촌 2 사람들의 삶과 공간, 2010, p.16

<그림 Ⅳ-18> 서촌에서 본 북악산

<그림 Ⅳ-19> 남산에서 본 서촌

조선시대 서촌은 바위산인 인왕산 북악산이 백운동천과 옥류동천과 함께 산을 뒤로하고 물을 낀 지형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름난 명승지를 다수 지닌 도성 제일의 승경지역이었다. 전체 지형구조로 볼 때, 백안산(현 북악산)과 인왕산의 사이에서 백운동천이 발원하고 이에 옥류동천이 V자로 만나는 소위 이산이수(二山二水)의 지형을 기본으로 여기에 청풍계와 수성동이 지류를 이루면서 흘러내리는 형태로서, 골격을 이루는 산과 천 사이에 여러 계류와 능선들이 발달되어 있었다[142]. 조선시대 서촌의 빼어난 자연경관 속에 집을 마련하였던 중인 장혼은 이와 같은 서촌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한 바 있다.

> 옥류동은 인왕산의 명승지 가운데 한 구역이다. 옥류동의 형세는 덮은 듯이 서북쪽을 숨기고, 입을 벌린 듯이 동남쪽이 트여 있다. 등 뒤로는 푸른 절벽의 늙은 소나무가 멀리 바라보이고, 앞쪽으로는 도성의 즐비한 집들이 빼곡하게 내려다보인다. 평평한 들판이 오른쪽에 얽혀 있고, 긴 산등성이가 왼쪽에 높이 들려있어, 한 차례식 오가며 마치 서로 지켜주는 것 같다. 그 가운데로 맑은 시내물이 흘러가는데, 꼬리는 큰 시내에 서려 있고, 머리는 산골짜기에 닿아 있다. 졸졸졸 맑게 흐르는 물소리가 옥구슬이 울리고 거문고가 축을 울리는 듯하다가, 비라도 올라치면 백 갈래로 물길이 나뉘어 내달려서 제법 볼 만하다. 물줄기가 모인 곳을 젖히고 들어가면 좌우의 숲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그 위에 개와 닭이 숨어살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143].

장혼 외에도 서촌의 자연풍광은 조선시대 중후반의 원림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원림기(園林記)에 자주 등장하는 계(溪), 동(洞), 대(臺), 동천(洞天) 등이 당시 서촌 곳곳의 고유지명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를 뒷

142) 서울역사박물관, 「서촌 역사경관 도시조직의 변화」, 2010 p.171
143) 장혼, 이이엄집(而已广集)

받침한다. 특히 청풍계, 수성동, 옥류동이 서촌의 원림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144].

청풍계(靑風溪)는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에 해당하는 종로구 청운동 52번지 일대 골짜기를 일컫는 이름이다. 원래는 푸른 단풍나무가 많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었으나[145], 조선중기 원림이자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다 순국한 우의정 선원 김상용이 이곳을 별장으로 꾸미면서부터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라는 의미인 '청풍계(靑風溪)'로 바뀌었고 한다[146].수성동(水聲洞)은 옥류동천의 상류 지류 중에서도 풍광이 특별하게 뛰어나 별도로 이름붙어 불리던 지역이다. 이곳은 조선초기 안평대군의 거처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147].

옥류동(玉流洞) 역시 옥류동천의 상류부 주변 지역의 이름이다. 이곳은 김상용의 동생 청음 김상헌의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다. 특히 이 옥류동 지역의 청휘각에 대해서는 경치를 읊은 글이 다수 전해진다. 남용익은 "옥류동에 안개 걷히고 숨었던 경치 드러나니, 높이 솟은 청휘각은 속세와는 멀리 떠있네"라고 그곳의 표현했고, 이익상 역시 "반석에 터를 잡아 탁 트인 경치, 뚝 떨어진 세상은 속세를 벗어났네"라는 시를 지었다. 후대의 윤용구 역시 "높은 자취 우뚝하게 속세를 떠나 있네"라는 싯구를 남겼다. 또한 이 일대는 중인 출신의 위항시인들의 집회 장소가 되어 옥계시사, 송석원시사 등의 위항시회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

현재 원림 및 위항예술가들과 관련한 유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서촌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조선시대 진경화가들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서촌 지역의 명소를 추측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서촌 지역의 자연경관이 지닌 의미이자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진경화가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겸재 정선의 그림은 조선시대 서촌의 자연경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서촌 지역의 명소를 대상으로 한 <장동팔경> 2본을 남겼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지역은 총 11곳으로,

144) 서울역사박물관, 위의 책, p.171
145) 이 때의 청풍계는 '靑楓溪'를 의미한다.
146)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1권」, 휴머니스트, p.121
147) 서울역사박물관, 위의 책, p.174

바로 대은암, 독락정, 청송당, 청풍계, 취미대, 청휘각, 자하동, 필운대, 수성동, 창의문, 그리고 백운동이다[148]. 겸재의 그림을 바탕으로 이 11곳의 명소를 추정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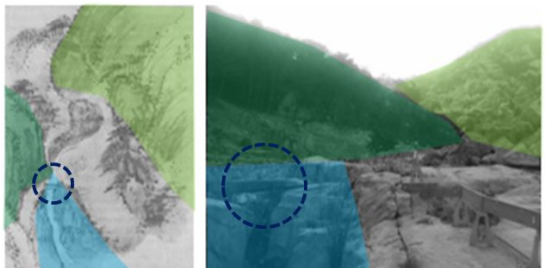
<그림 Ⅳ-20> 겸재 그림과 관련한 장소

이들 중 특히 원으로 표시한 두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 경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금천대로길에서 필운동 방향으로 보이는 경관으로 정선의 필운대 그림에서 보이는 산의 모양새를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옥인동 147번지 일대의 옥인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던 곳으로 겸재의 수성동 계곡 그림에서 보이는 산과 바위계곡, 그리고 기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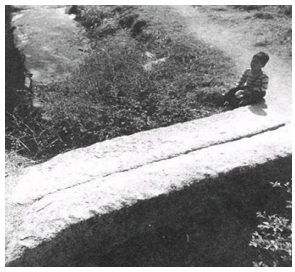
148) <장동팔경> 2본 중 한 본은 간송미술관 소장본으로 1750년경에 그린 것으로 추측되며, 다른 한 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소가 8군데 그려져 있는데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국립중앙박물관본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대은암, 독락정, 청송당, 청풍계, 취미대, 백운동, 창의문, 수성동이 대상지인데 비하여 간송미술관본은 대은암, 독락정, 청송당, 청풍계, 취미대, 청휘각, 자하동, 필운대를 대상지로하고 있다, 즉 대은암, 독락정, 청송당, 청풍계 취미대는 일치하며 3곳은서로 다르므로 두 화첩을 모두 합하면 서촌의 명소 11곳이 된다.

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1> 필운대 그림과 현재모습
(자료: 최샛별, 2010, p.55)



<그림 Ⅳ-22> 수성동계곡 그림과 현재모습



<그림 Ⅳ-23> 기린교
(자료: 서울육백년사 2004)

이처럼 서촌 지역의 자연경관은 조선시대 원림과 위항예술인의 문학, 그리고 겸재 정선의 그림의 배경으로서의 의미와 밀접하게 결합하며 오늘날 그 형태와 의미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도시경관으로서의 무형가치요소라고 볼 수 있다.

2.2. 무형적 가치요소

1)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예술적 정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서촌 지역은 양반계급의 원림들의 문학활동과 겸재 정선과 같은 진경화가들의 예술활동, 그리고 중인 계급의 위항예술이 활발하게 향유되었던 곳이다[149]. 이들은 주로 서촌 지역

에서 나고 자란 인물들로, 사대부의 원림 문화뿐만 아니라 중인 계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층에서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다.

장동(壯洞) 김(金)문(門)은 조선중기 이후 이곳을 그의 세거지로 삼으며 독자적인 원림문화를 형성시켰는데, 이 같이 서인들의 집단적 문화활동의 거점이 되면서 서촌은 예술적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인왕산 옥류동은 조선 초기부터 빼어난 풍관으로 문인들이 즐겨 노닐던 곳이다. 김상용의 후손들은 인왕산의 또 다른 개울 청풍계를 소유하였고, 그 아우 김상헌의 후손들은 옥류동을 차지하였다. 김상헌의 손자 김수항은 숙종12년(1686) 옥류동에 청휘각을 세우고, 육청헌(六靑軒)현액도 함께 걸었다[150]."

선원 김상용은 안평대군 이용의 집이 있던 청풍계에 집터를 잡았다. 집의 이름은 늠연당으로, 서재의 이름은 와유암이라고 정했으며, 김상용의 집은 '선원고택(仙源古宅)'으로도 불렸다. 이곳을 중심으로 김상용의 후손들이 이곳에 대를 이어 살면서 서촌 지역은 장동김씨 혹은 '창의동 김씨'의 터전이 되었다. 그 밖에 장동 김문의 청용 김상헌의 집 역시 터로 전한다. 또한 옥류동에는 김수항, 김창집 부자의 집이 있었다. 김수항은 아들 창집에게 지금의 옥인동 47번지 부근인 이곳에 별업을 짓게 하고 경신환국 이후 주로 머물렀다. 별업의 중심 건물이 육청헌 이었고, 그 후원에 있던 정자가 청휘각이다.

이 밖에 송강 정철의 고택과 추사 김정희의 집터, 그리고 겸재 정선의 생가(生家)와 집터인 인곡정사, 백사 이항복 선생의 고택 등이 현재에도 터로 전해진다.

"수많은 위항인의 시회 중 1786년 결성된 옥계시사(玉溪詩社)가 가장 성황을 이루었다. 옥계시사는 인왕산 자락 우대에 거주하던 13명의 경아전이 결성한 시사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천수경(千壽慶 ?-1818)의 집 송석원(松石園)이 가장 이름이 높았다. 옥계시사를 송석원시사라 부르기도 한다[151]."

장동김씨의 세거지였던 옥류동은 삼청동과 함께 위항인들의 시회처로

149) 허경진, 조선의 르네상스인 중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150)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4책, 휴머니스트, 2006
151) 이종묵, 위의 책, 휴머니스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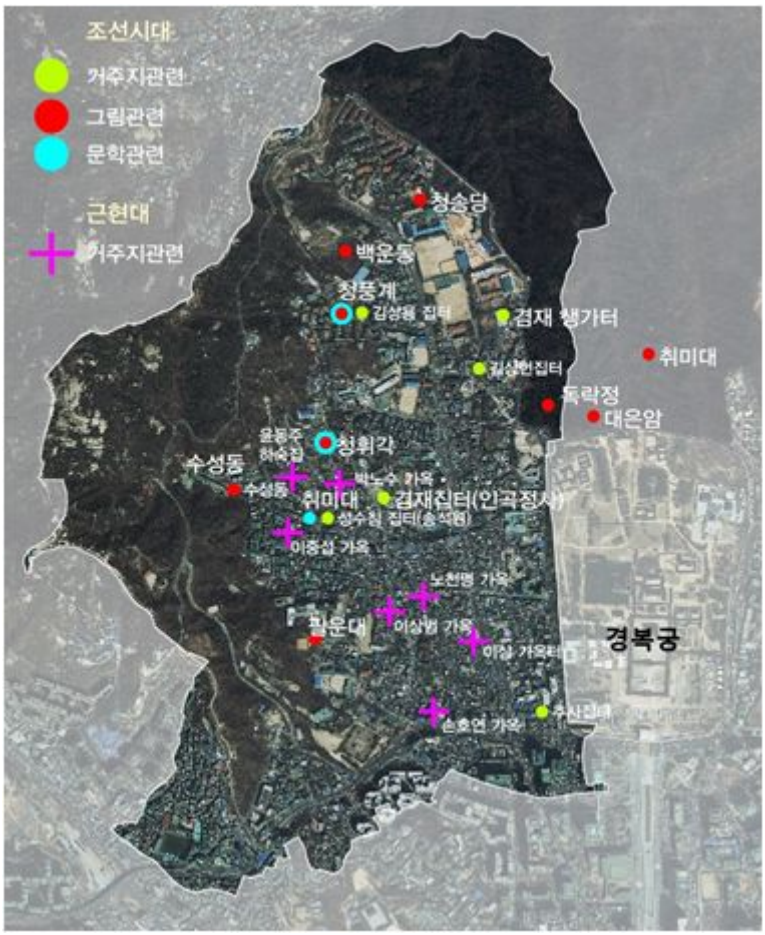
각광받았는데 인왕산 자락 우대에 경아전(京衙前)들이 집중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정조 때 활동한 평민시인 천수경은 정조10년(1786년) 이곳에 시사를 결성하고 옥계시사라 이름 지었다. 그가 옥류동 골짜기에 지은 모옥 송석원은 옥류동에서 풍광으로 가장 이름난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박윤묵과 같은 시사의 핵심인물들이 모여 살았다. 또한 수성동은 인근의 옥류동에 살았던 장혼, 김낙서 등의 위항시인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김창흡, 김창업, 김창집, 이민보, 심상고 등 웃대에 거주한 인물들 역시 수성동 계곡의 시내를 빈번히 즐기며 시를 남겼다.

송석원 등의 명승지 인근에는 원림문화와 위항시인 뿐 아니라 주변 경관을 화폭에 담는 진경산수화가 같이 발전했다. 수성동, 옥류동, 청풍계, 백운동, 자하동 등 인왕산의 대표 경물로 꼽히는 계곡과 골짜기가 정선에 의해 그려졌는데, 정선이 서촌의 여러 곳을 그림으로 남긴 것은 이곳이 자신의 오랜 거주지였고, 또 교우를 맺거나 후원해준 인물들의 세거지였던 점들 때문이다[152]. 겸재 정선은 백악산 서쪽 기슭(옛 유란동)에서 태어나 자라며 진경산수화를 창안, 웃대의 명소들을 대부분 망라하며 이를 그림으로 남기는 등 현 청운동을 발원지로 '진경문화'를 꽃 피웠다.

<표 Ⅳ-3> 조선시대 서촌 관련 예술인

구분		이름	관련 사항	관련 장소
그림		겸재 정선	생가 및 거주지(인곡정사) 위치 서촌을 배경으로 진경산수화 남김	독락정, 대은암, 취미대, 청휘각, 수성동, 필운대, 청풍계, 백운동, 청송당, 육각헌 등
문학	원림 문학	김수항, 김상용 (장동 김문)	거주지(세거지) 위치 서촌을 배경으로 원림 문학 전개	청풍계(종로구 청운동 52번지 일대)
		김창집 (김수항의 아들)		청휘각
	위항 문학	천수경	거주지(송석원) 위치 위항문학(시사) 활동 전개	취미대(송석원 시사터)

152) 서울역사박물관, 서촌 역사경관 도시조직의 변화 1, 서울역사박물관, 2010



<그림 Ⅳ-24> 서촌의 예술관련 장소

이와 같은 서촌의 예술적 지역 정체성은 근대 시기에도 지속된다. 20세기가 된 뒤에도 서촌은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의 현장이었다. 이중섭, 이상범, 박노수 같은 당대 최고의 화가와 노천명, 윤동주, 이상과 같은 당대 최고의 문학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다. 경복궁 영추문 앞에 전차 종점이 생겨 시내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문학 풍토가 20세기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53].

현재 서촌은 이상 가옥, 이중섭과 이상범의 작업실 등이 실제로 남아 있는 상태로, 조선후기의 위항문학의 전통에 이어 근대미술과 문학 도입의 핵심인물들이 문학 활동을 벌였던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

153) 서울역사박물관, 서촌1 역사경관도시조직의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p.78

설, 한시, 사설시조 등 가장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했던 위항시인들의 모임터는 시가화로 인해 자취를 감추었지만 근대 문학계의 중진이 머물며 그 맥락을 이어왔다. 이는 윤동주, 노천명, 이상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뿐 아니라 손호연 처럼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해온 이들의 활동 근거지로도 이용되었다.

이 밖에 근대예술의 핵심적 인물들이 살았던 서촌은 문학인들의 거주지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다른 문학인과 교류를 가졌던 근대문학예술의 활동 근거지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통의동의 보안여관(1930년)에서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김달진 등이 머물면서 작품을 남기며 다른 문학인들과 교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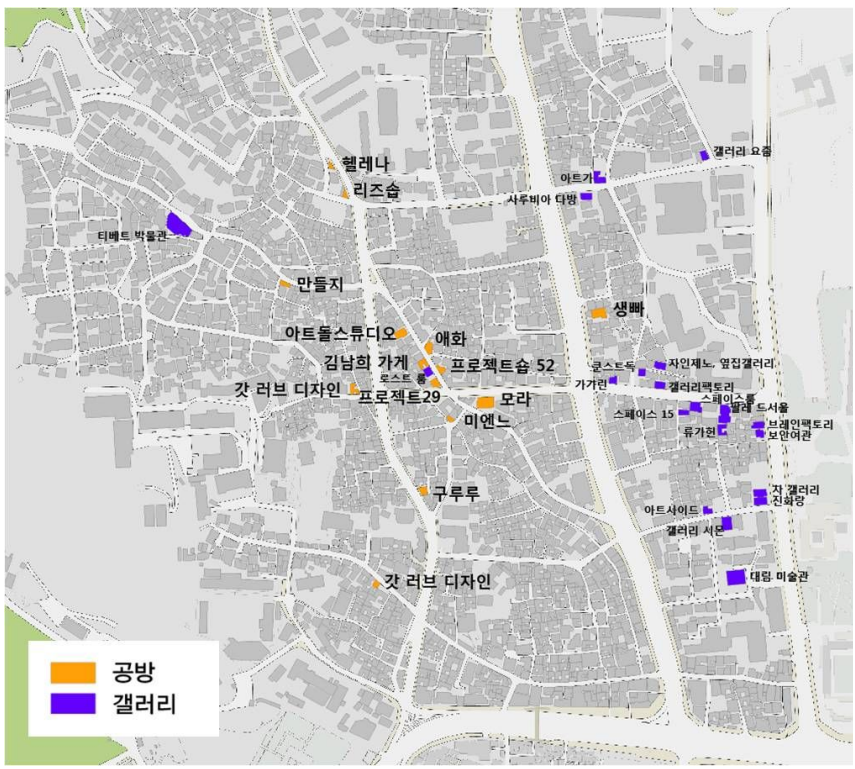
당시 서촌에 살았던 근대시기 주요 문예인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Ⅳ-4> 근대시기 서촌 관련 예술인

구분	이름	관련 사항	관련 장소	주요 활동
그림	이중섭 (1916-1956)	거주지(추정)	누상동	한국 근대 미술의 대표작가인 이중섭은 한국 전쟁이후 누상동에 거주하며 미도파화랑 전시를 준비함
	이상범 (1897-1972)	거주지	누하동 178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까지 누하동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 및 제자를 양성함
	천경자 (1924-1946)	거주지(추정)	옥인동	현실의 삶과 일상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표현하는 여성 화가
	박노수 (1927-현재)	거주지	옥인동 168-2	동양적 자연관에 입각하여 관념점 이상향을 추구하는 작품을 남김
문학	이상 (1910-1937)	거주지	통인동 154-10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통인동 154번지 일대의 백부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오감도' 등 그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품을 남김
	노천명 (1912-1957)	거주지(추정)	누하동 225-1	일제 강점 시기 여류 작가로, 1941년-1944년까지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는 작품을 남겨 현재는 친일 작가로 알려져 있음
	윤동주 (1917-1945)	거주지(추정)	누상동 9	일제 강점 시기 시인으로 1941년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작품활동을 함
	손호연 (1923-2004)	거주지	필운동 90-4	일본 시 문학인 와카에 한국 정서를 담은 작품을 남겨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문학을 알림

154) 오진숙,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선시대 서촌은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에 영감이 되는 자연경관으로서 역할 했다면 근대 이후의 서촌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서 터전이 되어왔다. 오늘날 서촌은 다수의 예술가들이 작업의 터전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유서 깊은 갤러리들이 이전해 오고 있는 등 조선시대에 형성된 예술적 정체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Ⅳ-25> 서촌의 공방과 갤러리

서촌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이 곳에 거주하며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약 2년 전 서촌에 자리를 잡은 리즈숍 대표는 자신이 처음 이사를 왔을 무렵부터 지역에 공방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20여 개가 넘는 공방이 서촌에 위치한다고 설명한다. 예술가들의 작업실 겸 상업 공간인 공방은 주로 옥인동과 누하동에 많이 분포하나 최근에는 통인동과 창성동으로 그 분포가 확산되고 있다.

2002년 대전에서 서촌으로 옮겨 온 대림미술관을 중심으로 통의동에는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명성을 얻은 갤러리들도 서촌의 잠재적인 예술문화적 특성을 좇아 이곳으로 이주해 오고 있는 추세다. 그 예로 2010년에는 아트사이드 갤러리와 갤러리 시몬이 각각 강남과 인사동으로부터 옮겨 왔고, 2011년에는 인사동의 사루비아 다방과 삼청동의 티베트 박물관이 이전 개관했다[155]. 소규모 갤러리들은 주로 한옥이나 일식 가옥을 개조하여 오픈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현재 서촌에 유입되고 있는 예술가와 갤러리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예술문화지역으로서의 장소성은 조선시대에 원림과 위항예술인, 그리고 산수화가들에 의해 형성된 예술적 정체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정체성을 서촌의 무형 가치요소로 볼 수 있다.

2)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에서는 지역 내 거주민의 삶과 활동이 주요한 무형 가치요소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지역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활동하고 있는 서촌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은 서촌의 무형적 자원이 된다.

이들 주민 공동체는 경복궁 서측 제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010년을 전후로 서촌 지역의 개선과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연관한다[156]. 당시 태동한 지역 내 주민 공동체에는 '세종마을 가꾸기회', '마을발전연구소', '서촌주거공간연구회'등이 있다. 이 중 현재에는 '세종마을 가꾸기회'와 '서촌주거공간연구회'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마을 가꾸기회'는 '서촌 가꾸기회'에서 2010년 10월 모임의 이름을 바꿔 출발한 공동체 활동이다. 이 모임은 주축이 되는 종로구 의

155) 대림미술관은 1993년, 아트사이드 갤러리는 1994년, 갤러리 시몬과 사루비아 다방은 1999년, 티베트 박물관은 2001년에 각각 처음으로 개관한 미술관이다. 특히 인사동의 갤러리 시몬과 사루비아 다방, 그리고 삼청동의 티베트 박물관은 그 지역윝 특성과 결합하여 명소로 인식되어왔다.

156) 송희영, 서촌(西村)의 마을 만들기를 향한 두 가지 관점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 20집, 2011, p. 122

원과 지자체 행정 기관의 지지를 받는 서촌지역 재개발 주민 대표단이 주요 구성원이다. 따라서 주로 지역 내 문화시설 조성, 주차장 사업, 공원조성, 가로 개선과 같이 정치 행정과 결부되어 있는 사안들을 다룬다. 또한 세종마을 가꾸기회는 특히 '세종마을' 명명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서촌'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157].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공식적인 행정관련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Ⅳ-26> 세종마을 선포식
(자료: 세종마을가꾸기회 웹사이트)

<그림 Ⅳ-27> 세종생가터 복원 추진활동
(자료: 세종마을가꾸기회 웹사이트)

'서촌주거공간연구회'는 한때 서촌 주민이었던 로버트 파우저 교수가 주축이 되어 지역 거주민들과 함께 결성한 연구회이다. 2011년 6월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이 모임은 서촌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의 보존과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회'라는 이름처럼, 서촌주거공간연구회는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서촌지역의 보존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에는 마을 주민 친목회의 성격도 갖고 있다. 서원시사와 송석원시사 등이 서촌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시사 모임과 같은 문화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 외 탐방의 안내, 마을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담당한다.

최근 아름지기의 이상의 방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존방식에 대한 협

157) 세종대왕 탄신일인 2011년 5월 15일, 세종마을가꾸기회는 세종마을 선포식을 갖고 '세종마을'을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를 주도적으로 끌어나갔던 것과 같이 보존관련 사항들이 연구회의 주요 사안으로 논의된다[158].

<그림 Ⅳ-28> 서촌 탐방 가이드

<그림 Ⅳ-29> 생태 탐방

한편 2, 3년 전부터 서촌에서 거주하며 공방을 운영해나가는 예술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공방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이 생겨났다. '(주)품애'는 2009년 5월 서촌에 위치한 국립 농 · 맹아학교의 장애우들과의 산행 행사를 시작으로 서촌 지역에서 공방을 꾸리고 있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마을 공동체이다[159]. 품애는 자신들이 가진 예술적 역량을 통해 서촌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예술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옥인동에 위치한 리즈숍 공방 주인 부부와 김정찬이 주축이 되어[160] 운영되는 '품애'는 2011년 9월 법인으로 등록되어 현재 마을 기업의 형태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161].

초기에는 리즈숍 근처에 위치한 헬레나, 만들지, 김남희 가게, 구루루가 주축이 되어 활동 했으나, 점차 범주를 넓혀 현재는 옥인동의 티아트와 통인동의 커피공방, 사직동의 사직동 그 가게와 같은 상점과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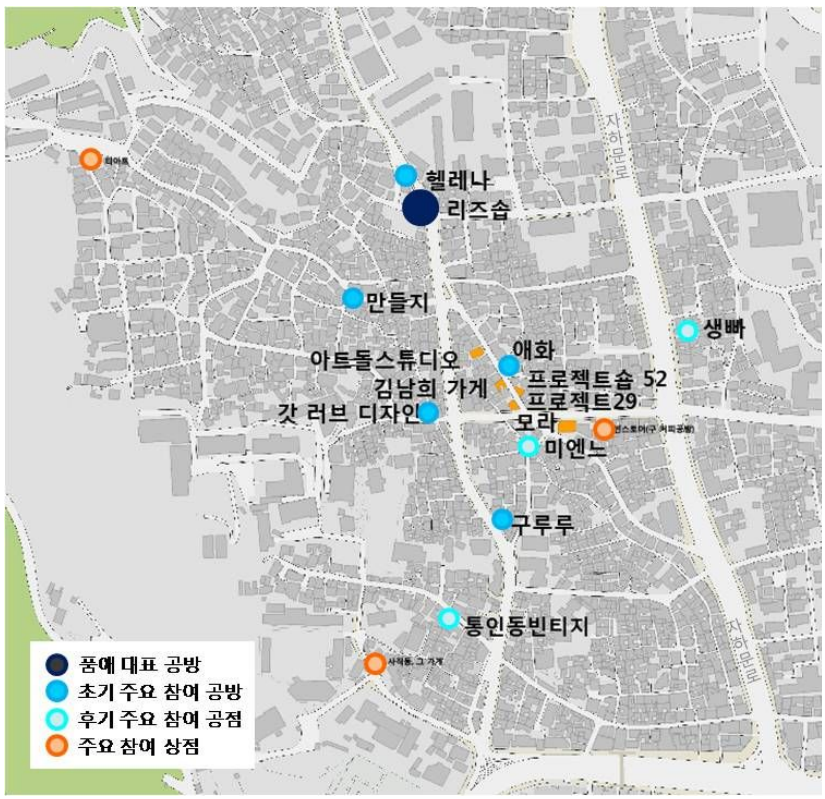
158) 최근에는 서촌의 자연환경과 역사환경, 마을 공동체의 환경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구회에서 다루는 분과를 세분화하여 한옥분과, 이야기분과, 자연생태분과, 양질교육분과로 나누어 지역의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159) 2011년 법인 등록 이전에는 '서촌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서촌 지역의 20여 개의 공방들이 모여 마을 전봇대와 담장에 그림을 그리거나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언덕에 의자를 설치하거나 골목텃밭도 조성하는 일들을 했다.

160) 리즈숍 공방의 변민숙, 배인용 부부가 대표직과 운영책임자를 맡고 있고, 김정찬이 이사직을 맡고 있다.

161) 품애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김정찬 (주)품애 이사는 설명한다.

하며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그림 Ⅳ-30> 공방 네트워크

그 외 서촌에는 공연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문화 예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예술나눔 뿌리깊은나무'가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매월 서촌의 일상을 담은 잡지를 발간하는 모임인 시옷(구 서촌라이프) 역시 2011년 3월부터 서촌 지역의 예술관련 주민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촌 토박이인 설재우 씨가 만든 서촌연구소 역시 지역의 활동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들은 개별 집단에서의 활동도 활발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체 사이에서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2월 1일에는 통인동에 위치한 커피공방의 3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서촌의 공동체들을 홍보하는 '동네기업을 소개합니다'행사가 열렸다. 2012년 3월 16일에는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공동체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시옷, 통인시장 상인회, (주)품애, 에코생협, 예술나눔 뿌리깊은나무, 시각

장애인가족회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해 온 청운효자동 벚꽃 축제 역시 2012년부터는 서촌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 및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제 4회 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림 Ⅳ-31> '동네기업을 소개합니다' 행사
(자료: 시옷 웹사이트)

<그림 Ⅳ-32> 서촌지역 마을 간담회
(자료: 시옷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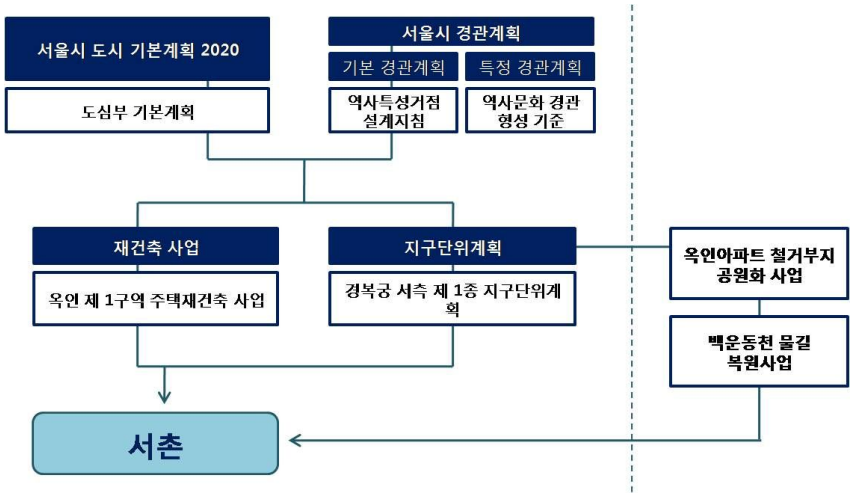
이처럼 서촌 지역에 위치한 공동체들은 각개의 성격에 따른 활동과 함께 상호 협력을 통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성을 보존하며 문화마을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촌 보존의 쟁점 사항

3.1. 서촌의 보존 관련 사업 및 활동 현황

1) 공공 계획과 사업

현재 서울 서촌에 적용되는 공공 계획 및 사업은 국토 기본계획 아래 서울시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이 있으며, 서울시 관리계획으로서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에 수립되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옥인아파트 부지 공원화 사업과 백운동천 물길 복원 사업이 있다. 각 사업의 위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Ⅳ-33> 서촌의 공공계획 및 사업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서촌은 도심부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도심부생활권은 국가행정, 외교, 경제 등 중추기능이 집중해 있고, 600년 전통의 역사문화유산이 집중해 있으며,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또한 도심부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구시가지로서 물리적 환경이 노후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정체성을 회복하며, 국제금융센터 및 도심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서울 서촌은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계획 방향이 세워졌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크게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서촌의 경우는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의 조성이라는 계획의 목표 하에서 시가지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 기본경관계획에서는 도심경관권역과 역사특성거점으로서 건물과 가로 등 건조환경에 대한 기본설계지침과 경관중점설계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특정경관계획에서는 역사문화경관형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전략에 따른 세부 경관형성기준을 제시한다. 서촌의 경우는 역사적 도시조직과 옛 물길, 그리고 문화재 주변, 한옥밀집지역의 경관형성기준이 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었다.

<표 Ⅳ-5> 서촌 지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특정경관계획

전략	세부 기준	서촌 지역에의 반영 내용
전략1 역사적 도시 조직의 보전 및 활용	역사적 도시조직 경관형성기준	역사특성보존지구
	옛 물길 경관형성기준	백운동천, 옥류동천
	주요 옛길 경관형성기준	-
전략2 역사문화지층의 다양화	역사문화거점 경관형성기준	서울성곽 안 역사문화거점
	역사경관형성건축물 경관형성기준	근현대건축문화유산 등록보존 검토대상
	멸실유적 경관형성기준	주요 멸실유적 복원 및 활용되어야 할
전략3 역사문화자원 주변경관형성	문화재 주변경관형성기준	경복궁 서측 영향검토구역
	서울성곽 경관형성기준	-
	한옥밀집지역 경관형성기준	한옥밀집지역

서울시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서촌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과 주택재건축계획 수립되어 있다. 먼저 주택 재건축계획은 2001년 8월에 옥인동 제 1구역을 대상으로 최초 수립된 후 2012년 현재까지 전통 가옥 보전을 위해 재개발 결정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연립 아파트를 철거하고 약 310세대의 새 아파트로 재개발 하고자 했던 계획은 서울시가 이곳에 위치한 '윤덕영 가(家)[162]'를 존치하는 것으로 재결정을 내리면서 2011년11월 보류 처리되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재건축 방식은 기존의 일괄철거 방식과 다르게'보전+신축형 재개발'방식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저층주택과 한옥, 지형 등은 구분하고, 나머지 땅에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더불어 서울시가 건축가들에게 의뢰해 한옥과 신규주택을 조화시킬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표 Ⅳ-6> 옥인 1구역 재건축 추진일지
(자료: 한국경제, 2012.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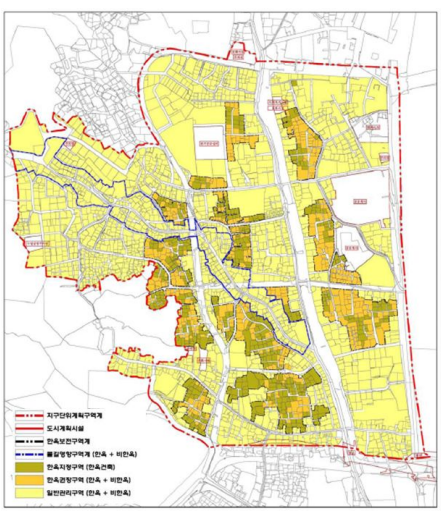
추진 일자	추진 내용
2001년 8월	서울시 옥인동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4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12월	서울시, 옥인동 재개발정비계획안 승인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6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2011년 11월	서울시, 한옥 보존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보류처분
2012년 5월	서울시, 옥인동재개발 일시 중단 및 협의 중

서촌의 지구단위계획은 '경복궁 서측 제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4월에 최종 결정되었다. 서촌 지구단위계획의 비전은

162) 조선말기 순종비(妃)였던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의 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시 민속자료 23호로 지정되어 있다.

20세기 초반 서울의 도시주거형태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한옥과 좁은 골목길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촌 지역을 크게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장기적인 과점에서 한옥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 해당 구역 별로 건축물 외관, 높이, 용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먼저 한옥이 4채 이상 연속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한옥지정구역'으로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는 주택을 포함하여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이 허용되도록 하였다.'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에 연속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제한되고 비한옥 건축시에도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등 건축물 외관계획을 통하여 한옥마을의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34> 구역 구분도
(자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2010)

<표 Ⅳ-7> 한옥권장구역 구체적 방침

추진 구역	추진 내용
자하문로, 효자로	중심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1층 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불허 보행환경 개선 위해 미관지구내 3m 건축한계선 적용
필운대길, 일반관리	지역내 최대개발 규모 200㎡ 이하로 규정
사직로	지역내 최대개발규모 1,200㎡, 최고높이 40m 규정

한편, 경복궁서측지역 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 누하, 필운동 등 3곳은 재개발 추진 시 정비계획에 한옥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한옥 개보수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촌의 한옥 보존을 강화하였다[163]. 그 외 경복궁서측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방문

객의 접근 및 활동을 고려하여 주차면수 확대[164],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한옥 문화시설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2) 역사적 건축물 보존 사업

서촌 지역에는 조선시대 궁과 이 지역에 거주했던 권문세족과 관련된 문화재와 일제 강점기와 근대 시기에 지어져 의미를 갖는 등록문화재가 다수 존재한다. 그 외 등록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건축물들이 활용을 통해서 역사성을 보존해나가고 있다.

조선시대 경복궁과 인접한 주거지의 역할을 했던 서촌에는 별궁과 국가 기관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현재까지 남아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육상궁(칠궁)과 국립 서울 농학교 내에 일부 건물로 남아있는 선희궁, 그리고 사직단이다. 물론 일제 강점기 사직단의 공원화로 그 모습이 변모 하였지만, 중심이 되는 제단은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 밖의 궁과 국가기관들은 조사를 통해 범역이 추정되며, 서촌 지역 곳곳에 터로 기록하여 역사적 의미를 이어나가고 있다.

---

163) 확대된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단 한옥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표 Ⅳ-8> 한옥 관련 지원금

구분	계획 전		현행	
	보조금	융자금	보조금	융자금
기존한옥 대수선, 신축	3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비한옥, 나대지 한옥신축	3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기존한옥 부분수선	-	-	1000만 원 (수선 후 5년 경과시)	-

164) 신교공영주차장부지에 문화시설 신설시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이며, 일부 필지에 대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표 Ⅳ-9> 조선왕실과 관련한 문화자원

명칭		현재 유형	위치	건립 시기	특기사항
궁	도정궁	터	사직동 262	선조 (1552-1608)	선조의 아버지 덕흥군의 사묘
	자수궁	터 (현 옥인동 군인아파트 일대)	옥인동 45	광해군 (1575-1641)	광해군이 새문안 경희궁 자리에 왕기가 있다는 풍수설을 믿고 그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지음
	창의궁	터	통의동 35	숙종 (1661-1720)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거처하던 잠저(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사택단지)
	육상궁 (칠궁)	건물	궁정동 1-1	영조 (1694-1776)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봉사한 묘. 구한말 5채의 0사당에 조선 역대 왕들의 친모로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7인의 신위를 모심
	선희궁	일부 건물 (현 국립 서울농학교 내 위치)	신교동 1-1	영조 (1694-1776)	영조의 후궁이며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신주를 봉안한 사묘. 1908년 육상궁으로 옮겨감
관공서	사직단	건물	사직동 1-28	태조4년 (1395)	토지를 주관하는 신(사(社))과 오곡을 주관하는 신(직(稷))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
	내자시	터	내자동	태조원년 (1392)	조선시대 궁중의 쌀, 채소, 과일 등 생필품을 공급하고 연회 등을 관장
	사온서	터	적선동	태조원년 (1392)	조선시대 궁중의 술과 감주를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장흥고	터	적선동	태조원년 (1392)	조선시대 궁중과 궁궐 내 관공서에서 쓰이는 물품을 보관하거나 공급

정치 기관의 주변 주거지로, 조선시대부터 서촌에는 여러 권문세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장동(壯洞) 김(金)문(門)의 세거지로서 유명했던 이곳에는 선원 김상용과 청용 김상헌, 송강 정철, 추사 김정희, 그리고 겸재 정선의 생가와 집터, 백사 이항복 선생의 집터가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65]. 현재 확인된 집터는 비석으로 그 의미를 전하고 있으나, 백사 이항복집터인 필운대는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항복 선생 혹은 그의 후손인 이유원의 글씨라고도 전하는 '필운대(弼雲臺)'라는 바위 각자가 현재에도 남아있어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165) 서울역사박물관, 「서촌 1 역사경관 도시조직의 변화」, 2010,

<표 Ⅳ-10> 권문세족과 관련한 문화자원

관련 인물		문화재	현재 유형
권문세족	문곡 김수항	고택	터
	청음 김상헌	고택(무속헌)	터
	선원 김상용	고택(청풍계)	터
	추사 김정희	고택	터
	백사 이항복	고택	터 (지정)
	송강 정철	송강 고택	터
	겸재 정선	생가	터
		고택(인곡정사)	터

<그림 Ⅳ-35> 필운대 바위각자
(자료: 청와대 주변 역사문화유산, 2007)

근대 시기의 역사적 건축물은 크게 건축 그 자체로 양식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과 역사적 인물과 관련하여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개화기 건축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배화여고 생활관이 해당되며,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서촌의 경우는 특히 인물과 관련한 등록문화재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상범 가옥 및 화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 도기념물과 서울시 민속자료로 옥인동의 박노수 가옥과 해공 신익희 가옥, 홍종문 가옥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박노수 가옥과 이상범 가옥 및 화실은 종로구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기념관 및 예술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다.

<표 Ⅳ-11> 서울 서촌의 근현대 문화재 현황

구분	문화재 명		특기 사항
건축 관련	배화여고 생활관	(필운동 12-3) 등록문화재 제 93호	전체적 외관은 서양식이지만 지붕은 한옥의 기와지붕 사용, 독특한 외관 형성
인물 관련	박노수 가옥	(옥인동 168-2) 문화재자료 1호	조선 말기 한옥 양식과 중국식, 서양식 수법들이 섞인 절충식 가옥으로 2011년 12월까지 가족들이 거주함
	홍종문 가옥	(체부동 158)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 29호	한옥 살림채와 광, 정자, 현대식 양옥등이 있고 이 중 한국의 전통을 살린 한옥 살림채와 광이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
	해공 신익희 가옥	(효자동 164-2) 시·도기념물 제 23호	넓지 않은 땅에 'ㄱ자'형 사랑채와 'ㄴ자'형 안채가 만나 'ㅁ자'형의 안마당을 형성
	이상범 가옥 및 화실	(누하동 178) 등록문화재 171호	청전화숙이라는 화실은 1930년대 지어진 일본식 목조건물로 동양화가 이상범 선생이 43년간 기거함

그 외 근대 작가 이상이 거주했던 집터의 일부로 알려진 통인동 154-10번지는 2009년 문화유산국민신탁(내셔널 트러스트)이 매입하면서[166] 현재 아름지기 재단과 함께 활용 및 보존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이상의 방'이라는 이름의 공공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게 되었다. 통의동 2-1번지에 위치한 보안여관 역시 1930년대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김달진과 같은 문학인들이 하숙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의미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주)메타로그 아트서비스라는 문화예술 단체가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Ⅳ-36> 현재의 이상의 방

<그림 Ⅳ-37> 보안여관
(자료: 보안여관 웹사이트)

3) 지역 공동체의 보존 활동

서촌은 다양 지역 공동체의 보존관련 활동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이들 공동체의 활동은 서촌지역 주민들의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서촌의 가치를 발굴 및 홍보하며 서촌에서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서촌의 다양한 공동체들 중에서도 공방운동에 뿌리를 두는 (주)품애의 활동과 서촌연구소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7].

먼저 품애의 경우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의 특성 상 현재 10여 개의 마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서촌 지역에서의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효자동 프로젝트'와 '방방

166) 2004년 9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 현재 남은 가옥이 이상이 살았던 집이 아니라는 자료가 밝혀지면서 등록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다.
167) 2009년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공동체 모임들 중 가장 오래된 두 곳을 선정하였다.

프로젝트'이다.

효자동 프로젝트에는 통인시장상인회와 서촌 지역의 거주 작가들, 지역카페 등이 모여 동네 벼룩시장을 여는 '시장해'행사와 지역교회와 지역 영화사, 서촌의 공방들, 동주민센터, 지역 상인회, 장애우 어머니회 등이 도와 영화관람회를 여는 '영화해'행사가 있다. 또한 '함께 걷는 우리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애우와 비장애인의 연합산행인 '등산해'도 효자동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등산 프로그램은 서촌에 자리한 맹학교와 농학교,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지역교회, 종로구청 등이 도움을 준다. 방방 프로젝트는 서촌 지역에 위치한 경복고, 배화여고를 포함하여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 및 지역 예술가 8인의 재능기부를 받아 마을 아이들을 위해 만든 마을 학교 프로그램, '샘 맑은 공부방'을 의미한다.

'시장해'

방방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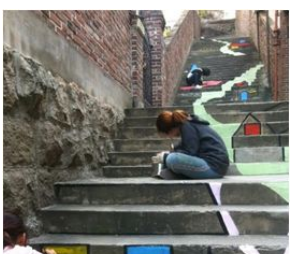
'영화해'

<그림 Ⅳ-38> (주)품애 활동 (자료: 품애 웹사이트)

그 외 서촌지역의 공방과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마을 내 공지에 텃밭을 조성하고 서촌의 역사성 및 서촌 골목길의 의미를 벽화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림 Ⅳ-39> '텃밭해'

<그림 Ⅳ-40>
전봇대벽화


<그림 Ⅳ-41> 마을벽화
(자료: 품애 웹사이트)

품애의 프로젝트는 주로 생활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위주로 계획된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지역의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특히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경계[168]하여 원주민 공동체인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운동단체, 각종 종교기관, 노인회, 상인회, 청년회, 방범대, 부녀회 , 그리고 서촌에 위치한 시민단체[169]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을주민들에게 서촌의 역사, 애향심, 문화 그리고 이웃사촌 등 잊혀졌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촌연구소[170]는 주로 서촌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주민들의 기억을 모으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 일환으로 서촌라이프라는 마을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발간한 데 이어, 같은 이름으로 된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다. 서촌연구소의 대표 자신이 서촌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는 점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기억하는 서촌 모습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일도 한다. '서촌을 보는 창' 프로젝트는 같은 맥락에서 서촌의 옛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수집하여 원래 위치와의 비교한 작품으로 만들어 거주민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전시함으로서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 옛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림 Ⅳ-42> '서촌을 보는 창'
(자료: 각설탕의 효자동 닷컴 웹사이트)

<그림 Ⅳ-43> 서촌 라이프 소개
(자료: 서촌 라이프 웹사이트)

168) 구로타임즈, 송희정기자, [12주년기획_살아있는 마을이야기2] 벽 허물고 넘나드니 마을에 정감 풀풀, 2012-3-6
169) 서촌에는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의 사무실이 다수 위치한다.
170) 현재는 '옥인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에 있다.

<표 Ⅳ-12> 서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

주체	주요 사업	세부내용
(주)품애	효자동 프로젝트	시장해, 영화해, 텃밭해, 등산해
	방방 프로젝트	공부방
	아기 엄마 프로젝트	공동육아, 수공예, 아기엄마 가게, 마을상품
	나무재생 프로젝트	주거재생, 가구재생
	문화놀이 프로젝트	그림, 사진, 놀이, 노래
	사랑방 프로젝트	오성대감
	무지개 프로젝트	아로마테라피, 햇빛발전, 텃밭과 조경, 자생화
	기타	마을 탐방 안내
서촌 연구소	서촌라이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서촌을 보는 창	마을주민들의 사진을 수집
	서촌방향(에세이)	마을의 역사적 의미 기록
	기타	마을 탐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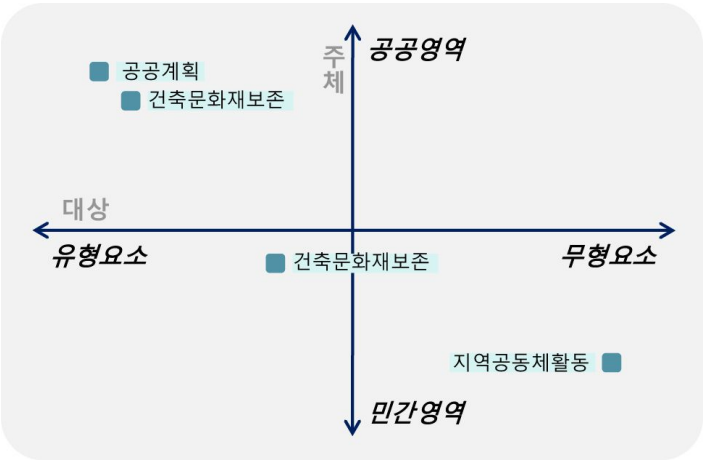
(주)품애와 서촌연구소의 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이나 기억, 역사적 의미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실천적 접근과 서촌의 의미를 조사 및 기록하고 이를 통해 서촌의 가치를 지역 주민 및 외부인에게 알리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3.2. 서촌 보존의 쟁점사항

역사도시경관 보존 개념을 통해 서촌의 보존관련 사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보존 행위가 그 대상요소와 행위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나타나는 서촌에 적용되는 공공계획은 주로 한옥밀집지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골목길에 주목한다. 문화재 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그 건축물이 지니는 의미와 같은 무형적 가치를 함께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현존하는 유형자원만을 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해 아름지기 재단과 같은 준 공공영역의 건축문화재보존은 형태가 온전히 남은 건축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의미를 무형가치로 보고 보존하고자 한다. 민간영역에서는 서촌의 보존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공동체들은 서촌의 역사적 의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서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주로 무형적 가

치요소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의 활동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의 성격을 띠거나 서촌의 역사적 의미와 서촌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알린다는 점에서 조사 및 기록, 그리고 홍보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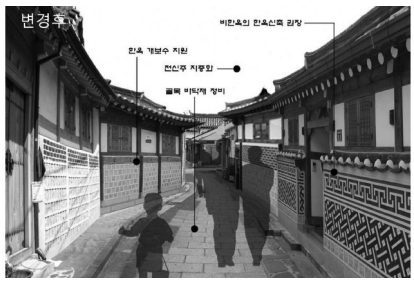


<그림 Ⅳ-44> 서촌 보존 현황의 특징

이와 같이 주체별 보존관련 행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보존대상과 보존 주체, 그리고 보존행위와 관련하여 서촌 보존 현황의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계획에서 주목하는 보존 대상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서촌의 가치요소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무형적 가치와 함께 현재의 지역 공동체와 그들의 다양한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주를 아우른다. 이에 비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910년대 이후 특히 1950년대 전후로 형성된 도시형 한옥에 주목하여 한옥마을로서의 서촌을 위한 계획 내용을 수립하였다. 이 가운데 서촌 지역의 한옥만큼이나 깊은 역사를 지닌 일본식 가옥들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촌의 무형적 가치요소로서 현재 서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지역 공동체의 유지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것도 서촌 보존 현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Ⅳ-45> 서촌 도시형 한옥



<그림 Ⅳ-46> 지구단위계획 반영모습
(자료: 인간도시 컨센서스, 2011)

둘째, 서촌의 보존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 및 협력의 기반이 되는 정책 또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서촌에는 서울시와 종로구와 같은 공공주체 외에도 재단, 민간 기업, 지역 공동체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 주체들 사이의 협력 및 갈등조정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이상의 방 조성사업이나 세종마을 명명사업, 옥인 1구역 재건축 사업 보류, 옥인아파트 철거 및 공원화 사업 등에서 주체 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이 중에서 이상의 방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171].

셋째, 설계 또는 예술과 같은 창조적인 접근방식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계획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현재 서촌의 공방운동이 예술을 통해 서촌 지역을 문화적으로 풍성한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노후화된 지역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서촌에 적용되는 공공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이와 같은 창조적 접근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신축되는 현대적 건물로 인한 물리적 간섭의 경우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제시하는 외관이나 재료에 대한 규제 방침만으로는 역사 지역에 맞지 않은 건축적 간섭을 관리할 수 없어 보인다.

171) 이상의 방 조성사업은 당초 문화유산신탁00(내셔널 트러스트)과 아름지기 재단의 주도 아래 이상이 운영했던 제비다방?을 모티브로 한 현대적 건축물로 재건축될 예정에 있었다. 그렇지만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의 지역주민 공동체의 철거 반대에 부딪혀 다수의 협의를 거쳐 오늘날 프로그램 위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존하게 되었다.

<그림 Ⅳ-47> 효자동 신축 건물

<그림 Ⅳ-48> 누하동 신축 건물

한편 최근 서촌에는 현대적 갤러리 건축물과 같이 설계가 물리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서촌에 문화적 가치를 배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172]. 이와 같이 물리적 간섭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관리에 있어 설계를 강조할 수 있는 공공계획의 체계가 요구된다.

4. 소결: 서촌의 보존 방향에 대한 제언

서울 서촌은 조선시대 형성된 주거지이자 예술가들의 근거지이다. 특히 오늘날 일제 강점 시기와 근대 시기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역사자원을 형성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173].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서촌의 다층적 역사성에 주목하여 서울 서촌을 유네스코의 역사도시경관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적용하여 서울 서촌의 유 · 무형적 가치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오랜 역사의 궤적을 보여주는 도로패턴과 건축물을 서촌의 유형적 가치 요소로 볼 수 있다. 인왕산과 북악산에 의해 형성된 자연경관 역시 조선시대 원림과 위항인들, 그리고 겸재 정선과 같은 산수화가들의 예술 활동의 대상이자 배경으로서 의미까지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가치요소가 된

172) 황두진 건축사무소가 설계한 아트사이드 갤러리나 프랑스 건축가 코르뉴가 1967년 지어진 건물 개조하여 만든 대림미술관 등을 예로들 수 있다.

173) 이영경,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숨쉬는 '서촌', 문화저널, 2012-05-31일자 (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55993&section=section21)

다. 무형적 가치요소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 시기 화가와 시인, 소설가 등의 예술가들의 근거지로서 역할 하였으며, 현재 공방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작가들과 예술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오늘날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술적 정체성을 무형적 가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역사도시경관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삶과 활동까지 무형적 가치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현재 서촌에서 예술적, 문화적, 학술적인 방법으로 지역을 보존하고 가꾸는 지역 내 공동체들의 활동들 역시 무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유산(Heritage)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서촌의 보존관련 사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서촌의 보존관련 행위는 주체에 따라 행위의 성격과 주요 보존 대상자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로 물리적 건조환경의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에 주안점을 두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공공계획과는 반대로 서촌의 역사성, 서촌 주민들의 기억, 이야기 등을 조사 및 기록하고 지역내외에 홍보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은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서촌 지역의 예술 공동체(공방운동)의 활동은 역사도시경관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 속에서 거주민의 삶을 유지하고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촌 보존현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분화된 주체별 보존 양상에서 세부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조환경이 한옥에만 국한되어 있어 재단이나 지역공동체에서 서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설명하는 일본식 가옥이나 더 구체적으로는 붉은 벽돌과 조화된 도시형한옥의 특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 및 의견조율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 그리고 창조적 접근에 대한 공공의 정책적 후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세부 쟁점사항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촌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도시에 위치한 역사지역은 생활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어쩌면 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프로그램들이 다수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들의 생활문화프로그램들과 같이 서촌의 보존은 한옥마을과 같은 유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고민되어

야한다. 문화연대 황평우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반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고민도 이와 같다. 서촌은 서촌에 남아있는 한옥, 문화재를 하나의 섬처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촌 전체가 조화로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174].

역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활동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촌생활의 지속성을 일 순위의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고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 서촌에서 나타나는 지역 활동은 현재의 시점에서 서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보존관련 행위로서 서촌 보존의 잠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계획에서도 서촌을 생활유산으로서 보존하고자 하는 인식을 구축하고, 이와 같이 생활문화프로그램으로서 서촌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촌의 변화를 창조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공공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보존 방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또한 미래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서촌을 보존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역사도시경관의 주요한 의의를 갖는다.

174) 송채경화, 골목골목 예술의 향기 '서촌의 재발견' 중, 한겨레, 2010-3-22일자

V. 결론

경관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서 속에 있는 것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는 에드워드 렐프의 말처럼[175], 경관을 피상적인 요소들의 집합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경관 개념이 중세시대에 사용된 단어에서 파생한 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학문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경관은 인간의 문화적 행위가 반영된 지역, 의미 체계, 그리고 과정으로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어왔다. 이에 비해 경관의 보존이라는 실천적 접근은 그 이론적 깊이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마을 만들기를 이용한 주민 주도형 한옥마을 보존 방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등 역사지역의 보존방식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76].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경관을 2차원의 물적 대상으로서 보존하고자 했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경관 개념으로부터의 보존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존 분야의 비교적 공인된 이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75)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1976*, 「장소와 무장소성」, 심승희 외 2역, 논형, 2005, p.251

176) 이현일, 북촌, 서촌 한옥마을, 주민 아이디어로 가꾼다. 6월 중 사업설명회, 한국경제, 2012-5-31일자

먼저 경관의 개념이 '한정된 토지'를 뜻하는 중세시대 고어에서부터 문화지리학 분야의 핵심주제로서 그 의미가 다의적으로 변화해 온 것과 같이, 경관 보존의 개념도 픽춰레스크 경관인 역사정원(Historic Garden)에서부터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그리고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의 보존에 대한 논의로 진화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보존 대상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경관에 대한 인식과 보존 가치, 그리고 보존에의 접근방식도 진화하였다. 시각적인 이미지로서의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정원 개념이 물리적 요소들의 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였다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자체에 주목한 장소로서의 경관을 의미하는 문화경관은 유형적인 요소보다는 전통, 관습, 기억, 의미와 같은 무형적 요소의 보존을 강조하였다. 이에 문화경관 지역 내 거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보존 프로세스와 역량강화가 주요한 보존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역사도시경관은 도시적 맥락에서 문화경관처럼 인간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다만 역사도시경관 개념은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도시의 특성에 주목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 온 물리적, 기능적,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 자체를 도시의 전통, 즉 무형적 가치요소로 인식한다. 따라서 변화를 통해 모습, 기능, 문화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상태까지를 경관 개념으로 보고 역사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리하는 것, 특히 개발과 보존을 통합하는 정책을 주요한 보존방식으로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나는 경관보존 개념의 진화는 유산의 개념이 기념물에서 생활유산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며, 이는 곧 경관에 대한 이론적 지평만큼이나 깊이 있는 실천적 논의로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도시의 역사지역의 보존 방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역사도시경관 보존 원칙의 세부 내용을 대상 가치요소, 관련 주체, 보존관리 행위로 정리하였다. 이는 역사정원에서부터 역사도시경관까지 보존의 대상이 확장되고, 보존관련 주체가 다양해졌으며, 보존관리 방식이 다층적으로 변화해 온 흐름에서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주체, 행위에 대한 세부 원칙을 살펴본 결과 역사도시경관의 보존은 첫째, 변화의 창조적 관리, 둘째, 다양한 보존 주체의 참여와

협력, 셋째, 무형적 요소의 보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요쟁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유산으로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도시 내 역사지역으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 서촌(西村) 지역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틀 안에서 서촌이 지니는 가치요소와 보존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 조선시대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의 서촌 지역 역사의 궤적을 나타내는 도로패턴, 건축물과 조선시대의 다양한 예술작품의 배경이 되어 온 자연경관을 유형적 가치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왕산과 북악산에 의해 형성된 서촌의 풍경은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통해 당대의 서촌의 명소를 오늘날에도 추정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형성된 예술적 정체성은 근대 시기 화가 이상범과 천경자, 그리고 작가 이상, 윤동주, 손호연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예인들이 거주하였던 곳으로서 그 의미가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날에도 공방을 운영하며 서촌에 거주하는 예술인들과 서촌 지역으로 이전해 온 유명 갤러리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촌의 예술적 정체성을 주요한 무형 가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역사도시경관 개념에서 경관 내 거주민의 삶과 그들의 활동 역시 무형적 가치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서촌 지역에서 형성하고 있는 주민 공동체와 그들의 활동 자체도 역사도시경관의 무형적 가치요소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역사도시경관 개념에 의거하여 서울 서촌이 지닌 자원, 즉 보존의 대상이 되는 유 무형의 가치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이에 바탕으로 현재 서촌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 관련 사업 및 활동들을 고찰해 보았다. 현재 서촌에 적용되는 보존 관련 사업 및 활동에는 공공영역의 지구단위계획와 문화재 지정, 그리고 준 공공영역의 개별 건축물 보존, 서촌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체 활동을 들 수 있었다. 경복궁 서측 제 1종 지구단위계획이 주로 한옥밀집지역과 골목길을 보존하기 위해 물리적 요소에 대한 규제와 용도에 대한 제한 및 권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지역공동체의 활동은 주로 거주민의 삶을 고려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서촌에 대한 기억,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역사적 의미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전시한다. 또한 조선시대의 시사모임이나 꽃놀이와 같은 활동들을 각각 연구 활동과 축제로 재현하여 무형적 가치요소의 보존에 일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존 대상과 행위에 있어 양극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서촌의 보존 현황을 토대로 현 보존의 쟁점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서촌에 적용되는 공공계획은 보존의 대상을 특정 시기의 물리적 요소, 즉 한옥에 국한하고 있어 근현대 시기의 건물과 무형 가치요소는 보존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촌에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주체 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존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도시경관에서 강조하는 창조적 접근을 수용하기에는 현행 공공계획은 경직된 성격을 띠며, 이에 현재 일어나는 개별 건축행위로 인한 물리적 간섭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서촌 보존현황에서 나타나는 쟁점사항이다.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서촌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서촌의 지역 공동체 활동이 보존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서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생활유산으로서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에 있어 거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려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역사도시경관 개념의 의의가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즉 지속가능성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도시의 계획에 있어서의 보존적 접근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연구에는 아직까지 다소 생소한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을 대상으로 보존에 대한 실천적 접근을 고찰했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실증적인 우리나라 도시 역사지역의 보존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도시보존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사례 지역을 서울 서촌 한 곳으로만 한정하여 연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인 용 문 헌

강병기, 도심 속의 역사문화환경, 건축학회지, 제 40권 7호, 1996

강태호, 고도경주의 역사문화경관 특성과 보존 대책,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 28권 4호, 20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권용걸, 도시내의 역사경관보존에 관한 연구: 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기호, 도시 역사환경 보존-면적 보존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 13권 4호, 2004

김세천 · 이행렬 · 노복윤 · 오동현, 역사경관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연구, 제 2권, 1991

김한배, 서울 서촌 역사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권 3호, 2007

류제헌, 「한국문화지리」, 살림문화사, 2002

문화관광부, 역사문화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문화관광부, 2005

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청, 2010

배정한, 조경설계와 회화적 자연관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제 27권 3호, 1999

_____,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2004

서울시, 경복궁 서측 제 1종 지구단위계획, 2010

서울역사박물관, 「서촌 역사경관 도시조직의 변화 1」, 서울역사박물관, 2010

_____, 「서촌 사람들의 삶과 일상 2」, 서울역사박물관, 2010

송희영, 서촌(西村)의 마을 만들기를 향한 두 가지 관점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 20집, 2011

신유승,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도심문화지구 조성계획,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안동만,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한국조경학회지, 제 19권, 1991

안수정, 인왕산 동쪽 기슭의 권력과 경관: 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민근, 도시역사경관보전계획에 관한 연구: 경주시와 경도시의 조례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오진숙,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유가현 · 성종상, 진경산수화에 표현된 풍토경관에 관한 기초연구: 겸재 정선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제 37권 1호, 200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일상 속 20세기 도시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근현대 도시문화유산보존 국제포럼 결과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0

윤홍기, 영어권에서 문화지리학의 발전과 연구동향, 문화역사지리, 제 21권 1호, 2009

안수정, 인왕산 동쪽 기슭의 권력과 경관: 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무용, 한국 도시경관의 근대성: 경관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제 811호, 1999

이수정, 현대 보존이론의 변화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원형보존의 원칙, 경주문화연구, 2003

이정재, 도시 문화경관, 문화과학 94 봄, 1994

이진향,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천복, 도심재생을 위한 역사문화환경의 새로운 장소적 보전기법,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
인간도시 컨센서스, 제 2차 인간도시올레 서촌 자료집, 인간도시 컨센서스, 2011
장옥연・김기호, 우리나라 역사환경 보존의 경향과 특성: 제도와 연구경향 변화를 중심으로, 2006
장옥연・김기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사환경 보존 계획과정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정석,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정재훈,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도심문화지구 조성계획,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성태,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경관 관리 방안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조정송 외,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 한국학술정보(주), 2006
청와대, 「청와대 주변 역사문화유산」, 대통령경호실, 2007
채환종, 조선후기 위항문학과 사대부, 한국문학논총 15권, 1994
최샛별, 서울 서촌의 문화지구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 한-일 도시경관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
한성미 외 2, 서래마을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 37권 4호, 2009
허경진, 「조선의 르네상스 중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홍금수,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제 21권 1호, 2009
황기원・유병림・이민우, 한국 항만도시의 도시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Ⅰ), 한국조경학회지, 제 20권 4호, 1994
황기원,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제 17권 1호, 1989
_____, 「경관의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부, 2011
_____, 「도시락 맛보기」, 다빈치, 2009
_____, 한국인이 보는 경관, 건축, 제 36권 1호, 1992
한국경관학회 외, 신경관주의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경관학회, 2010

Attoe. W. O., "Historic Preservation, in A. J. Snyder(ed.),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1979
Boesler, 안재학 역, 「정치지리학」, 명보문화사, 1995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1976,*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논형, 2005
Francesco Bandarin and Ron Van Oers,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Managing Heritage in an Urban Century, WILEY-BLACKWELL, 2012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Historic Urban Environment Conservation Challenges and Priorities for Action, GCH, 2009
Jessica Brown, Nora Michell and Michael Beresford, The Protected Landscape Approach Linking Nature, Culture and Community, IUCN, 2005
Meinig, D. W. "The Beholding Eye: Ten Versions of the Same Scene." In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Geographical Essays, edited by D. W. Meinig and John

Brinckerhoff Jack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M. Mikesxll, "Landscap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Ⅷ, 1986

Nora Mitchell, Mechtild Rössler, Pierre-Marie Tricaud, *World Heritage Papers 2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A Handbook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Centre, 2009

P. J. Fowler, *World Heritage Papers 6: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1992-2002*, World Heritage Centre, 2004

Sauer. C. "The Morphology of Landscape", in Geography 2(2),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1925

World Heritage Center, World Heritage Papers 7: Cultural Landscapes: the Chalenges of Conservation , World Heritage Center, 2004

_____, World Heritage Papers 27: Managing Historic Cities, World Heritage Center, 2010

Jokilehto, J., International charters in urban conservation: some thoughts on the principles expressed in current international doctrine, City&Time., 2007

_____, Notes on the Definition and Safeguarding of HUL, City&Time., 2010

(기타)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on the integrated conservation of cultural landscape areas as part of landscape policies, 1995

_____,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2000

English Heritage, The English Heritage Action Plan for Implementation, 2007

Experts Meeting, Historic Urban Environment Conservation Challenges and Priorities for Action,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9

ICOMOS, The Venice Charter: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1964

_____, The Florence Charter: Historic Gardens, 1982

_____, Guidelin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Ensembles and Sites, 1993

_____,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_____,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6

_____, Declaration of San Antonio, 1996

_____, Principles for the Recording of Monuments, Groups of Buildings and Sites, 1996

_____, ICOMOS Charter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2008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s and Sites, 1962

_____,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_____, Action Plan for the future, 1993
_____,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_____,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_____, Vienna Memorandum on 'World Heritag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2005
_____, Hoi An Protocol for Best Conservation Practice in Asia: Professional Guidelines for Assuring and Preserving the Authenticity of Heritage Sites in the Context of the Cultures of Asia, 2009
_____,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including a glossary of definitions, 20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웹사이트
게티 보존센터 웹사이트
서울시 도시계획 웹사이트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종로구 웹사이트
서촌 주거공간 연구회 웹사이트
서촌연구소 웹사이트
세종마을 가꾸기회 웹사이트
품애 웹사이트

▮ Abstract

Proposals for Urban Conservation based on 'Historic Urban Landscape' Concepts

- A Case Study of Seo-chon in Seoul -

Hye-In Chae
Graduate Program of Urba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So-Hyun Park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was adopted by UNESCO, which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heritage conservation last year. Reflecting dynamics in urban contexts, 'Historic Urban Landscape(HUL)', defined in this recommendation document, means the urban area understood as the result of historic layering of cultural values and attributes and also emphasizes landscape approach to urban conservation. HUL concept is also understood as an extended approach to urban conservation. Since it considers temporal dimension mainly, regarding changes as urban tradition. In this respect, the concept is very different to our landscape conservation practices which are limited to conserve traditional Korean houses, han-ok physically.

Furthermore, landscape conservation concepts in the international conservation principles has evolved from Historic Garden to Cultural Landscapes and Historic Urban Landscape, similar to 'landscape' concepts, which has evolved from an word 'lanscipe', used in medieval age to polysemous thing. In the process of being evolved, objects and values to conserve and conservation methods have also been changed as well as the meaning of landscape has.

In shorts, the way to conserve the original form of monuments from an aesthetic standpoint was changed to the way to manage changes in historic places including people as key factors. This change proves that the landscape conservation concepts i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has been discussed at great depth no less than landscape concept in cultural geography.

For this reason, landscape conservation concepts in the international conservation principles are worthy of notice, especially to our conservation practices, which have not been able to include 3 or 4 dimensions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draw proposals for urban conservation by applying HUL concepts to Seo-chon in Seoul and researching practically.

As many of studies, which already researched historic landscape resources in Seo-chon, revealed, there are lots of tangible and intangible landscape resources, formed from Joseon Dynasty period. In the view of HUL concepts, local communities and their activities could be important intangible factors. About present conservation activities in Seo-chon, three directions could be deduced in three aspects, objects, actors and conservation strategies which are concerned with main traits of HUL approach.

At first, the range of objects for conservation has to be extended to include not only Han-ok but also Japanese style houses, other modern buildings and intangible resources. Secondly, there should be cooperating system or mediation process for various actors in Seo-chon to participate in and consult among each other. Lastly, the basic policy to embrace creative approach is needed for controling the physical, cultural and social interventions, which springs up recently in Seo-chon.

Meanwhile, this study could find out that life-cultural programs of local communities plays an leading role on long-term conservation by safeguarding intangible factors such as memory of

local residents, story passed down orally, and historic local value, and also by building capacity of local residents for conserv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indicate that it is essential for urban conservation to put top priority on enhancing the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local life in historic urban area. It is also supported by HUL concepts, because the HUL emphasizes to conserve the historic urban area as living heritage on a long term basis. And in the same vein, public conservation policy should deal with the life-cultural programs as such activities performed by local communities in Seo-chon as an integrated approach.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considers conservation theory in international conservation principles and draws directions practically for our urban conservation. However, a lack of objectivity is the limit of this study, because the case for practical research was restricted within only one, Seo-chon in Seoul.

▮ Key words: Historic Urban Landscape concepts, International Conservation Principles, Landscape Conservation concepts, Seo-chon

▮ Student Number: 2010-23240